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이야기



정동수 지음

성경 지킴이가 되고 싶은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주 번역자의 진솔한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안에



그리스도예수안에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he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정동수 목사의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이야기

지자 / 정동수

1판 1쇄 / 2017년 1월 10일

2판 1쇄 / 2022년 1월 24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사랑침례교회

전화: 032-872-1184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ISBN 978-89-92485-53-1 03230

비매품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목 차



서 문	4
1. 정동수 목사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소개	7
2. 믿음 진술문	11
3. 사랑침례교회 회원과 헌금	16
4. 사랑침례교회 철학과 문화	19
5. 조직 신학	25
6. 성경 강해 목록	27
7. 개역성경에 대한 평가	28
8. 개역성경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나요?	32
9. 말씀보존학회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34
10. 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가?	37
11. 킹제임스 온리(유일주의)의 정의	46
12.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변호	49
13. 미국 내 킹제임스 유일주의 학교들과 기관들	65
14. 영감과 보존: 원본, 사본, 역본의 관계	68
15. 영어로 원어를 고칠 수 있다고요?	78
16. 성경 문제의 핵심	83
17.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90
18. 영어 킹제임스 성경 반포 400주년의 의미	93
19.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개정 신화	101
20. 크리스천 투데이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소개 기사	112
21.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소개	114
22.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	117
23. 모든 책과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	122
24.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 책들	125

1) 모든 글의 각주에는 출처가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출처는 사랑침례교회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의 웹사이트이다(cbck.org와 keepbible.com). 두 웹사이트 모두 우측 상단에 '상세 검색'이 있으므로 여기에 제목을 넣으면 해당 기사와 또 찾고자 하는 다른 기사를 모두 검색할 수 있다. 이 두 사이트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이 숨김없이 다 들어 있다.

서 문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의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1992년에 귀국하여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저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번역(주번역자)해 왔고 2000년부터는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주말에 사랑침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킹제임스 성경을 공적으로 처음 보급한 말씀보존학회가 극단적 주장과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인해 주류 교단들에 의해 이단 판결을 받은 이후로 한국 교계에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나 제 동료들은 지난 16년 동안 신실하게 번역/교정 작업을 수행하였고 온건하게 진실을 알렸기에 이제 저희가 출간하는 흠정역 성경은 생명의 말씀사 온라인 서점 인터넷 집제로 매달 베스트 성경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부흥하여 지금은 매 주일 1,000명 이상이 모이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50,000여 명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사역이 확장되는 가운데 저와 교회 그리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난 30년 동안 제가 출판사와 교회 사이트에 올린 글들을 모아 저와 교회 그리고 성경의 실체를 정확히 일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처음 다섯 편의 글은 저와 사랑침례교회의 믿음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제가 추구하는 신약 교회와 근본주의 믿음(Fundamental faith)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밥 존스 대학 등이 추구하는 근본주의 믿음에 동의하고 역시 같은 것을 추구합니다. 이 믿음의 핵심은 성경 무오성이며 저는 이 땅에 무오한 성경이 존재하고 그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그 성경을 우리말로 신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것은 강요나 주장이 아닌 확신이며 결코 다른 성경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믿음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관한 한 저는 미국 독립침례교회를 표방하며 성도의 영혼의 자유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장 중시하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의 교리에 관한 한 미국 델러스, 리버티, 밥 존스, 무디 대학과 대다수 침례교 대학들이 가르치는 대로 문자적 해석에 근거하여 문자 그대로의 6일 창조와 천년왕국, 환난 전 휴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 13년 동안 제가 설교/강해한 것들의 주요 목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세 편의 글은 개역(개정)성경에 대한 저의 존중과 소신에 관한 불변하는 진술문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성경을 가리켜 사탄 성경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지난 30년 동안 제가 견지해 오고 사이트나 책을 통해 공언한 제 믿음을 그대로 기술하였습니다.

그 다음 네 편의 글은 제가 믿는 킹제임스 유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 줍니다. 저는 영어로 원어를 교정할 수 있다거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이중 영감설’ 등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말씀보존학회를 통해 한국에 보급된 이런 이론은 그들만의 독특한 주장이며, 제가 공부한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 등 대다수의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학교들은 그런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쟁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 하므로 제가 배우고 믿고 가르치는 바를 이 글들에서 정의내리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두 편의 글 즉 ‘영감과 보존: 원본, 사본, 역본의 관계와 ‘영어로 원어를 고칠 수 있다고요?’는 제가 믿는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 세 편의 글은 종교개혁 본문 사용의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2017년은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천주교의 압제 속에서 고생하던 중세 암흑시대에 ‘오직 성경으로!’라는 기치하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라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이 마련되었고 그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개화하며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성경 번역을 위한 본문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다수 본문과 소수 본문. 다수 본문은 종교개혁 본문으로 루터, 칼빈 등 개혁자들이 천주교를 타파하기 위해 사용한 본문입니다. 반면에 소수 본문은 천주교회와 동방 정교회의 바타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서 나온 것으로 천주교 교리-특히 행위 구원 교리 - 를 지지하기 위해 여러 면에서 부패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최소한 저나 킹제임스 온라인을 믿는 분들은 비교를 통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로부터 루터, 틴데일, 칼빈, 베자 등은 천주교 사본들의 부패를 알고 한결같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본문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영어권에서는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부터 지난 400년 이상 신학의 정립, 복음 전파의 도구로 가장 널리 사용된 프로테스탄트 본문에서 나온 성경입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천주교 소수본문에서 나온 NIV 등이 시장을 잠식하여 현재는 NIV, NASB, ESB 등이 전체 성경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기존 성경들은 처음부터 소수 사본에 근거하여 번역되었기에 NIV 등과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미국의 근본적인 신자들은 종교와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프로테스탄트 본문을 사용하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믿음이며 한국에서도 정성구 박사님 등이 그런 믿음을 분명히 표명하였기에 그것을 인용하였습니다.

말씀보존학회로 인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기 전에 이 땅에는 틴스대역성경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독보적 성경인 개역성경과 영미권의

독보적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대조한 성경으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출간하면서 편집/감수자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편견 없는 진술을 하였고 저는 이런 평가가 진실을 바로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는,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바 이 점에 있어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툼슨 대역 한영성경, 기독교회사, 부록 1, p. 4, 1989)

마지막 몇 편의 글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 줄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저나 제 동료들은 한국의 대표성경인 개역(개정)성경을 까닭 없이 폄하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믿음의 문제이지 무력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는 종교개혁 본문에서 나온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신실하게 번역한 뒤 기존 성경들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또 반드시 이 성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존 성경들과 함께 참조하면 유익할 것이라고 제안하였을 뿐입니다. 혹시 이런 일을 하는 동안 저희가 실수로 잘못을 범한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면 시인하고 고칠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등의 차이로 교리적 해석이 다른 문제나 실행이 다른 문제는 서로 인정하고 복음 안에서 각자 믿음대로 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책을 통해 혹시 저나 사랑침례교회 그리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또 질책이나 권면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월 5일
(2022년 1월 24일 교정)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주변역자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minister@cbck.org

정동수 목사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¹⁾

안녕하세요?

저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주변역자인 인천 사랑침례교회 담임목사 정동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의 성장 배경, 학업 과정, 일, 성경 확신, 교회 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중에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주말에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2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인하대학교에서 정교수로 30년 재직하였고, 앞으로 정년까지 3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정동수 교수’를 검색하면 저의 공식 학력과 경력이 나오니 참조해 주십시오.

저는 1959년 출생부터 만 32세까지 감리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반공 포로 출신의 아버님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온 가족이 인천의 용현감리교회를 다녔고, 아버지는 소천하시기 전까지 장로로 20년 이상 섬기다가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1982년 9월에 유학을 가서 1988년 5월에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에서 4년간 교수 생활을 하다가 귀국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고(故) 구영재 선교사님을 만나 천주교의 본질을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신학 문제를 접하게 되었고, 밥 존슨 대학(Bob Jones University), 리버티 대학(Liberty University) 등의 근본주의 침례교 학교들에 관심을 두면서 침례를 받고 침례교인(Baptist)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수적 근본주의에 매료되어 근본주의의 핵심인 ‘성경의 무오성’(Infallibility of the Bible) 관련 문헌들을 탐독하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는 성경 이슈가 불어 닥치면서 1611년 이후로 근 400년 동안 영미권을 석권하며 모든 교회와 신학교의 신학과 교리를 정립해 주고, 5대양 6대주에 복음을 전해 준 킹제임스 성경(KJV)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교계가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저 역시 근본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확인하고 싶어서 KJV, NIV, ASV, 개역성경 등을 비교해 보았고, 사본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수십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TR)이 정확한 본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영어로 번역되어 내용 개정 없이 400년간 사용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믿음(faith)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의 믿음입니다!

1) 정동수 목사의 성경/설교/강해/목회 블로그

<http://blog.naver.com/pastor-jung/220888055900>

저는 어디서든 이 믿음을 확신있게 증언하지만 절대 누구에게도 강요할 생각이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개역성경에 단 한 개의 오류도 없다고 믿었던 믿음과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많은 자료를 읽고 수천 시간 비교를 한 결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을 뿐입니다.

이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역성경을 비롯한 다른 성경으로도 얼마든지 구원받고 믿음 생활할 수 있다고 믿고 가르쳤으며, 다만 저희 교회나 출판 사역 등에서는 저의 믿음에 따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만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국가가 인정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따른 개인과 교회의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의 밥 존스 대학, 제가 다닌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Pensacola Christian College), 그 외 보수적인 침례교 대학들은 공식적으로 100%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하고 있고, 아예 본인들의 학교 사이트 등에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한다고 공식적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신앙과 규칙이 그렇다는 것이며, 그것을 알고 입학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총신대, 대신대 학장님을 지내신 정성구 박사님께서 2014년 9월에 출간된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흰돌 출판사, 450쪽 분량)라는 책에 추천사를 쓰시면서, 킹제임스 성경과 그것의 근간이 된 그리스어 공인 본문 (*Textus Receptus*)이 종교개혁자들이 인정한 성경 본문으로서 바른 것이며 이 본문에서 나온 성경들이 바르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저는 1992년에 국내에 들어와 여러 형제들(성서침례교회 목사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등) 과 사귀면서 약 8년에 걸쳐 번역을 시도하여 2000년 8월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초판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사’에서 총판을 하며 배급하고 있고 네 차례 교정을 거치면서 2011년에 5판(영어 킹제임스 성경 출간 400주년 기념판)을 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는 10년의 우리말 교정을 거쳐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을 출간하였습니다.

저희는 유료 광고를 하지 않고 있고, 일부 성도나 대조와 참조용으로 사용하기 원하는 분만 스스로 알아서 구매하고 있기에 많은 양이 팔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매출이 많지 않아 적은 규모의 지하창고에 책들을 보관하고 있고 직원은 한 명도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저는 과거에 장로교 합동 교단과 통합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의한 말씀보존학회(대표 이송우)와는 일면식도 없고 전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개역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개역성경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등의 비상식적이며 비논리적인 주장 혹은 선동에 결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주장을 천박한 것으로 여겨 늘 금기해 왔으며, 초창기에 만든 책자에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단체는 저에게 육두문자가 포함된 심각한 인신공격을 하며 지난 20년 이상 저를 타협자 혹은 모방자 등으로 수없이 비방해

왔습니다. 말씀보존학회 이단 결의 당시 합동 및 통합 교단의 이단성 연구보고서를 보면 말씀보존학회가 이단 판정을 받은 이유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독선과 과한 주장, 과격한 언행 때문임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유튜브에 올랐던 영상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증언하였듯이, 저나 제 부모님 그리고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95% 이상이 다 개역성경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국내 역사는 개역성경에 비해 무척 짧기 때문에 이는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개역성경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거나 그것이 사탄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그렇게 증언해 왔습니다.

유튜브에서 <개역성경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나요?>를 치시면 저희가 가르치는 것을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²⁾

또한 지난 15년 이상 저희와 거래한 대형 기독교출판사인 생명의 말씀사에 확인해 보시면 저나 저희 출판사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와 출판사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www.CBCK.org

출판사: www.KeepBible.com

저희는 저희가 출간하는 성경, 20여 권의 책, 제 설교 노트, 강해 노트, 교회 서류(헌법, 믿음 진술문) 등 모든 자료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9년부터 미국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 신학대학원(Pensacola Theological Seminary)을 다녔고 2001년에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밥 존스 대학 출신의 호튼 박사 부부가 세운 대학으로, 현재 미국의 침례교 대학 중 그 규모가 가장 큼니다(총 학생 수 5,000명 정도).

Pensacola Christian College: www.pcci.edu

또한 여기서 펴내는 홈스쿨링 교재 베카북(Beka Book)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교재이고,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들과 학교들, 가정들에서 교과서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이미 소개되어 있습니다.

Beka Book: www.abeka.com

이 학교는 또한 미국 정부의 인가를 받았기에 한국에서도 이 학교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면서 장로교 목사님들의 자제들을 포함해 많은 한국 성도들의 자제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본주의 교육 기관인 이 학교는 1990년대부터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성을 공표하고 믿고 가르치며 저도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기에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2001년에 미국에서 침례교 목사 안수를 받고 인천에서 목회를 시작하였다가

2) <https://youtu.be/-i4x8ldEGlw>

모든 것이 미숙하여 1년 후 교회 문을 닫게 되었고, 2008년 5월부터 다시 시작하여 현재 주일에 아이들 포함해서 1,000여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의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를 벤치마크해서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하며 주일 오전과 오후,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만 모이고 있습니다. 기존 한국 교회와 모임의 횟수나 형식이 다르지만 그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교리적 문제가 따르는 것도 아니며 미국의 침례교회들과 비슷한 형식일 뿐입니다. 제가 믿고 가르치는 조직 신학 교리는 리버티, 델러스, 밥 존스 신학교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1988년 5월에 미국 메릴랜드 주립 대학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받은 뒤 32년 동안 냉동/공기조화/발전과 관련된 열역학, 열전달, 수치해석 등의 연구를 하였으며 200편이 넘는 국제/국내 논문을 발표하였고 30여 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저의 성장 배경, 신학, 성경 사역, 교회, 하는 일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의 큰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살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주번역자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e-mail: minister@cbck.org

믿음 진술문(Article of faith)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회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를 보통 ‘OO 교회의 믿음과 약속’이라는 책자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특별히 교리 요약문은 팸플릿으로 만들고 교회 사이트에 게재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무하는 사랑침례교회 역시 ‘믿음과 약속’ 책자를 발간하고³⁾ 교회 사이트에 믿음 진술문을 올렸습니다.⁴⁾ 다음은 이 책자에 있는 그대로 제가 믿는 성경의 핵심 교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성경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단어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섭리로 보존되어 오류가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English King James Bible)이 지금 이 시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대로 담고 있는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또한 그 성경을 우리말로 신실하게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구원, 바른 성화,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충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설교할 때에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사용한다.

2. 하나님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유일하고 살아 계신 참 하나님임을 믿는다(출20:2-3; 고전8:6). 그분은 본질상 영원히 불변하고 무한한 권능과 지혜와 거룩함과 의와 경건과 진리를 갖춘 영이시며(요4:24; 계4:11) 만물을 창조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다(창1:1; 요1:3; 골1:15-16).

우리는 이 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라는 ‘뚜렷이 구분된 세 인격체’ 즉 삼위일체로 존재함을 믿는다(마28:18-19; 요1:14; 고후13:14; 히1:1-3; 요일5:7-8). 이 세 인격체는 한 하나님이며 정확하게 동일한 본성과 속성과 영원성과 완전성을 지닌다(막12:29; 행5:3-4; 계1:4-6).

3) 교회 헌법인 믿음과 약속 문서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cbek.org/>

[bbs/board.html?board_table=dodat&write_id=228](http://www.cbek.org/bbs/board.html?board_table=dodat&write_id=228)

4) 이 믿음 진술문은 미국의 근본적인 침례교회의 믿음 고백과 거의 유사하다. 나 스스로 지난 30년에 걸쳐 이 모든 교리를 성경을 통해 일일이 확인하고 그 결과 이 믿음대로 사랑침례교회를 목양하고 있다. 출처: <http://cbek.org/html/chu06.html>

3.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예언을 성취하시며 잃어버린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는다(창3:15; 사7:14).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에 의해 수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마1:18-25; 눅1:35).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시다(요1:14, 18; 히4:1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극진히 사랑하사 아버지의 뜻을 자원하여 받아들여셨고 자신을 거룩한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자신의 피로 온 세상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제거하셨다(요1:29). 그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홀로 짊어지심으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롬3:25-26; 벧전3:18; 고후5:14; 히10:5-14).

4.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같이 거룩한 인격체이시며 그 두 분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음을 믿는다(창1:1-3).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오순절 이후부터 모든 신자들 안에 거하신다.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모든 권능의 원천이시며 그분 안에서만 참된 경배와 섬김이 이루어진다. 그분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며 성도들 중 가장 연약한 자도 무시하지 않으신다(요14:16-17; 16:7; 고전6:19; 엡2:22). 성령님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신다.

5. 사탄과 마귀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을 수없이 많이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그중 하나인 ‘루시퍼 즉 아침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으나 교만으로 죄를 지어 사탄이 되었다(사14:12-17; 겔28:11-19). 루시퍼가 타락할 때 많은 천사의 무리가 그를 따라 타락하여 마귀들이 되어 사탄의 대리자요, 조력자로서 악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한편 노아 시대에 자기들의 신분을 벗어나서 여자들을 취해 거인들을 생산한 타락한 천사들(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존하는 사슬에 묶여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서 지낸다(벧후2:4; 유6).

6. 우주의 창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의 실제적인 역사로 믿는다(창1-2; 골1:16-17; 요1:3). 하나님께서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의 하루를 6일 동안 사용하셔서 문자 그대로 그 6일 동안에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다(창1:5, 8, 13, 19, 23, 31).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그 일이 성경기록대로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그것만 지구와 우주의 참된 역사라고 믿는다.

다.⁵⁾

7. 사람의 창조와 타락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에 의해 생겨났다고 믿는다(창1:1-2, 26-27; 2:7). 모든 인류는 역사적으로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에게서 나왔다. 첫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고(창2:17; 3:6) 그 결과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과 무죄함을 잃어버리고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게 되었고(창6:5; 시 14:1-3; 51:5; 렘17:9; 요3:6) 마귀의 권세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 같은 영적인 죽음 혹은 사람 본성의 전적인 타락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아담의 자손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은혜나 믿음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다(롬3:10-19; 8:6-7; 엡2:1-3, 8-10; 딤편5:6).

8. 구원과 중생과 성화

우리는 죄인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썩지 아니할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레17:11; 뱀전1:18-19)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셨다(갈3:13).

우리는 누구라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믿는다. 이 세상의 행위나 도덕이나 규례 준수 등은 죄인이 하늘나라에 가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사64:6; 요3:5, 18; 갈6:15; 빌3:4-9). 사람이 구원받으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 본성 곧 성령님께서 심어 주신 새 생명이 그에게 들어오게 된다(요3:16; 행15:11; 뱀전1:23; 엡2:8-9).

이런 중생은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요1:12; 3:16, 18, 36; 5:24; 6:29; 행13:39; 16:31; 롬1:16-17; 3:22, 24-26; 4:5; 10:4; 갈3:22). 이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따로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된다.⁶⁾

우리는 중생이 일생에 단 한 번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는 평생토록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함을 믿는다.

5) 나는 말씀보존학회에서 가르치는 재창조를 믿지 않으며 미국 창조과학회와 한국 창조과학회에서 믿고 가르치는 대로 6일 창조와 6,000년 정도의 젊은 지구 역사(Young earth history)를 믿는다.

6) 이것은 보통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Eternal security of the believer) 교리라 불리며 고전적인 칼빈주의자들의 믿음이다. 나는 존 맥아더, 존 파이퍼 등과 마찬가지로 성경적으로 정확히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믿는다.

9. 교회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 수태되어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첫 번째 오순절에 시작되었다고 믿는다(행2:1).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있는 신약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로서 시대와 장소와 교파와 인종과 상관없이 하나이다(고전12:12-13; 엡1:22-23; 3:1-6; 4:11; 5:23; 골1:18; 행15:13-18).

우리는 지역교회가 침례를 받은 신자들로 구성되며 믿음의 약속과 복음의 교제로 이루어진 조직체라고 믿는다.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규례를 준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나 특권을 발휘한다(고전11:2; 행2:41-42; 20:17-28). 지역교회의 직무 수행자로는 목사와 집사가 있으며 이들의 자격이나 요건과 의무는 성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딤후3:1-13; 딤후1:5-11).

우리는 침례와 주의 만찬이 지역교회에 주어진 유일한 규례라고 믿는다. 침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일어나신 것처럼 그분을 통해 신자가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일어난 것을 보여 주는 신성하고도 아름다운 복음의 그림이므로(마3:16; 28:18-20; 요3:23; 행8:36-39; 롬6:3-5; 골2:12) 신자를 완전히 물속에 넣는 침수례(immersion)만이 성경적인 침례이다. 또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보여 주고 기념하는 것이지만(행2:41-42; 고전11:23, 28) 그것 자체가 특별한 효능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지역교회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계급 체계를 거부하며 완전히 독립된 자치권을 갖는다. 사랑침례교회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라도 확실하고 상식적인 것 - 모욕, 횡령, 사기 등 - 외에는 세속 법정에서 서로 소송해서는 안 된다(고전6:1). 교회의 참된 사명은 단체적인 사회 활동이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롬15:26).

10. 성경적 분리

우리는 성경적인 분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성경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후6:14-7:1; 살전1:9-10; 요이1:9-11).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성과 현대주의 교회의 배도, 신복음주의, 은사주의, 부도덕, 성경이 말하는 타협, 그리고 '무질서한 형제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야 한다.

11. 정부

우리는 시민 정부가 인간 사회의 공익과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믿는다(출18:21-22). 사형제도는 시민 정부가 지닌 특징 중 하나이다(창9:6; 롬13:3-4). 우리는 행정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우리 양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한다.

12. 휴거와 재림

우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오셔서 살아 있는 신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휴거를 믿는다(요14:1-3; 살전4:16, 18; 고전15:42-44, 51-54). 휴거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7년 환난기 전에 발생하지만(계3:10) 우리 시대에 언제라도 아무 예고 없이 즉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7년 환난기가 끝난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땅에 다시 임하실 것을 믿는다(단9:25-27; 마24:29-31; 24:15-25:46; 행 1:9-11; 15:16-1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서 문자 그대로 천년동안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사탄을 묶어 무저갱에 가두실 것이다.

13. 영원 상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과 혼이 곧바로 주님이 계신 하늘에 가며 거기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지내게 되리라고 믿는다(눅23:42; 고후5:8; 빌1:23).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의 몸은 부활하여 그의 영과 혼과 결합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과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고전15:51-57). 반면에 불신자가 죽으면 그의 영과 혼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있기까지 지옥에서 정죄와 고통과 비참함을 겪게 될 것이다(눅16:19-26; 계20:11-15). 또한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의 몸은 부활하여 그의 영과 혼과 결합하여 불 호수라고 묘사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계 20:11-15). 이 악인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으며 다만 주님의 임재와 권능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살후 1:7-9; 유6-7).

사랑침례교회 회원과 헌금

이전 글에서 언급한 대로 미국의 대다수 침례교회들은 ‘믿음과 약속’ 문서를 통해 회원의 자격, 정의, 제명, 권리, 의무, 권징 등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침례교회의 회원 제도와 특히 헌금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기에 사랑침례교회 믿음과 약속 문서에 명기된 회원 관련 조항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어느 단체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지역 교회도 교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분들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세상의 모든 지역 교회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침례교회에 나오지만 회원의 의무를 지기 원치 않는 분, 4조 2항(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분은 비활동회원으로 구분되어 4조 3항에 있는 교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활동회원이라 해도 교회에 출석하며 활동하는 것에 대해 교회는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활동회원도 투표와 같은 회원의 권리 이외의 모든 활동에서 전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회원 탈퇴 역시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헌금에 관하여는 회원의 임무를 규정한 5항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 교회는 모든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 결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사랑침례교회 믿음과 약속 인용 시작

제4조: 회원

제1항 - 회원의 자격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본 헌법의 계약을 이해하고 그대로 실행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몇 가지 사례 중 하나를 통하여 본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목사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회원가입서류를 받아 모든 항목을 살핀 뒤 문제가 없으면 회원 후보자를 예배 시간에 회중 앞으로 인도하고 회중의 동의를 얻어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경우 온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통하여

(나) 성경에 따라 동일한 믿음과 실행을 준수하는 다른 교회로부터의 이적 편지를 통하여

(다) 이미 다른 곳에서 침례를 받은 경우에는 신앙 간증을 통하여

(라) 회중에서 제명된 사람이 과거의 제명 사유에 대해 분명히 회개하며 변화되었음

을 보여 주는 증거를 회중과 목사에게 제시하는 경우 회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원으로 복귀시키는 절차를 통하여

제2항 - 회원의 정의

(가) 교회 회원은 교회 행정상의 목적으로 정규활동회원과 비활동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비활동회원은 질병, 군입대, 외국거주,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회원의 임무 수행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회원을 말한다. 비활동회원은 비활동회원으로 분류된 시점으로부터 교회의 모든 회의나 모임에서 발언권 및 투표권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모든 직무를 상실한다. 또한 위에 명시된 기간에 관계없이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로 목사와 집사회의 심사와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비활동회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 비활동회원으로 분류된 후 그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교회 명부에서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기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집사회의 제의에 의해 회중의 모임에서 제명을 결의할 수 있다. 회원이 비활동회원으로 분류되거나 또는 교회 명부에서 제명될 경우 교회는 이를 공식 선언한 후 필요한 경우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3항 - 회원의 제명

(가) 회원은 다음의 경우 교회 명부에서 제명된다; 1) 사망, 2) 회원권 이전, 3) 회중의 출교 결의

(나) 회원의 출교나 제명은 다음의 사유를 근거로 성경적인 절차(마18:15-17; 고전5장)에 따라 처리한다(제6항: 회원의 권징 참조); 1) 하나님께 대한 배도, 2) 교회 내에서 의도적으로 불화 및 파당 조장, 3) 교회 내에서 명백한 이단 교리 전파, 4) 반복해서 부도덕한 행위 실행, 5) 주님과 본 교회의 이름을 크게 실추시키는 모든 언행.

제4항 - 회원의 권리

(가) 본 회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목사의 인도를 받으며 집사회의 조언을 받는 집단으로서 맡은 바 기능을 수행하며 세상적 의미에서의 순수한 민주적 집단과는 차이가 있다. 본 교회의 내부 문제에 대한 결정은 교회가 처리할 사안이며 전적으로 교회의 법규와 처리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목사는 본 교회의 모든 일(제5조 제2항 C '목사의 임무' 참조)을 감독하고 총괄하며 집사회는 목사에게 조언과 도움을 준다. 회원들은 교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인적으로 목사나 집사회에 제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투표를 통해 교회 운영 및 업무와 관련된 결정에 참여한다. 회원들은 목사와 집사회가 결정한 교회의 중요 지침 및 방향을 확인하고 비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투표한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의 권리는 세상에서 행사하는

권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교회의 덕과 다른 회원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전8:1-2; 12-13; 9:12; 16-19; 10:32-33; 13:4-5; 빌2:1-4). 아울러 모든 회원은 자신의 권리를 제한적으로(고전14:34-35) 그리고 질서를 지키며 온유한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한다(고전14:33; 40).

제5항 - 회원의 임무

본 교회의 회원은 서로가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이며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임을 인식하여 목사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영적인 일에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며; 교회의 모든 회원을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와 대사가 되어 모든 생각과 언행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교회의 복음전파사역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회원 각자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조직적이고도 정기적인 헌금 및 다른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전16장, 고후8-9장). 교회는 모든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 결코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6항 - 회원의 권징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각종 세상의 악과 영적 누룩의 침입을 막기 위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원의 권징을 실시한다.

(가) 회원 간의 개인적인 문제는 권징 위원회의 공개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최대한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해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나) 교회 내에서의 규율과 선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목사나 집사회로 구성되는 권징 위원회를 둔다.

(다) 권징 위원회는 본 헌법에 명시된 조항들에서 벗어난 회원의 이단적인 교리와 언행, 위법 등에 관하여 조사, 분석,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회중으로부터 부여받는다.

(라) 회원과 회원 간의 문제를 공적으로 다룰 때나 회중과 교회 지도자들 간의 문제를 다룰 때는 공히 성경적 절차에 따라 엄정히 판단하여 권징하되 권징을 위해 권징하는 것이 아니라 권징 대상자의 영적 회복과 성장을 목적으로 겸손과 사랑의 영으로 권징한다. 특히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떠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이단 교리를 가진 자는 엄격히 징계한다.

(마) 회원의 규율과 권징에 관하여 회중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정규활동회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 인용 끝

사랑침례교회 철학과 문화⁷⁾

1. 교회 비전

-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함
- 참된 신약 교회를 추구함
- 진리의 말씀을 추구함

2. 교회 목표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구원, 바른 성화,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3. 교회 철학

교회 철학이란 교회 비전에 따라 교회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회 운영 원칙을 말한다. 보통 철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흔히 인식, 존재, 가치의 세 기준에 따라 하위 분야가 나뉜다.
2.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인생관, 세계관, 신조 따위를 이르는 말.

성경은 세상 철학을 무가치하게 여긴다(골2:8). 그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의 철학은 위의 정의 중 첫째에 해당한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을 담은 철학을 반대한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 철학은 위의 정의 중 둘째 것을 의미한다.

가정에도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이런 원칙은 가정의 리더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따라 집집마다 다르다. 어떤 가정은 교양과 품위와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다. 반면에 어떤 가정은 예의나 도덕 및 질서 준수 등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무자비하게 남을 누르고서라도 돈, 명예, 권력 등을 획득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아이들이 어떤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가정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삶의 목표가 다르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회를 보는 눈이 다르게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유기체이며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이 모인 조직체이다. 모든 성도는 유기체의 일부로 주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야 한다. 그에 반해 세상 철학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땅에 있는 지역 교회는 믿는 바를 성도들이 생활에 적용할

7) <사랑침례교회 철학과 문화>, http://www.cbck.org/bbs/board.html?board_table=dodat&write_id=256

수 있도록 구체적인 원칙으로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우리는 ‘교회 철학’이라고 부른다. 가정마다 철학이 다르듯이 지역 교회 역시 리더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어떤 것에 우선권을 두는지에 따라 철학이 다르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교회의 목표 및 가치 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4. 교회 문화

교회 문화는 교회 운영 철학에 따른 성도들의 믿음 생활양식과 열매로 규정할 수 있다.

5. 교회 철학과 문화의 구체적인 사례⁸⁾

5.1 첫째 비전에 근거하여 거룩함을 강조함

참으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성품을 조절하는 근본 속성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 사이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으며 그 결과 그분의 거룩함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분의 사랑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모든 사랑은 기준이 있어야 바른 사랑이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거룩함이다. 사랑이라는 엔진은 아무 데나 굴러가면 무절제의 도구가 된다. 바로 이때 그분의 거룩함이 사랑이라는 엔진을 조절하여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레일이 되므로 그것은 사랑보다 높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하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어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만족되기 때문이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거룩함보다 사랑을 더 중요시한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조차 거룩함을 찾기 어렵게 되었고 각 사람이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하나님께 나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거룩함이라는 궤도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 각종 어려움이 발생한다.

사랑으로 해야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교회가 수용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며 그런 식의 거룩하지 못한 경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가증하게 여기신다(잠28:9).

그러므로 기준과 표준을 요구하지 않는 기독교는 바른 기독교가 아니다.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사랑과 거룩함이 갈등을 일으킬 때 반드시 거룩함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 수 있으며 존재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의 실행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를 쓴다.

8) 여기에 기술된 것들의 대다수는 내가 다닌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들이며 미국의 근본적인 침례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 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다음 그림은 거룩함과 믿음의 실행의 관계를 잘 보여 준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즉 예배, 섬김, 교제, 교육, 선교, 의복, 언행, 음악 등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만 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드리며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등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은 교회가 양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방향에서 판단하고 치리하고 권징한다.



5.2 둘째 비전에 근거하여 자유 신약 교회를 추구함

우리 교회는 성도의 ‘영혼의 자유’(Soul liberty) 곧 ‘양심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라 믿는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것 즉 자유 의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에게 주어진 영혼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기 위해 성도의 의무와 책임에도 힘을 쏟는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자유 교회’(Free church)가 성경에 나오는 신약 교회의 바른 모델이라고 믿으며, 이와 같은 자유 교회를 바르게 형성하기 위해 애를 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과 신자의 양심에 비추어, 전통적 한국식 교회의 종교적 관습에서 벗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며 교회의 모든 일을 성경적, 합리적, 상식적으로 행한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좌에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형성된 이후 주어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근거하여 신약식 교회를 추구하고 운영한다. 또한 목사의 제사장화나 예배당 건물의 성전화 그리고 구약 시대 성도들에게 부과된 각종 헌물 및 규례 등을 철저히 배척한다.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 희생으로 완전한 신약 시대가 열렸으므로 이제 더는 구약 시대의 형식과 계급체제 등이 필요 없다. 이를 확실히 인식한 자유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구약 시대의 형식에 갇힌 ‘의식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비의식 예배’를 추구하고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구약식 교회인 천주교회에서 나온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암송이나 목사의 축도 등을 하지 않는다. 또한 구약 시대의 십일조, 일천

번제 등도 하지 않으며 각종 절기도 지키지 않는다.

특히 헌금에 관한 한 우리는 성도 개개인이 수입의 십분의 일 정도를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는다. 또한 교회가 정한 특별 목적 헌금 외에는 모두 한 종류의 감사 헌금으로 드린다. 또한 헌금 당사자나 액수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또한 교회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과 지출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목사가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직무 수행자의 계급화를 막기 위해 집사 및 지역 인도자 등 리더들은 종신직이 아니라 임기직으로 임명하며 특히 집사의 경우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

공예배시 대표 기도나 시작 기도, 말씀 낭독, 주의 만찬 집행 등을 특정인만 하지 않고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할 수 있게 한다.

교회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찬양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특송 등에 참여할 수 있지만 구약식 성가대와 성가대석을 상시로 두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믿으며 프랜차이즈 형식의 교회 성장을 반대한다.

5.3 셋째 비전에 근거하여 진리의 말씀을 추구함

우리 교회는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담은 성경이라고 믿는다. 또한 그 성경을 우리말로 신실하게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구원, 바른 성화,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충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 성경 공부, 아이들 교육 등에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

우리는 공예배를 빼고는 개별적인 골방 기도를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통성 기도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도들의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 신학원을 운영한다. 신학원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가 아니라 성도들의 성경 지식 증대와 성화를 위한 성경학교이다.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성경을 영해하기 쉬운 QT 성격의 성경 공부를 자제한다. 이런 형태의 성경 읽기는 경건 서적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문자적 해석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며 7년 환난기 전에 교회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휴거됨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몸이 문자적으로 휴거됨을 믿으며 주저 없이 이런 확신을 가르치고 선포한다. 우리는 재림의 큰 소망을 의지하며 평화롭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한다.

5.4 교회의 최우선 목적에 근거하여 구원과 성화에 힘을 쏟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에 힘을 쓴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우리는 미디어 선교에 역점을 둔다. 특히 모든 자료는 무료로 책이나 CD로 보급하고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분된 사람'이므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고상한 것들을 추구하여 후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키게 하는 데 힘을 쏟는다.

성도는 언행에서 마땅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야 한다. 성도는 자발적으로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교제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며 이를 통해 주님을 섬긴다.

성도의 성화 중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선과 가식의 척결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예' 해야 할 때는 '예' 하고 '아니오' 해야 할 때는 '아니오' 하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이들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우리는 온 가족이 오전 대예배에 함께 참여해야 함을 믿는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교제하는 것을 장려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므로 통상적인 지역 모임에서는 성경 공부보다는 성도들 간의 거룩하고 친밀한 교제에 힘써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단정한 옷차림과 고상한 언어 습관이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함을 믿으며 이를 권장한다.

우리는 성도의 간증이 본인과 다른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음을 믿고 자발적으로 간증에 참여하게 한다.

5.5 상식에 근거하여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

우리는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함을 믿는다. 그래서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교회 안에서 창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여자들은 남자들을 가르치는 직무 수행자(목사와 집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의 여러 현안을 논할 때 언제라도 질서 있게 발언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우리는 부부가 한 몸임을 믿는다. 따라서 목사, 집사, 지역 인도자, 선교사 등을 임명할 때 부부가 함께 신실하게 섬기고 일해야 함을 믿는다.

목사, 전도사, 설교자를 임명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소명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 아무리 본인이 소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도 그 형제의 섬김, 가르침, 인도 등을 통해 변화받은 사람들의 증언과 간증이 뒤따라야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믿는다.

우리는 출석한 지 오래된 성도들이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장려하나 주인 행세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은 존중하지만 그것이 기득권이 되는 것은 반대한다.

우리는 독서가 인간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으며 특히 경건 서적 읽기를 권장한다.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의 발표력, 리더십을 키워 주기 위해서 스피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으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갖는다. 또한 바른 정서의 함양을 위해 기회가 있는 대로 음악회도 연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랑침례교회가 완전하지 않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만 교회라는 독단적 자만과 우월성 그리고 배타성을 성도들에게 심어 주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믿으며 늘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이 세대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가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배치되는 동성애, 낙태, 이슬람 확산 등을 반대함을 담대하게 세상에 천명한다.

조직 신학⁹⁾

조직 신학(Systematic theology)은 기독교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들을 논리적/체계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서술하는 학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무시하지만 실제로 기독교는 교리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교리(doctrine)라는 말은 단수로 51회(구6, 신45), 복수로 5회(신약에만), 총 56회 나옵니다.

1. 교리의 정의: 어떤 진리에 대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제시하는 것
2. 교리는 반드시 빛과 어둠을, 참과 거짓을, 생명과 사망을 나눈다. 교리가 없이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
3. 교리와 영혼 구원은 양립한다. 사도 바울을 보라. 바른 교리를 가져야 바르게 구원한다.
4. 교리를 알면 사람이 열정에 차게 된다(눅24:32; 계1:3; 22:7).
5. 십계명의 첫째 명령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나? 더 알아야 한다.
6. 성령님의 열매는 뿌리가 있어야 나온다. 그 뿌리는 진리를 아는 것 즉 교리이다.

성도들을 위한 조직 신학 교리에는 구체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성경
2. 삼위일체 하나님
3. 아버지 하나님
4. 그리스도
5. 성령님
6. 사탄과 천사들
7. 사람
8. 죄
9. 구원
10. 교회
11. 예언(종말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교리에 달려 있습니다(특히 구원에 관한 교리).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사람이 가장 행복하며 안정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목사가 가장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9) <조직 신학 교재: 월밍턴 박사> <http://www.cbck.org/>

[bbs/board.html?board_table=qt&write_id=1027](http://www.cbck.org/bbs/board.html?board_table=qt&write_id=1027)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저는 구체적으로 약 80회에 걸쳐 조직 신학 강해를 하였습니다. 본 교회 사이트에는 조직 신학 동영상과 강해 노트가 들어 있습니다. 교재로는 세계 최고 석학인 리버티 대학의 윌밍턴 박사(Dr. Harold Willminton)의 책을 사용하였습니다.¹⁰⁾

윌밍턴 박사는 델러스 신학교, 무디 성경연구소, 애쉬랜드 신학교,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분이 개발하고 강의한 Liberty Home Bible Institute 과정은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등록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리버티 대학의 학장을 지내셨고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리버티 대학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제리 폴웰(Jerry Falwell)이라는 유명한 근본주의 목사님이 총장으로 있으면서 미국의 근본주의를 이끌던 학교 중 하나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전적으로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하였습니다(지금은 아들이 총장을 하면서 근본주의 측면이 많이 희석되었음).

그렇게 학교가 왕성하게 발전하던 시기에 그 학교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바로 윌밍턴 박사님이었습니다.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리버티 대학은 신학교 이름을 아예 ‘윌밍턴 성경 학교’(Willmington School of the Bible)로 바꾸었습니다.¹¹⁾

한국에서는 남포 교회의 박영선 원로 목사님, <새 교회사>의 저자이신 정수영 목사님 등이 리버티 대학에서 수학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학교에서 조직 신학 교재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조직 신학은 전적으로 이 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현재 델러스, 밥 존스, 펜사콜라 크리스천, 무디, 바이올라, 위튼, 남침례 신학대학원 등이 가르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아쉽게도 이 책은 현재 절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모든 내용은 <Willmington's Guide to the Bible>이라는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1,248쪽의 이 책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경 설명 핸드북입니다. 처음에 이 책을 접했을 때 그저 놀라기만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놓을 수 있을까!”¹²⁾

우리나라에는 <윌밍턴 본문중심 성경연구>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책들을 통해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샬롬!

10) Willmington's Complete Guide to Bible Knowledge: Introduction to Theology, Dr. Harold L. Willminton, Tyndale House이며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음.

11) <http://www.liberty.edu/academics/religion/willmingtonschoolofthebible/>

12) 아마존에서 'Willmington's Guide to the Bible'을 치면 나온다.

성경 강해 목록

믿음 진술문과 조직 신학에 근거하여 저는 2008년부터 지난 13년 동안 성경의 여러 주제와 책들을 강해하였습니다. 성경 강해의 경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강해 대상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동영상상을 찍어 유튜브에 공개하였고 모든 강해 노트 역시 교회 사이트에 공개하였습니다.

1. 성경 강해

1. 창세기(34시간 강해)
2. 요한 계시록(42)
3. 성막(33)
4. 조직 신학(72)
5. 로마서(38)
6. 히브리서(30)
7. 마태복음(79)
8. 예레미야(40)
9. 설교와 설교자(마틴 로이드 존스)(17)
10. 성경 바로 보기(54)
11. 베드로전후서(21)
12. 누가복음(83), 13. 요한복음(49)
14. 사도행전(34), 15. 고린도전후서(47)
16. 다니엘서(22)
17. 갈라디아서(16)
18. 야고보서(11)
19. 신구약 성경 맥잡기(250여 개)
20. 데살로니가전후서(18), 21. 빌립보서(9), 22. 욥기(20)

2. 시리즈

1. 구원(14)
2. 결혼과 가정(14)
3. 재림(26), 4. 성경의 주요 예언(25, 현재 진행 중)
5. 존 맥아더의 주님의 교회 계획(30)
6. 뉴에이지(3), 7. 창조와 진화(5)
8. 웨인 그루뎀의 성경과 정치(30), 9. 하나님의 일꾼과 섬김(14)

개역성경에 대한 평가¹³⁾

성경 이슈를 대하고 전하면서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성경은 다 나쁘고 나만 모든 것을 안다고 자만하며 자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을 키웠더니 자식이 다 큰 뒤에 부모 없이 스스로 자랐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개역성경 없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또 저나 킹제임스 성경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개역성경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슈 등을 논할 계기가 생기면, 첫째 개역성경이 좋은 성경이며 큰 공헌을 했음을 인정하고, 둘째 다만 부족한 데가 있으니 고칠 수 있으면 고치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되게 비난하는 자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벧전3:15-16).

무지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을 그런 식으로 대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우리 말과 증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것 역시 그분의 양심의 자유이므로 물러나서 조용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우격다짐으로 전달되거나 수용되지 않습니다.

전할 계기가 있으면 평안한 마음으로 점잖게 신사답게 전하고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제가 개역성경분석을 끝내며 적은 글입니다.
우리 마음이 강박하게 될 때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3) 정동수 목사의 성경/설교/강해/목회 블로그
<http://blog.naver.com/pastor-jung/220892059556>

하나님의 은혜로 약 1세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었다. 복음 선포를 위해 처음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인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했고 그 결과 개역성경이 출간되었다. 개역성경은 문장이 간결하고 우아하고 웅장하여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마치 영어권의 킹제임스 성경 같이 한국의 독보적인 성경으로 자리를 굳혔다.

개역성경은 보통 사람들의 감정과 우리네 특유의 문화를 잘 반영하였으며 간결한 문체와 운율 등으로 읽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심하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으므로 이 성경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소중한 자취는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

최근 들어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그것의 근간이 된 전통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구약)과 전통 그리스어 공인 본문(신약)의 권위와 정확성 등이 국내에도 소개되면서 개역성경의 신학적/사본적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생겼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획일적인 신앙 패턴이 자리를 잡아 성경의 경우 오직 개역성경만 성경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었다. 사실 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성도들이 개역성경을 유일한 성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으면서 기존의 획일적 신앙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속 중심의 양심이 지도하는 대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무리들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개역성경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를 밝혀 다음 세대와 성경 신자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던 차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출간되었으므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성경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서에서는 먼저 개역성경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대한성서공회의 글을 통해 개역성경의 근간이 된 사본들과 역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연구 결과 개역성경 번역자들이 정확성이 떨어지는 중국어 성경과 부패된 ‘비평 그리스어 본문’ 그리고 거기서 번역된 영어 성경들 - 특히 미국표준역(ASV)- 을 번역의 대본으로 채택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런 대본들은 대부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삭제하거나 변개한 것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보존하고 파급시킨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소수 본문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개역성경이 성경의 기본 교리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불행히도 개역성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천사, 마귀, 사람, 짐승, 천국, 지옥, 구원 등의 기독교 핵심 교리에서 유대교/기독교의 기본 개념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역성경이 진정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라면 이런 교리들에서 오류가 없어야 하지만 개역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오류를 보인다.

개역성경 오류들 대부분은 번역의 대본으로 취한 그리스어 본문에 의해 파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역성경 번역자들은 그 당시 시대적 흐름과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아 NIV, NASB 등의 근간이 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부패한 신약 성경 본문을 채택했고 키텔의 부패한 구약 성경 본문을 채택했다. 그러므로 바른 본문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과 이런 현대 역본들을 비교해 볼 때 오류와 부패의 정도가 거의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외국인 선교사들을 도와 개역성경을 번역하는 데 이바지한 한국인 조력자들이 중국이나 인도 등의 이교도 사상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교/힌두교 사상과 토속 샤머니즘에 근거한 용어들을 사용하였으므로 유대교/기독교에서 수용할 수 없는 개념이나 용어가 그 안에서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개역성경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경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영감’(inspiration)이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에 있는 모든 단어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보통 책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책이다. 이렇게 기록을 통해 성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보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이런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들을 바른 사본들과 그것들을 뿌리로 하여 번역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존하셨으며 이 성경은 단 한 번의 변화도 없이 깨끗하게 역사 속에서 그 위용을 떨치며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 이제 한국에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번역되어 바른 구원, 바른 교리, 바른 교회를 배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므로 우리 성도들은 맑은 정신과 바른 지각으로 힘을 모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읽고 널리 보급하여 후대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저자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개역성경이 한국 민족에게 미친 고귀한 영향을 인정하며 이 성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저자와 저자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역성경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알았고 영혼의

안식과 위로를 얻었다.

다만 이 책에서는 번역의 대본인 본문과 번역자들의 사상이 개역성경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역성경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야 하므로 그것의 좋지 않은 면을 부각시켰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부디 양식 있고 선한 독자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달고 선한 말씀들로 은혜 가운데 진리의 빛을 주실 줄 확신한다.¹⁴⁾

----- 인용 끝

14) 개역성경에 대한 이런 확신과 진술은 1992년 조국 땅에 들어와 성경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지난 30년 동안 나와 내 동료들이 한 번도 변함없이 마음속에 굳게 지키고 있는 사실이다.

개역성경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나요?¹⁵⁾

이것은 실로 난센스 질문이며 어느 면에서 매우 천박한 질문입니다.

일단 먼저 답을 합니다. 개역성경이든 어떤 성경이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담겨 있으므로 그런 성경들을 통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이슈의 핵심은 구원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 이슈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저나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목회자들 혹은 교회와 성도들이 개역성경(개정개역)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비난하며 허위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은 물론이고 사람의 법도 무섭지 않은 모양입니다.

특히 과거 저의 설교와 강해 영상 등을 세밀히 시청하고 자신들의 구미에 당기는 부분을 발견하면 앞뒤 문맥을 생략하고 그 부분만 오려 내서 극히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사실과 심히 다르게 왜곡하고는 그렇게 부풀려 편집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런 자료들을 기독교계 인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며 자극하고 선동해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속셈을 우리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의뢰를 받은 관련 기관과 법무팀에서 이들의 수많은 허위 비방 글과 세미나 영상, 협박성 글, 편지, 언론사 기사 허위 및 연재한 사실 그리고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영상 등을 차곡차곡 모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런 위법적인 허무맹랑한 비방/협박을 그치지 않는다면 결국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다음은 출판사 킵바이블 사이트의 믿음 진술문입니다.¹⁶⁾

거기서 성경 항목의 E. 영어 번역본 부분에서 2번 항목인 「킹제임스 성경」의 사용'을 보시기 바랍니다(파란 색으로 표기되어 있음).

----- 인용 시작

2. 「킹제임스 성경」의 사용

우리는 말씀의 선포, 주일 학교, 그리고 기독교 서적이거나 출판물 등 성경을 사용해야 하는 모든 곳에서 반드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비록

15) <개역성경(개정개역)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나요?> 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753
유튜브에서 '개역성경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나요'를 치면 동영상이 나온다.
<https://youtu.be/-i4x8ldEGLw>

16) <성경지킴이, 우리의 믿음> http://keepbible.com/html/01_02.html

여러 가지 현대 번역본이 많이 나와 있고 실로 어떤 구절들은 문제가 없어 그대로 수용할 수 있으나, 성경의 어떤 말씀이나 구절을 철저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대 번역본보다 전통 히브리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공인 본문」에 기반을 둔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아야 한다. 이 말은 결코 원어 성경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며, 원어 성경의 어떤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실제 문제에 있어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옳으며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접해 보지 못했고, 위의 전통적 「다수 본문」이 아닌 천주교의 「소수 본문」에 근거한 「한글개역성경」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글개역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며, 「한글개역성경」이 읽힘성과 간결성 등에서 뛰어나며 특히 성경을 가장 우리말답게 표현했다고 믿는다. 또한 그 안에 있는 본문 중 전통적 「다수 본문」과 일치하는 부분은 분명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현시점에서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한글개역성경」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병행하여 읽고, 영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한글개역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한글개역성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등 과격하고 옳지 못한 말을 하여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님을 믿는다.

----- 인용 끝

이처럼 명백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허위 비방을 하면 안 됩니다.¹⁷⁾

외국의 경우도 이런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열렬히 킹제임스 성경을 외치는 분들 중의 한 분은 사무엘 김 박사입니다. 그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답하기 위하여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의 35번 질문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을 사용해서도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라고 묻고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매우 분명하게 답합니다.¹⁸⁾

17) 개역성경에 대한 이 믿음 진술문은 성경 출간을 시작한 2000년 8월 이후로 지난 21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13여 년 전에 출판사 웹사이트를 연 이후로 줄곧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

18) <다른 성경을 사용해서도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http://keepbible.com/>

[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94](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94)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무료 PDF, <http://keepbible.com/>

[bbs/board.html?board_table=06_02&write_id=151](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6_02&write_id=151)

말씀보존학회와는 어떤 관계입니까?¹⁹⁾

현재 한국에는 저희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과 말씀보존학회에서 출간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말씀보존학회는 과거에 장로교 합동 측과 통합 측에 의해 이단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에서 발행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과 말씀보존학회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안에’와 말씀보존학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두 성경의 차이점에 대해 알기를 원하면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 공개질의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²⁰⁾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안에’와 말씀보존학회가 아무 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저는 미국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1986년경에 처음으로 미국의 Chick 출판사(www.chick.com)를 통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뒤 1992년 2월에 귀국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말씀보존학회라는 단체가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단체의 설립자인 이송오씨가 매우 과격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번은 저와 영어성경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원서 몇 권을 구입하러 말씀보존학회에 갔다가 판매하는 직원에게 저와 함께 영어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갑자기 이송오씨가 나오더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책상 위로 내던지면서 너희가 영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으면 이 구절을 한번 해석해 보라고 하며 화를 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 다 있구나!” 생각하고 그때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러크맨 박사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킹제임스 성경 문제를 의논하였고 또 그분은 자기의 모든 책을 번역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송오씨가 러크맨 박사와 접촉하면서 자기가 ‘철저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하기에 러크맨 박사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미국에 학회 참석차 갔다가 하루 시간을 내서 펜실콜라를 방문해서 러크맨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때에 저는 이송오씨가 만든 ‘새 성경’을 보여 주고 거기 있는 한국 여자 분에게

19) 킵바이블 사이트 우측 상단 상서 검색에서 <말씀보존학회와는 어떤 관계입니까?>를 치면 기사가 나온다. 참고로 이 글은 2009년 5월 8일에 썼다.

20) 킵바이블 사이트에서 ‘공개 질의’라고 치면 여러 개의 공개 질의서가 나온다.

「새 성경」 표지 안에 적혀 있는 대로 ‘그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고 「공인 본문」 — 말씀보존학회는 이를 「그리스어 표준 원문」이라 부름 — 에서 번역되었음을 보여 주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 사실만을 지적했으며 다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눌 만한 시간도 거의 없었고 그 날 저녁에 그의 교회로 가서 펜사콜라 성경학교(Pensacola Bible Institute, PBI) 강의를 두 시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렉크맨 박사의 성경학교 즉 PBI는 말씀보존학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단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저녁때 모여 성경을 배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에서 밤에 운영하는 무인가 신학교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인가 받은 신학교를 다녀야 훌륭한 목사나 전도자가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목회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에 저는 PBI의 많은 학생들이 — 제가 갔을 때는 150명 정도였음 — 어려운 가운데 낮에는 일하며 밤에는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사랑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으며 그로 인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치 PBI가 엄청난 학교인 것처럼 말씀보존학회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 이후에 하루는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다짜고짜 쌍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 너 혼 좀 나 볼래, 네 학교 이사장이 조○○이지. 한번 가서 너를 쫓아내라고 이야기할까?” 등등 이송오씨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가 출간하는 월간지에 제 이름을 올려 마치 제가 엄청난 이단인 것 같은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뒤에도 이송오씨는 너무나 많은 형제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말을 구사하여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에게는 대안이 없었으므로 마음속으로 “대안이 나올 때까지 굳게 참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8월 저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출간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잡지 등을 통해 저나 다른 사람들 — 대개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말씀보존학회에 남아 있을 수 없어 그곳을 떠난 용기 있고 훌륭한 형제들 — 을 비판하거나 욕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비판하면 오히려 역작용이 나서 자기 잡지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염려한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대안이 나온 이후에 더 이상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글이나 상소리를 접하지 않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것이 말씀보존학회와 저와의 모든 관계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아마 여섯 차례가 넘는 것으로 기억됨). 그들의 주장대로 그 성경이 최종 권위라면 이미 지난 10년 사이에 최종 권위가 여섯 차례나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최종’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출간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최종 권위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희극 아닙니까? 그런 억지 주장을 편 뒤 그 최종 권위를 막 뜯어고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최종 권위는 언제쯤이나 최종이 될는지 참으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끝으로 그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대본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초로 번역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우리에게 주어진 바른 성경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독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추후에 바른 성경에 대한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진실을 알리는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글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종류로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가?²¹⁾

킹제임스 성경은 거의 400년이라는 기간에 개신교(침례교 포함)의 표준 성경으로 의심 없이 수용되어 왔다. 1611년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새로운 역본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중 단 한 개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개신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그 후 20세기 중반부터 새 역본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1952년에 신약과 구약이 다 출판된 RSV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최초의 만만치 않은 경쟁 대상이었다. 그 이후로 NASB, 리빙 바이블, NIV, NKJV, 그리고 점차적으로 수십 개의 역본들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쏟아져 나왔다.

20세기 중반에 나온 역본들의 대부분은 21세기에 들어 대중성을 잃었고, 판매 수량으로 봤을 때 오늘날 가장 인기가 많은 역본은 2011년에 업데이트 된 NIV와 ESV, 그리고 NLT이다. 새로운 역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현재와는 상관이 없는 지나간 시대의 유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역본들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은 세월의 시험을 견디어 내며 그럴만한 이유와 함께 건실한 독자층을 꾸준히 형성해 왔다. 이 기사는 킹제임스 성경의 뛰어난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A. 교리

1. 입증할 수 있는 오류가 없는 성경

James R. White의 <The King James Only Controversy: Can You Trust the Modern Translations?>나, D. A. Carson의 <The King James Version Debate: A Plea for Realism>과 같은 책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문법 및 원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책들의 목표는 ‘킹제임스 유일주의’ 즉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킹제임스 성경만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들의 저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및 원문 선택을 평가하는 면에 있어서 중립적이지 않다. James R. White는 NASB의 자문 위원이었으며 D. A. Carson은 NLT의 번역자였다. 이들이 제안했듯이 번역 및 원문 선택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구절은 합리적인 대안 이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웹사이트(<http://www.kjvtoday.com>)는 킹제임스 성경에 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150개의 오류를 반박하며 킹제임스 성경이 명백히 무오함을 보여 준다.

21) 원출처: <http://www.kjvtoday.com/home/Features-of-the-KJV>
<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가?>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677

2. 더 완전하고 교리적으로 우수한 원문

NKJV와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성경의 신약은 다양한 비잔틴 계열의 신약 사본을 따르는 공인 본문에 기반을 둔다. 반면에 NASB, NIV, ESV, HCSB와 같은 인기 있는 역본들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을 따르는 ‘네슬레-알란트’ 판(즉 ‘NA 27 과 UBS 4 본문’)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기반으로 하는 역본들은 많은 수의 중요한 단어들과 구절들을 생략하거나 그 말씀들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다. 이러한 단어들과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마가복음의 결말’(마가복음 16장 9-20절), ‘간음한 여인에 관한 말씀’(요한복음 8장 1-11절), ‘주기도문의 결론’(마태복음 6장 13절),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온 천사에 관한 말씀’(요한복음 5장 4절), ‘에티오피아 내시의 믿음 고백’(사도행전 8장 37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7절, 마태복음 17장 21절, 마태복음 18장 11절, 마태복음 21장 44절, 마태복음 23장 14절, 마가복음 7장 16절, 마가복음 9장 44절과 46절, 마가복음 11장 26절, 마가복음 15장 28절, 누가복음 17장 36절, 누가복음 22장 43절,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3장 17절, 사도행전 15장 34절, 사도행전 24장 7절, 사도행전 28장 29절, 로마서 16장 24절, 요한일서 5장 7절 등.

알렉산드리아 본문 지지자들도 킹제임스 성경의 모체인 공인 본문이 교리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는 공인 본문을 옹호하는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다.

B. 정확성

1. 직역

킹제임스 성경은 본질적으로 직역된 성경이다. NIV와 NLT 같은 많은 새 역본들은 미국성서공회의 니다(Eugene Nida)에 의해 대중화된 ‘동적 일치’(Dynamic equivalence)라 불리는 번역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동적 일치의 번역 원칙을 따를 경우 번역자들은 번역이 아니라 해석을 하게 된다(이들은 성경의 단어 하나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뜻만 통하면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동적 일치 원칙을 적용한 역본을 읽는 독자들은 결국 실제 성경 본문이 아니라 학자의 해석을 읽게 된다. NKJV, NASB, 그리고 ESV 또한 본질적으로 직역된 성경들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ESV 번역 위원회의 회원인 라이큰(Leland Ryken)이 쓴 훌륭한 서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온라인 소책자는 다음에 있다.²²⁾

2. 사람의 단수와 복수 구별

킹제임스 성경은 2인칭 단수와 2인칭 복수를 구별하기 위해 ‘thou’, ‘ye’, 그리고

22) <http://www.gnpcb.org/assets/products/excerpts/1581347308.1.pdf>

동사의 어미 변화를 사용한다.²³⁾

‘Thou, thee, thy’는 2인칭의 단수를 나타내며 ‘ye, you, your’는 복수를 나타낸다. 스페인어 (“tú” and “vosotros”), 독일어 (“du” and “ihr”), 중국어 (“你” and “你們”)와 같은 현대어 역시 2인칭에 대해 여전히 이러한 구분법을 유지한다.

2인칭에 대한 이런 구별이 없이 모두 ‘you, you, your’를 사용할 경우 독자들은 출애굽기 4장 15절, 출애굽기 29장 42절, 사무엘기하 7장 23절, 마태복음 26장 64절, 누가복음 22 장 31-32절, 요한복음 3장 7절, 고린도전서 8장 9-12절, 디모데후서 4장 22절, 디도서 3장 15절, 빌레몬서 21-25절 같은 구절에서 개인이 언급되고 있는지 혹은 여러 명의 복수 그룹이 언급되고 있는지 구분할 수가 없다.

3. 이탤릭체의 사용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원어에는 없지만 본문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추가된 단어들을 이탤릭체로 표시했다. NIV, ESV, TNIV와 같은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 추가된 단어들을 이탤릭체로 표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시편 16편 2절이 “Thou art my Lord: my goodness *extendeth* not to thee” (*extendeth*가 이탤릭체로 쓰여 있음. “주께서는 나의 주시니이다. 나의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오나”)라고 번역되어 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구절의 뒷부분이 ‘my goodness’, ‘not’, 그리고 ‘to thee’ (나의 선함, 주께, 못하오나)라는 세 단어로만 쓰여 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extendeth*’ (미치지)를 첨가하고 그것을 이탤릭체로 표기함으로써 그 단어가 첨가되었음을 표시하였다.

〈옥스퍼드 주석 NRSV〉의 주석은 시편 16편 2절의 히브리어가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여러 성경 역본들은 같은 방법으로 이 구절을 번역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 번역자들이 추가한 단어들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NASB와 NKJV도 추가 단어를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를 사용한 성경이다.

4.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은 성경

인용부호 (“ ”)는 구술된 말씀을 표기한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어떠한 구절에도 인용부호를 쓰지 않는다. 인용부호를 쓰지 않는 것이 왜 좋을까? 킹제임스 성경이 인용부호를 쓰지 않는 이유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문도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서술자가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등장인물이 이야기를 한 것인지 번역자들이 직접 추측해야만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 인용부호를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때때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독자들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도 있다.

23) <http://www.kjvtoday.com/home/language-guide>

C. 스타일

1. 중복문(重複文)의 사용 (중속절을 하나 이상 가진 중문)

킹제임스 성경은 그리스어에 흔히 나타나는 복합 문장을 거의 나누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리스어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에서 로마서 1장 1-7절과 히브리서 1장 1-4절은 각각 한 문장으로 쓰여 있다. 반면에 현대 역본들 중에서 직역을 했다고 하는 NASB와 ESV조차 이런 문장을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놓았다. 복합 문장은 아이디어들 간의 관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저자의 사고 과정을 더 분명하게 나타낸다.

2. 히브리어 특유의 표현(Hebraisms)

킹제임스 성경은 사전적이고 통어법에 따른 히브리어 어법을 그대로 지킨다.²⁴⁾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 독자들이 성경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경의 히브리적 느낌을 희석시킨다. 킹제임스 성경에 표현된 언어의 특수성은 히브리어를 충실히 모방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히브리어의 선행 직접 목적격을 사용한 표현들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창세기 1장 4절)과 히브리어의 이중전치사 (“Abram went up out of Egypt” 창세기 13장 1절)는 본질적으로 직역의 취지로 번역된 NASB나 ESV와 같은 역본들에서조차 완전히 삭제되었다.

〈Learn New Testament Greek〉의 3판 저자이자, 널리 호평을 받는 그리스어 교사인 John Dobson은 자신의 학생들에게 히브리어가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 미친 영향을 주목하라고 권한다. 그는 분명하게 동적 번역 형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킹제임스 성경이 현대 역본들의 일반적인 번역보다 더 밀접하게 히브리어 스타일을 따른다”는 것을 인정한다(p. 305).

3. 그리스어 구조와 스타일과의 일치

킹제임스 성경은 신약에서 다른 역본들보다 그리스어의 어순을 더 밀접하게 따른다. 마태복음 17장 19절의 “Then came the disciples to Jesus.”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동사가 주어보다 앞서 나오는 이 구절의 문법은 영어를 사용하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어순은 그리스어의 어순(“τοτε προσελθοντες οι μαθηται τω ιησου”)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리스어의 정확한 스타일과 구조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어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4) William Rosenau의 〈Hebraisms in the Authorized Version of the Bible〉 참조

킹제임스 성경의 또 다른 특징은 역사적 현재 시제의 사용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종종 마태복음 3장 13절처럼 “Then cometh Jesus from Galilee to Jordan unto John”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르단에 있는 요한에게 오사) 과거의 일을 묘사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이 현재형으로 쓰인 그리스어 본문을 충실하게 번역했기 때문이다. 그리스어 기록자들은 과거의 일에 중요성을 부여할 때 역사적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 역사적 현재 시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더 선명하게 들리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 역본들은 역사적 현재 시제를 단순 과거형으로 번역하려는 경향이 있다.²⁵⁾

4. 시적 표현

성경은 매우 시적인 책이다. 율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는 성경에 나오는 명확한 시집들이다. 하지만, 심지어 구약의 대언서들과 요한계시록도 형상화, 유사성, 과장법 및 직유법 등의 시적 기능들로 가득하다. <The Five Books of Moses>의 저자인 Everett Fox는 모세오경의 책들도 시적 기능이 풍부하다고 말하며, 모세오경이 서양 독자들에게는 종종 간과되는 ‘말로 표현되는’ 시적 내용들로 가득하다고 주장한다. 사실, 유대인들은 몇 세기에 걸쳐 ‘칸틸레이션 표시’(cantillation marks) 즉 시를 노래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시들을 사용하여 토라 즉 모세오경의 율법을 노래했다. 신약에서는 우화, 유사성, 팔복의 비유, 바울의 은유, 베드로의 종말에 대한 발언, 요한의 어둠과 빛을 나란히 두어 비교하는 병치(juxtaposition) 같은 시적 기능들이 발견된다. 킹제임스 성경과 같이 진정으로 시적 번역을 추구한 역본들이야말로 성경의 시적 표현을 정당하게 다루는 역본들이다.

D. 배경

1.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 왕에 의해 승인되다

킹제임스 성경을 공인한 제임스 왕은 변명의 여지없이 성경의 무오성, 절대적인 확실성, 그리고 충분성의 교리 (오직 성경)를 옹호했던 성경 신자 크리스천이었다. 성경의 무오성에 관하여 그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는 정화되고 순결한 귀로 대하라.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호한 부분들은 오직 너의 무능함을 힐책하며 겸손하게 호모하라.” (Book I:13, Basilicon Doron) 라고 말했다.

성경의 절대적 확실성에 관하여는 “성경 말씀 전체는 명령과 금지, 이 두 가지만을 담고 있다. 명령은 지키고 그에 반대되는 것들은 삼가라. 명령과 금지 두 가지 모두에 순종하라.” (Book I:7, Basilicon Doron)라고 하였다.

또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가 성경을 가장 완벽하게 해석해 준다. 그러므로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것들을 구하기 위해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내려고

25)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포함한 우리말 성경들 역시 역사적 현재 시제를 원어처럼 상세히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말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것이다.

하지 말라. 네가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릇된 추정으로 이어진다. 이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고 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은 친히 성경에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Book I:13-14, Basilicon Doron).

크리스천 왕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하게 된 것은 윌리엄 틴데일이 1536년 공개 처형을 당하면서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그의 최후 기도 에 대한 응답이었다.²⁶⁾

2. 근대주의의 편견에서 벗어나다

킹제임스 성경은 자유주의 신학, 진화론, 정치적 정당성, 그리고 종교통합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신학적/사회적 견해를 만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역본들이 출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NIV는 성경이 성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내기 원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출판되었다. 그 결과는 시편 1장 3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등에서 문제가 되는 부정확한 번역으로 나타났다.²⁷⁾

물론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도 그 시대의 남성들이었고, 그들의 문화 역시 ‘중립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제임스 1세 시대의 영국 기독교 군주 문화는 신을 부정하는 현대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성경의 이상적인 민족인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시33:12)에 더 가까웠다. 믿음과 실행에 관한 모든 면에서 성경의 무오성과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번역자들의 헌신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제임스 왕 자신도 “이 지식으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서술했다 (Book I:6, Basilicon Doron).

3.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법률에 영향 받지 않은 킹제임스 성경

현대 역본 출판사들은 개정 작품 (예: 새 역본)을 출판할 때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 법률상 상당한 개정을 해야 한다.

저작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2차적 저작물은 ‘새로운 저작물’로 여겨지기 위해 원본과 충분히 달라야 하거나, 상당한 양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기존에 존재하는 작품에 사소한 변경을 하거나 소량의 내용만 추가하는 것은 새 버전으로서 저작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Copyright Registration for Derivative Works, Circular 14).

이 법은 각각의 새로운 버전이 이전 버전과 ‘충분히 다른 면’을 갖추고 있기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는 현대 역본들을 읽을 때 독자들은 자신이

26) David Daniell의 <The Bible in English: Its History and Influence. New Haven>: Yale UP, 2003 at 156.

27) Vern S. Poythress 와 Wayne A. Grudem의 <The TNIV and the Gender Neutral Bible Controversy>

읽고 있는 단어들이 가장 정확한 단어들이인지, 아니면 저작권 취득을 위한 역본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대체로 사용된 덜 정확한 내용을 읽고 있는 것인지 추측해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 법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독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을 때에는 번역자들 스스로가 그들이 선택한 단어들이 가장 정확한 단어들이임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신해도 된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위해서 15가지의 규칙이 주어졌는데, 그것들 중 일부는 개선할 필요가 없는 기존 번역들을 번역자들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분명하게 허용했다. 첫 번째 규칙은 번역자들이 비숍 성경(Bishop Bible)을 따르도록 권고하되 원어 텍스트가 비숍 성경과 다른 경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열네 번째 규칙은 다른 좋은 역본이 원어와 더 잘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지면 그 번역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망가진 게 아니라면 고치지 말라.”와 같은 태도는 변화를 위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오늘날의 2차적 저작물 관련 법률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4.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에 능통했던 번역자들

킹제임스 성경은 틴데일과 위클리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전의 영어 성경에 나타난 학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믿음과 기록된 말씀에 있어서 경건한 경쟁자였다. 47명의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히브리어 및/또는 그리스어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동족 언어인 아람어, 갈대아어, 시리아어, 그리고 아랍어에도 능통했다.²⁸⁾

엘리자베스 1세 시대와 제임스 1세 시대의 학자들은 젊을 때에 문법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 학교들은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그리고 영어 공부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스어에 능숙한 많은 현대학자들이 라틴어에는 능숙하지 못하다. 사실 라틴어는 개신교 학교에서 성직자들(신부나 목사 등)이 주로 사용하는 교회의 언어 - 즉 일반 사람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언어 - 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원문과 번역의 변형을 해명해 줄 많은 자원들은 천 년이 넘는 세월을 걸쳐 제작된 라틴어 주석과 저작물에서 발견된다.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번역자들은 라틴어에 능숙했다.

5. 영어에 능통했던 번역자들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적절한 번역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한다. 번역은 원문의 언어와 번역 대상어 모두에 대한 전문 지식을 수반한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대부분의 현대 번역자들보다 영어를 더 잘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킹제임스 성경의 비평가인 월러스(Daniel Wallace)는 다음과 같은 솔직한 발언을 했다.

28) Alexander McClure의 <The Translators Revived>

킹제임스 성경이 많은 오류를 갖고 있는 만큼 그 성경의 번역은 종종 많은 현대 역본들보다 그리스어 완료 시제를 더 우수하게 번역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의 황금 시대였던 셰익스피어 시대에 출간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 (RSV, NASB)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라고 번역한 반면, 킹제임스 성경은 “For by grace are ye saved”라고 번역했다. 킹제임스 성경의 완곡어법 완료 형태 - ‘ye are saved’가 아니라 도치를 사용하여 ‘are ye save’로 한 것, 또 ‘구원받아 오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 - 는 한번 얻은 구원을 강하게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현대 번역자들만큼 그리스어를 잘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영어만큼은 그들이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영어 완료 시제(‘you have been saved’가 아니라 ‘ye are saved’)로 번역하는 경우 구원받은 이후로 생긴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²⁹⁾

E. 유산

1. 초기 근대 영어

인칭에 따른 동사의 어미 변화 (이것은 사실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를 제외하면 킹제임스 성경에 쓰인 모든 단어들은 현대 출판물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³⁰⁾ 게다가, NIV조차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구절들을 비교해 보자. 예스라 9장 5절에서 KJV가 ‘heaviness’(근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반면, NIV는 ‘abasement’(근심)을 사용했다. 이사야 24장 23절에서 NIV는 ‘abashed’(수치를 당하고)를, KJV는 ‘confounded’(부끄러워 하리라)를 사용하고, 에스겔 40장 18절에서 NIV는 ‘abutted’(좌우편인테)를, KJV는 ‘over against’(맞은편으로)를 사용한다.

NIV는 역대기하 15장 14절에서 ‘acclamation’(소리)을, KJV는 ‘voice’(소리)를 사용한다. NIV는 이사야 13장 8절에서 ‘aghast’(무서워하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KJV는 ‘amazed’(놀라며)를 사용한다.

Laurence M. Vance는 NIV가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220개의 예시들을 제공한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단어는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사용된 NIV의 ‘squall’(광풍)과 KJV의 ‘storm’(폭풍)이다. 인칭에 따른 동사의 어미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NIV보다 읽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무엇이 더 어려운지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꼼꼼하게 킹제임스 성경을

29) Daniel Wallace의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p. 575

30) Laurence M. Vance의 <Archaic Words and the Authorized Version>

읽어 봐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의 링크들을 확인해 보길 권한다.³¹⁾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은 그저 오래된 역본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래된 요소들보다 언어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다음 링크는 초보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문법과 어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³²⁾

2. 정제되고 단련된 말씀

킹제임스 성경은 400년 동안 신중하게 교정되어 왔다. 현재의 버전은 인쇄 상의 모든 오류를 수정한 신뢰할 만한 버전이다.

3. 성경의 인기도

인기도는 무언가의 가치를 평가하는 성경적인 척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이 여전히 인기 있는 역본들 중 하나임에 주목해야 한다. 2011년 2월 CBA 판매량에 의하면,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NIV를 제외하고는, NKJV, ESV, NASB, 그리고 NLT보다 킹제임스 성경이 더 인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부가 주장하듯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크리스천들은 구닥다리의 '소수'가 아니다. 다음 링크에서 월간 성경 판매순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순위 차트는 매달 변경된다).³³⁾

----- 영어 성경 명칭 요약

-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 Holman Christian Standard Bible (HCSB)
- King James Version (KJV)
-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 New King James Version (NKJV)
- New Living Translation (NLT)
-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RSV)
- Today's New International Version (TNIV)

31) Understanding the Language of the King James Version
<http://www.kjvtoday.com/home/language-of-the-kjv>

32) A Beginner's Guide to the Language of the King James Version
<http://www.kjvtoday.com/home/language-guide>

33) <http://cbanews.org/category/bestsellers/>

킹제임스 온리(유일주의)의 정의³⁴⁾

요즘 미국 등에서는 ‘킹제임스 성경만 성경이다’라는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리즘’(King James Onlyism)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이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숭배하려는 경향을 지닌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대적들이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레 ‘킹제임스 온리’라는 라벨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로는 ‘킹제임스 유일주의’ 정도로 부를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출간/배포하고 킹제임스 성경만을 읽고 그것만 사용하여 강해/설교하므로 자연히 ‘킹제임스 온리’라는 라벨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온리’에 대한 바른 정의 없이 ‘킹제임스 온리’라는 라벨이 붙으면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므로 오늘은 저와 또 함께 믿음의 길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견지하는 ‘킹제임스 온리’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이런 정의는 사실 오래전에 네팸의 선교사로 있는 데이비드 클라우드 형제님이 내린 적이 있는데 저 역시 그 형제님과 비슷하게 제가 믿는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³⁵⁾

저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킹제임스 온리’가 정의된다면 그러한 라벨이 저에게 붙는 것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좋은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

1.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입으로 불러 내신(영감 과정) 완전한 말씀들(단어들)을 히브리어/그리스어로 주셨고 모든 시대를 통해 섭리로 이 말씀들(단어들)을 보존해 주셨다.
2.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존하신 단어들(원어들)을 한 점의 오류 없이 수용 언어인 영어를 통해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담아 주셨다.
3. 그러므로 모든 원어의 뜻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번역된 것만이 참되고 바르다. 이 말은 원어 단어마다 여러 뜻이 있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반영된 뜻만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른 뜻이라는 의미이다.
4.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현시대의 본문 비평은 마귀의 이단 교리이다. 현대 본문 비평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지 않았고 성경 본문 비평학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발견되어 성경에 추가, 삭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4) <킹제임스 온리(유일주의)의 정의>, 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6&write_id=516

35) <http://www.wayoflife.org/database/kjo.html>

5. 하나님의 참된 본문은 천주교 도서관, 수도원, 동굴 등에 비밀리에 숨겨지지 않았고 시대를 거치며 신실한 성도들의 손으로 필사되어 보편적으로 온 세상에 전달되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의미로 ‘킹제임스 온리’를 주장한다면 저는 그러한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나쁜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

1.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을 받았다. ---- 아니다. 오직 영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원어에만 해당된다.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들을 정확하게 번역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1611년의 영어 번역본에 다시 한 번 영감, 즉 숨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다.
2.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것의 모체가 된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 본문보다 우수하다. — 이 말은 그 자체가 난센스이다. 이것은 1611년 전에는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이 없었고,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어/그리스어 본문의 향상된 계시이다. ---- 이 말은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로 원어를 고치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역시 난센스이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³⁶⁾
4.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있으면 원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번역 등에 필요한 원어 도구들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 ---- 이런 주장은 성경 번역/해석 등에 영한사전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이며 결국 자기만 옳다는 자가당착으로 귀결된다.
5.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보존되었다. ---- 아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들(단어들)이 우리말로도 보존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읽어야 하고 영어를 할 수 있는 해석자의 지도를 받아야만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극단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
6. 오직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개역성경 등의 현대 역본은 사탄의 성경이다. ---- 우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며(롬1:16) 개역/개정/NIV 등의 현대 역본에도 복음이 보존되어 있다고 믿는다.

36) <영어로 원어를 고칠 수 있다고요?> 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6&write_id=515

7.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로 정죄받거나 저주받아도 할 말이 없다. --- 우리는 개역/개정/NIV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믿는다. 다만 그들은 완전한 말씀 전달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전통에 매인 채 바른 말씀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설득하여 성경 말씀의 완전성과 보존의 실재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대상이다.³⁷⁾

37) 나는 국내 대형 교단들에 의해 이단 판정을 받은 말씀보존학회와는 일면식도 없다. 특별히 내가 위에서 ‘나쁜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라고 규정한 것들에 대해 지난 30년 동안 나는 단 한 차례도 동의한 적이 없다. 실제로 미국에서 킹제임스 온리를 주장하는 대다수 학자들과 목사들은 ‘나쁜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를 적극적으로 배격하고 반대한다. 그런 주장은 비상식적이며 이치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을 전해 주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구원과 영혼의 안식을 가져다준 개역성경을 사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도를 벗어난 어리석은 난센스이다.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변호³⁸⁾

1.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정의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King James Onlyism)는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과 권위를 혈똥는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에게 붙여 준 이름이다.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반대하는 데 가장 앞장서는 화이트 박사(Dr. James White)는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의 믿음이나 주장이 다음과 같은 형태라고 말한다.

1.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로 좋은 역본이다: 미국의 경우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2. 킹제임스 성경의 대본이 된 본문이 현대 역본들의 본문보다 좋으므로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이다: '다수 본문'(Majority text)이라는 하이브리드 본문을 주장하는 델러스 대학의 핫지스(Zane Hodges) 등이 여기에 속한다. 참고로 '다수 본문'은 사람들을 속이기에 안성맞춤인 용어로서 그리스어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TR)과 다르다(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것임).
3.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공인 본문(TR)이 유일하게 좋은 본문이므로 여기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이다: 딘 버건 소사이어티와 웨이트 박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³⁹⁾
4. 킹제임스 성경은 새롭게 영감을 받은 성경이며, 심지어 원본을 뛰어넘는 새로운 계시이므로 최고이다: 이것은 러크맨 박사(Dr. Peter Ruckman) 등의 성경관이다.

굳이 분류한다면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정확하게 위의 몇 가지 분류 중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내가 믿는 유일주의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나는 위에서 이미 <킹제임스 온리(유일주의)의 정의>라는 글을 소개하였고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다음과 같이 믿는다.

1.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입에서 나온 히브리어(일부 아람어 포함)와 그리스어의 모든 단어(every word)를 완전하게 기록해 주셨고(총체적 축자 영감),
2. 역시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원본의 그 모든 단어를 완전하게 보존해 주셨으며,
3. 14세기 이후 만국의 공통어가 된 영어로 형식적 일치의 단어 대 단어의 축자 번역(word for word)으로 기록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원본의 그 모든 단어를 모든 사람이 그대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번역해 주셨음을 믿는다.

38)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변호>,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761

39) https://en.wikipedia.org/wiki/Dean_Burgon_Society

그 결과 17세기 이후 영미권의 모든 신학과 교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의해 세워졌으며, 선교 활동이 가장 활발하던 18-19세기 및 20세기 초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오대양 육대주에 복음이 전달되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내 손에 들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전혀 없다고 믿는다.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2011년에 400주년 기념판이 나왔고 앞으로 표준어 변화 등에 따라 우리말 바꾸기 수준의 교정은 더 필요함)은 우리말의 태두리 안에서 역시 축자 번역의 원칙에 따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신실하게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다(참고로 흠정(欽定)이라는 말은 왕이 손수 제정했다는 뜻).

이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보충 설명을 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⁴⁰⁾

위에서 보았듯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따라서 어떤 정의를 따르느냐에 따라 논의의 핵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심히 크므로 - 실제로 그러함 - 나는 이 글에서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King James Onlyism)를 문자 그대로의 의미, 즉 개인이나 단체가 무어라고 말하거나 믿든지 상관없이 실제로 사역과 예배와 수업 그리고 출판 등의 모든 신앙생활 영역에서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행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유일주의’를 변호하려 한다.

2. 킹제임스 성경은 독보적인 성경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나온 이래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독보적이며 탁월한 성경이다.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이라도 감히 이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며, 이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왜곡하려는 사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위키 백과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8세기 초반에 이르러서 흠정역 성경 즉 ‘Authorized Version’은 영국 성공회와 영어를 사용하는 프로테스탄트(개신) 교회들에서 그 어떤 도전도 허용하지 않는 [독보적] 성경이 되었다. 그 결과 18세기를 지나면서 흠정역 성경은 영어를 사용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라틴 벌게이트를 대체하는 표준 성경이 되었다. 19세기 초에 연판 인쇄 기술이 나오면서 흠정역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성경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외경은 포함되지 않은 채 인쇄되었다.⁴¹⁾

1611년 이전에는 여러 역본들이 나왔으나 킹제임스 성경의 발간 이후로는 다른 역본이 나오지 않았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성경’(Authorized Version)으로 인식되면서 성도들이 더는 다른 성경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

40)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란 무엇인가요?>

<http://woogy68.blog.me/220663991230>

41) [https://en.wikipedia.org/wiki/King_James_Version\(12-14째_출_참조\)](https://en.wikipedia.org/wiki/King_James_Version(12-14째_출_참조))

다.

그 결과 1885년에 영국에서 영국 개역성경(Revised Version, RV)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1901년에 미국에서 영국 개역성경의 미국 판인 미국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ASV)이 나오기까지 300년 가까이 온 세상의 거의 모든 성도들은 킹제임스 성경밖에는 사용하지 않았기에 일종의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였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모든 교리가 세워졌고 모든 신학교가 세워졌으며 오대양 육대주에 복음이 퍼졌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들, 즉 스필전, 무디,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등이 이 시기에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을 썼다. 반면에 RV와 ASV는 출간되자마자 성도들의 외면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책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 두 성경(RV와 ASV)의 출현 이후에도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는 1970년대에 NIV, NASB 등이 나오기까지 근 360년 동안 온 세상 모든 성도들(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모든 교파 포함)의 표준 성경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가 잘 아는 뛰어난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등이 모두 한결같이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1611년 이후로 360년 동안 영미권의 모든 교회와 신학교는 (과거에 우리 민족이 개역성경 한 가지만 쓰면서, 말하자면 ‘개역성경 유일주의’였던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고수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지난 400년 동안 기독교계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차지한 독보적 위치를 명쾌하게 입증한다.⁴²⁾

3. 미국 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의 원천과 원동력: 밥 존스 대학교

20세기 초반에 현대주의가 교회 안에 파고들기 시작하자 미국의 유명한 감리교도였던 밥 존스(Bob Jones Sr., 1883-1968)는 이런 악한 풍조에 맞서기 위해 약 100년 전인 1925년경에 대학을 세우고자 마음먹었고 1927년에 88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밥 존스 대학을 설립하였다. 존스는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은 감리교인이었다. 그의 학교는 점점 더 성장하여 1947년부터 현재의 위치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에 터를 잡았다. 존스와 그가 세운 밥 존스 대학(Bob Jones University)⁴³⁾은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장 철저한 근본주의를 외쳤고 수많은 걸출한 목사들을 배출하였다(극동방송 회장을 지낸 김장환 목사도 이 시기에 졸업함).

그런데 이 대학의 철저한 근본주의 학풍의 핵심은 성경의 무오성이며 이를 위해 존스는 RV, ASV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만을 유일하게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근본주의란 무엇인가?

미국에 성경적인 침례교회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1850년도 이후에 몇 가지 특이한

42)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645
<400년이란 세월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우뚝 서 있는 킹제임스 성경>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760

43) https://en.wikipedia.org/wiki/Bob_Jones,_Sr.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으므로 새 성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진화론,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이단들이 속속 등장하였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니 성경 신자들은 당혹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목사들을 배출하기 위해 만든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브라운 대학 등이 현대주의 사조에 몰들어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영적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세월이 흘러 현시대에는 가장 큰 자유주의 신학교가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이런 현대주의 사조에 대항하기 위해 1878-1897년까지 나이아가라 성경 사경회가 열렸다. 그리고 1910년에 'Fundamentals'라고 하는 책들이 R. A 토레이 등에 의해 편찬되었는데 여기에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다섯 가지 믿음을 옹호하기 위한 90개의 글이 실렸다. 캘리포니아 주의 사업가인 스튜어트 형제 두 사람이 무명으로 자금을 대서 글을 모으고 책들을 인쇄해서 미국의 목사, 선교사, 신학교 교수, 주일학교 교장 등에게 25만 세트(납권으로 300만 권)를 무료로 보냈다. 이 책들의 이름이 'Fundamentals'이므로 이 책의 믿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Fundamentalist(근본주의자)가 되었다.

이러한 펀더멘털 운동이 시작될 때 그들이 주장한 것은 기독교의 다섯 가지 펀더멘털이다.⁴⁴⁾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경의 축자 영감(무오류성) 2.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과 신성(하나님 되심) 3.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4. 그리스도의 부활 5. 그리스도의 재림 |
|---|

이처럼 근본주의의 핵심은 성경의 축자 영감(무오류성)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고하게 믿는 것이었다. 현대주의 사조가 밀물처럼 미국의 교회들을 강타하는 상황 속에서 존스는 근본주의를 고수하기로 작정하고 학교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나갔다. 아마도 존스는 무디 성경학교, 바이올라, 웨스트민스터 등 근본적인 학교들(구체적으로 신학부)이 현대 역본에 몰들기 시작하며 근본주의를 떠나 신복음주의(New Evangelism)로 돌아서는 것을 보고 더욱 철저하게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⁴⁵⁾

비록 존스가 자기 대학을 초교파 학교로 세웠지만 그 학교에는 대부분 독립침례교회(혹은 근본주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니게 되었고, 이들은 학교와 교회와 가정에서 일관되게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하였다.

44) https://en.wikipedia.org/wiki/The_Fundamentals

45) <성경 전쟁 - 성경의 무오성>, 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3_05&write_id=21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죽은 이후 그의 아들(Bob Jones Jr.)과 손자(Bob Jones III)가 학교를 이어받으면서, 밥 존스 대학 신학부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의 모체가 된 공인 본문(TR)을 버리고 현대 역본들의 모체가 된 천주교회의 소수 본문(네슬레-알란드 판 혹은 연합성서공회 판)을 지지하게 되었고 급기야 참으로 심각한 아이러니를 보이게 되었다.⁴⁶⁾

위키 백과를 보면 밥 존스 대학의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견해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⁴⁷⁾

3.1.2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입장(Position on the King James Version of the Bible)

본 대학[밥 존스 대학]은 예배와 수업 시간에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수용할 수 있는 영어 역본은 아니라고 믿으며 또 그것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사본들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도 믿지 않는다. 킹제임스 유일주의는 1970년대 이후 NIV, NASB 등이 나온 이래로 [즉 밥 존스 사니어가 죽은 이후] 근본주의 진영을 분열시키는 이슈가 되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정통 기독교인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번역이라는 데 동의하였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믿지만, 원어로 기록된 자필 원본만이 절대 무오함을 믿는다. [그의 아들인] 밥 존스 주니어는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이단 교리라고도 불렀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는가? 학교를 설립한 원래 주인은 명백한 킹제임스 유일주의자였는데 1968년에 그가 죽자 그의 아들과 손자는 곧이어 등장한 현대 역본들을 수용하면서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이단이라 불렀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시간까지 모든 예배와 수업 시간에는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하고 있다. 대학 홈페이지에서도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함을 밝히고 있으며 이 사실은 2016년 3월 27일 밥 존스 대학을 다니는 학생과의 전화 통화로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이처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근본적인 신학교가 겉으로는 모순된 신학을 드러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하며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⁴⁸⁾

46) <현대 역본들의 카톨릭 편향>,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638

47) https://en.wikipedia.org/wiki/Bob_Jones_University

48) <근본주의의 역사>, 기독교 문서 선교회, David Beale, 김효성 역(밥 존스 대학 출판부, 1986), 1850년 이후의 근본주의 운동, 'In pursuit of Purity'

4.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하는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

밥 존스 대학이 배출한 졸업생들 중에는 호르튼 박사(Dr. Arlin Horton)와 그의 아내 베카 호르튼(Mrs. Beka Horton)이 있다. 이들은 1951년에 밥 존스 대학을 졸업한 뒤 플로리다 주 펜사콜라로 내려가 학교를 세웠고 1954년에는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PCC)를 열었다. 이 학교는 밥 존스 대학과 달리 독립침례교회의 학교이며 현재 미국에서 침례교 종합 대학으로는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참고 : 비성경적 오순절 은사 운동인 ‘펜사콜라 성령부흥운동’은 이 학교와 전혀 무관함).⁴⁹⁾

처음부터 PCC는 밥 존스 시니어의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아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지지하였고 밥 존스 시니어 사후에 그 대학 신학부가 천주교의 소수 본문을 선호하자 밥 존스 대학과 대립하며 전 세계에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파급시켜 왔다.

PCC의 가장 큰 힘은 호르튼 박사의 부인인 베카 호르튼이 만든 홈스쿨링 교재 베카 북(A Beka Book)이다. 미국에서는 공립학교가 진화론과 프리섹스 등을 가르치며 타락하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 홈스쿨링을 택하였고 공식적인 통계로는 전체 학령인구의 3.4%(180만 명)가 홈스쿨링을 하고 있으며 매해 15% 정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⁰⁾

그런데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들 가운데 많은 수가 인구 조사에서 이를 밝히지 않으므로 실제 홈스쿨링 인구는 10% 이상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또한 전 세계에 거주하는 많은 수의 미국인들도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교재를 제공하는 주요 원천이 바로 밥 존스 대학과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이다.

이 두 학교의 홈스쿨링 교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며, 최근에는 PCC의 베카북이 더 큰 매출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교과서는 모두 킹제임스 성경만 인용한다. 즉 킹제임스 유일주의이다. 이 책들을 통해 미국 인구의 10% 정도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킹제임스 성경을 접하고 사용하게 된다.

내가 2년에 걸쳐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한 곳은 바로 PCC의 신학대학원이다(Pensacola Theological Seminary, PTS).⁵¹⁾

여기서 석사 이상의 신학 공부를 하면 반드시 학수 번호 BI 640인 ‘성경 본문 보존의 교리와 역사’(Doctrine and History of Preservation of the Text)를 수강해야 한다(다음 링크의 과목 명단의 넷째 것).⁵²⁾

이 과목의 핵심은 축자 영감과 축자 보존이며 그 결과는 영어의 경우 하나님께서

49) https://en.wikipedia.org/wiki/Pensacola_Christian_College

50) <https://www.time4learning.com/homeschool/homeschoolstatistics.shtml>

51) 이 과정은 통신 학위 과정이 아니고 반드시 출석해서 30학점(10과목) 수업을 듣고 모든 과목에서 시험과 과목별 리포트(수강 전과 수강 후 2번)를 제출해야 하는 정규 석사 과정이다. 이 대학원에는 과거에 통신으로만 석사 학위를 주는 과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 참고로 PCC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 대학이다.

52) <http://pts.pcci.edu/Academics/Degrees/MABibleExposition.aspx>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만이 옳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PTS를 졸업하고도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부인하면, 졸업하기 위해 자기의 믿음과 달리 거짓말로 시험을 치르고 이 교리와 관련된 소논문을 제출해야만 한다. 실제로 내가 아는 여러 명의 한국 사람들이 PTS를 졸업하고도 이 시간에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그것을 대적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을 속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내가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믿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배운 것에 대해 확신하기 때문이며 그 과목을 들으면서 내가 진술한 것과 지금의 삶을 일치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일들은 모두 졸업이나 목회나 성경 번역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발적인 믿음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PCC와 PTS가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표방한다고 해서 대체 누가 그 학교를 이단이라고 하는가? 구글 검색을 통해 살펴보라. 이것은 개개인의 믿음과 양심의 자유에 속한 것이다.

위키 백과의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 항목의 맨 밑을 보면 이 학교가 배출한 유명 인사들의 명단이 나온다. 1990년에 법학과를 졸업한 Cathy McMorris Rodgers는 2004년에 워싱턴 주에서 미국 국회의원(하원)이 되었다. 그 외 수많은 학생들이 PCC를 졸업하고 의과대학, 법과 대학, 신학 대학 등의 프로페셔널 학교들과 간호대학, 약학 대학, 공과 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하여 자기들의 꿈을 펴고 있다.

나는 결코 이런 대학교를 나와야만 킹제임스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PCC 등이 명문 대학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전통적인 믿음을 고수하는 신학교가 정상적인 목회자와 사역자를 배출하며, 바른 교육서를 발간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이 괴상한 것으로 모함하고 있는 킹제임스 유일주의는 실로 오랫동안 지속해 온 매우 건전하고 바른 신앙이다.

5. 저명한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

5.1 피터 럭크맨(Dr. Peter Ruckman)

아마도 킹제임스 성경을 전파하는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은 다름 아닌 럭크맨 박사이다. 1921년생인 럭크맨 박사 역시 펜사콜라에 자리를 잡고 목회를 해 오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는 다수의 진귀한 책들을 저술하였다. 나는 럭크맨 박사의 극단적인 몇 가지 주장 - 킹제임스 성경의 이중 영감, 향상된 계시, 극단적 세대주의 해석 등 - 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성경관과 성경 해석, 영혼 구원 열정, 저술 능력, 그림 그리기, 타고난 건강 등 여러 면에서 그의 탁월함을 인정한다.⁵³⁾

53) <럭크맨(P. Ruckman)의 극단적 세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http://www.keepbible.com/>

bbs/board.html?board_table=notice&write_id=672

그가 저술한 ‘사본학 증거 핸드북’(The Christian’s Handbook of Manuscript Evidence) 같은 책은 감히 누구도 흉내 내기 어려운 명저로 생각한다.

그러면 러크맨 박사의 킹제임스 유일주의는 출처가 어디인가? 바로 그가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밥 존스 대학이다. 그는 거기서 근본주의와 킹제임스 성경을 배웠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밥 존스 대학을 졸업했다면 왜 학교에서 줄곧 킹제임스 성경만을 쓰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실상은 밥 존스 대학을 졸업한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거기서 학위만 받지 성경은 알지 못하고 나오는 것 같다.⁵⁴⁾

5.2 에드워드 힐즈(Dr. Edward F. Hills)

그러면 킹제임스 유일주의의 원천인 밥 존스 대학 졸업자 말고는 유명한 킹제임스 유일주의자가 없는가?

힐즈 박사를 보자. 그는 장로교인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서 석사를 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신약 본문 비평학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다.

위키 백과에서 보듯이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20세기 최고의 본문 비평학자이며 지금까지 그를 능가하는 인물은 없다.⁵⁵⁾

그런 그가 지은 책이 바로 저 유명한 <킹제임스 성경 변호>(The King James Version Defended)이다.⁵⁶⁾

위키 백과 항목을 보면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킹제임스 성경은 단순히 공인 본문[대부분의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한 본문]의 한 번역본으로 간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인 본문의 독자적인 한 형태로도 간주하여야 한다...그러면 몇몇 공인 본문 판들 사이에서 비록 적은 수지만 [미세하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 곳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본문을 따라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공통의 믿음’에 의해 인도를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하게 자신의 승인 도장을 찍으신 공인 본문의 형태 즉 킹제임스 성경을,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해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그리스어 본문을 선호한다.

이 그리스어 본문은 1881년에 스크리브너 박사의 편집 책임하에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 8번 재판되다가 1949년에 마지막으로 재판되었다.

54) 참고로 러크맨 박사가 세운 Pensacola Bible Institute(PBI)는 야간에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원이며 위에서 소개한 PCC나 PTS와는 전혀 무관하다. 한국의 말씀보존 학회(대표 이송오)는 러크맨 박사의 교리들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과거 일부 교단에 의해 이단 정죄를 받은 적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단 정죄를 받은 이유가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과도한 언행과 독특한 교리 때문이라는 점이다. 참고로 나는 이송오 대표와 일면식도 없고 그곳과는 전혀 무관하다.

55) https://en.wikipedia.org/wiki/Edward_F._Hills

56) 아마존에서 ‘The King James Version Defended’를 치면 나온다.

또한, 1976년에 이 본문의 다른 판이 런던에서 트리니타리언성경공회에 의해 출판되었다(이곳의 웹사이트는 www.trinitarianbiblesociety.org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경 학도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장 좋은 형태의 공인 본문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 (그의 책 220-223)⁵⁷⁾

위의 진술은 현시대 최고의 본문 비평 학자가 내린 킹제임스 유일주의에 대한 확신이다.

이 책은 우리 출판사에서 <킹제임스 성경 변호>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고 누구나 PDF 파일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⁵⁸⁾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이 책의 내용을 발췌하여 사이트에 기사로 올릴 것이다.

5.3 도널드 웨이트(Dr. Donald. A. Waite)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성경 지지 사역을 하는 ‘Bible For Today’의 웨이트 박사는 미시간 대학에서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공부하였고 델리스 신학교에서 신약 그리스 문헌으로 석사를, 성경 강해학으로 신학 박사를 하고 명문인 퍼듀 대학에서 스피치로 철학박사(Ph.D.)를 받았고 수십 년간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치신 분이다. 이 정도의 학력이면 원어에 얼마나 능통할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웨이트 박사는 90세가 넘는 고령이지만 지금도 독립침례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⁵⁹⁾

웨이트 박사는 원래 소수 본문을 지지하는 델리스 대학 출신이지만 양심의 변화를 받아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역을 수십 년간 해 오고 있다.

웨이트 박사 역시 그리스어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이다. 이분은 원어 학자이므로 늘 원어를 언급하지만 영어로는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신뢰할 수 있는 성경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분의 저서 <Defending The King James Bible>은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을 보여 준다.⁶⁰⁾

이 책은 우리 출판사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고 누구나 PDF 파일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⁶¹⁾

57) <스크리브너의 TR 이야기>,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622

58) <킹제임스 성경 변호 무료 PDF>,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280

59) <http://biblefortoday.org/>

60) 아마존에서 ‘Defending The King James Bible’을 치면 나온다.

61)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무료 PDF>,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6_02&write_id=12

나는 웨이트 박사와 그분의 교회에서 독립침례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안수 받을 때 믿음을 고백한 대로 신실하게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따라가고 있다.

5.4 로버트 켄달(Dr. Robert P. Kendall)

1999년에 PTS에 신학을 공부하러 가서 나는 평생에 가장 귀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그분은 델리스 신학교에서 신학박사를 취득한 켄달 박사이다. 이분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영어에 능통하여 심지어 2001년도에 다시 나온 <The New Strong's Expanded Dictionary Of Bible Words>의 사전 부분에 100만 개 이상의 단어를 추가해서 확장하며 새롭게 편집하는 일을 담당하였다.⁶²⁾

또한 스트롱의 용어색인을 사용하여 어떻게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Getting the Most From Your New Strong's Exhaustive Bible Concordance> 책도 저술하였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독교 출판사 중 하나인 토마스 넬슨에서 이런 일을 맡길 정도면 이분의 원어 및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켄달 박사 역시 철저한 킹제임스 유일주의자이다. 내가 특별히 이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심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수백 군데를 이분과의 이메일 교신으로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은 절대 쉽지 않다. 켄달 박사는 이 일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지난 20년 동안 그분과 나는 수백 통의 이메일 서신은 다음에 정리해서 알릴 날이 있을 것이다.

5.5 기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장인 11장 32절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라고 말하였다. 킹제임스 성경의 독보성에 관한 한 이 말이 곧 나의 말이다. 하지만 독자들을 위해 몇 가지만 추가하고자 한다.

○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역시 킹제임스 성경과 동일한 본문에서 성경을 번역하였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킹제임스 성경과 동일한 내용에 대한 유일주의자이다.

○ 존 칼빈(John Calvin) 역시 자기의 사촌인 올리베탕이 킹제임스 성경과 동일한 본문에서 프랑스어로 올리베탕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도왔고 그 성경을 사용하였으므로 마르틴 루터와 같은 의미의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이다.

○ 기독교 역사에서 매튜 헨리(Matthew Henry)의 유명한 주석을 빼놓을 수는 없다. 헨리 역시 그 방대한 주석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주해하였다.

62) 아마존에서 ‘The New Strong's Expanded Dictionary Of Bible Words’을 치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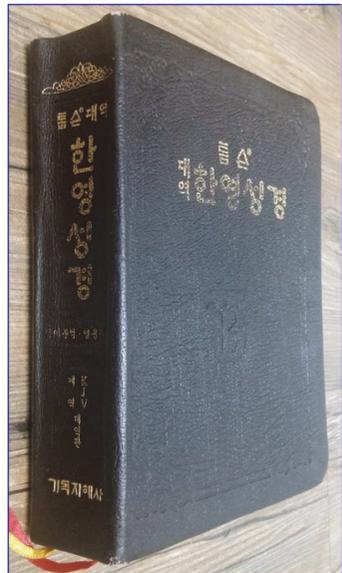
○ 조지 휘필드(George Whitefield) 역시 그의 모든 설교를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준비했다. 조나단 에드워즈, D. L. 무디, 찰스 스필전, 캠벨 모르간, 마틴 로이드 존스 등이 모두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였다. 이들은 글을 쓸 때도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하였다.

○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두 종류의 성경이 있다. 다수의 침례교인들은 스코필드 참조 성경(Scofield Reference Bible)을 사랑한다. 1909년에 나온 이래로 아마도 단일성경으로 이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렸을 것이다. 위키 백과를 보면 셋째 줄에 매우 분명하게 이 성경이 프로테스탄트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⁶³⁾

○ 다수의 장로교인들과 개혁신교회 성도들, 그리고 감리교인들은 톰슨체인참조성경(Thompson Chain Reference Bible)을 사랑한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톰슨 성경은 1890년에 작업이 시작되었고 역시 킹제임스 성경을 본문으로 한다고 위키 백과는 말한다.⁶⁴⁾

톰슨 성경은 1989년에 국내에서도 기독지혜사가 <톰슨대역한영성경>으로 출간하여 큰 인기를 누렸다. 이 성경의 영어 본문은 킹제임스 성경이며 편찬 위원회의 위원들은 기독교계에서 내로라하는 신학자와 목사들이다. 서문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는,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바 이 점에 있어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톰슨 대역 한영 성경, 기독지혜사, 부록 1, p. 4, 1989).



63) https://en.wikipedia.org/wiki/Scofield_Reference_Bible

64) https://en.wikipedia.org/wiki/Thompson_Chain-Reference_Bible

○ 미국 창조 과학회를 창시한 헨리 모리스 박사는 유일주의는 아니었지만, 굳이 새로 나온 현대 역본으로 성경을 바꿀 필요가 없을 정도로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탁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지은 <헨리 모리스 스테디 바이블>(Henry Morris Study Bible) 역시 킹제임스 성경만을 쓴다.

○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레프트 비하인드'(Left Behind)라는 휴거 관련 유명 소설을 쓴 팀 라헤이 목사 역시 킹제임스 성경을 애용한다. 그는 성경 예언에 관한 전문가로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고 있다. 그가 지은 <Prophecy Study Bible: King James Version> 역시 제목에서 보듯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다.

이외에도 오픈 성경, 벌링거의 컴패니언 바이블, 데이크 성경, 라이리 성경, 조다이 테스 성경, 매튜 헨리 주석 성경 등이 모두 킹제임스 성경을 본문으로 쓰고 있다.

○ 마지막으로 국내에는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종교개혁 본문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없는가? 기존 신학대학교의 명망 있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바른 사본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는 호주 목회자 키이쓰 파이퍼의 책을 이항로 목사가 번역하고, 이기석 전 뉴저지 새순교회 목사님과 이광복 광신대 교수이자 흰돌선교센터 원장님이 감수했으며, 전 총신대 및 대신대 총장 정성구 박사님이 추천한 것이다.

정성구 박사님은 총신대/대신대 총장을 역임한 분이다. 이분의 추천사는 다음과 같다.

성경은 어느 사본, 어느 역본으로, 어떤 신학적 입장에서 번역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네바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KJV)은 그 당시 종교개혁의 정신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 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정신 위에 공인(共認) 역(TR)을 바탕으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의 영역 성경들, 특히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신국제역)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면서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 뉴에이지, 로마 카톨릭 주의의 영향으로, 자유주의적인 인본주의 사상으로 성경 번역에 심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학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같은 이들이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본문을 재구성한 것을 철저히 믿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이단이며 가장 잘못된 사본을 사용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안목으로 번역을 해버린 그들은 도리어 기독교 신앙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이 책은 사본학의 근원을 파헤치는 역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목회자와 모든 신학생들에게 두루 읽혀져 성경교육과 설교에 크게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라면서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정성구 박사의 추천사에서

6. 나는 왜 킹제임스 성경만을 옹호하고 사랑하는가?

1. 킹제임스 성경은 빠진 구절이 하나도 없다.⁶⁵⁾
2. 모든 성경이 다 같지 않다.⁶⁶⁾
3. 그 결과 신학이 바뀐다(해당 주소의 PDF에서 '흠정역 성경의 4중 우수성' 참조).⁶⁷⁾
4.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철자 등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해당 주소의 PDF에서 '흠정역 성경 개정 신화' 참조).⁶⁸⁾
5. 역사와 데이터가 증명한다.⁶⁹⁾
6. 끝으로 킹제임스 유일주의는 나의 믿음이다.

나는 무언가를 설계하고 만들기 위해 매일 공학 데이터를 계산하고 비교하며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공학도이다. 데이터가 틀리면 혹은 부실하면 다리와 발덩이 무너지고 비행기가 추락한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성경, 그리고 NIV, NASB 등을 비교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은 모든 면에서 옳고 다른 성경은 틀린 데가 많음을 너무도 쉽게 발견하였다. 천 번, 만 번을 보아도 킹제임스 성경은 옳고 다른 성경은 틀린 데가 많다. 양심을 울곧게 유지한 채 시간을 내서 킹제임스 성경과 그 외 성경들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기 바란다.⁷⁰⁾

킹제임스 성경의 유일성을 확신하는 일은 절대 소수의 성경학자나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 누구나 이것을 믿어 확신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 우리가 출간하고 무료로 나누어주는 <박사성경>에는 개역성경(신약)에서 오역되거나 삭제/첨가된 부분이 대부분 마크되어 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잠시 훑어보기만 해도 바른 성경과의 차이를 너무도 쉽게 바로 알 수 있다.⁷¹⁾

65) <‘없음’이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190

66) <성경 문제> http://www.keepbible.com/html/02_01.html

67) <흠정역 성경의 4중 우수성>,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250

68) <흠정역 성경 개정 신화>,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250

69)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645

70) <무료 전자책 PDF 책>,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notice&write_id=151

71) <박사 성경 무료 PDF>, <http://www.keepbible.com/>

끝으로 독자가 나오는 다른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 해도 나는 그것을 존중한다. 다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경 신자로서,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보존 약속에 따라 지금 이 시간에 내 손안에 완전한 성경이 있어야만 한다고 믿으며, 그것은 논란의 여지없이 영어로는 킹제임스 성경이며 우리말로로는 그것을 충실하게 번역한 흠정역 성경이라고 확신한다.⁷²⁾

7. 개역성경에 대한 나의 입장

마지막으로 나는 한 번도 개역성경(개역개정 혹은 NIV 등 다른 모든 역본들)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나 자신과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개역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구원받았다. 다만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고 교리가 왜곡될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할 뿐이다(이것은 개역성경을 출간한 대한성서공회가 인정한 사실이다). 물론 나는 누구든지 개역성경(개역개정)이든 다른 역본을 선택할 자유가 있음을 믿는다.⁷³⁾

8.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의 결론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즉 킹제임스 성경의 독보적 우수성은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이후로 영미권에서 근 400년 이상 알게 모르게 지속하여 온 개념이다. 이 개념은 결코 어떤 사람이 주장하듯이 안식교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안식교는 킹제임스 성경이 반포된 지 240년 정도 지난 19세기 중반에 세워졌다. 그때에 영미권에서는 모든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만 보았다.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성경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100년이 지난 1950년대까지도 이 말은 사실이다. 킹제임스 성경이 이미 확고하게 독보적인 성경으로 존재한 시점에 무엇이 부족해서 특히 안식교에서 킹제임스 유일주의 교리를 편단 말인가?

지금도 몰몬교는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들 역시 킹제임스 유일주의자인가? 그러면 언제부터 그들이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외쳤는가? 안식교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므로 안식교가 킹제임스 유일주의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역사에 대한 무지를 잘 보여주며 쓸데없는 음모론을 조장하는 것이다. 안식교라는 이단을 억지로 끌어와 마치 킹제임스 사용자가 이단에 연루된 것처럼 현혹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는 마치 신천지가 개역성경만을 쓰므로 개역성경 유일주의를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억지 주장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1970년까지 약 360년 동안 영어를 쓰는 온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독보적으

bbs/board.html?board_table=06_02&write_id=11

72) <영감과 보존: 원본, 사본, 역본의 관계>, 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637

73) <개역성경(개역개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나요?>, 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753

로 사용해온 유일한 성경이다.

다시 말하지만, 최근 들어 나 같은 사람을 헐뜯기 위해 킹제임스 유일주의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 자체는 이미 400년 이상 영미권에서 자연스레 그들의 삶 속에서 존속해 온 것이다. 바른 역사관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해악이라도 끼쳤는지, 특히 현대 역본들의 등장 전과 후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9. 앞으로의 계획

이제부터 나는 시간이 나는 대로 킹제임스 유일주의(독보적 우수성)를 알리기 위해 힐즈 박사의 <킹제임스 성경 변호>, 웨이트 박사의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그리고 홀랜드 박사의 베스트셀러인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Crowned With Glory : The Bible from Ancient Text to Authorized) 등을 모두 요약하여 올릴 것이다. 지금까지는 PDF 파일만으로 올려 내용을 모르는 분이 많다. 또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들의 책을 중심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변호하는 강좌도 열 것이다.⁷⁴⁾

지금까지 나 역시 많은 글을 썼고 강연을 했으나 나의 학식이 이런 분들의 학식에 다다르지 못하므로 내가 믿는 바를 이들의 글로 대신하려고 한다. 분명하게 말하건대 이것은 어떤 이들의 무모한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거나 변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나는 전혀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위로하고 독려하기 위함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끝으로 나는 앞서 인용한 모든 분들을 존경하지만, 사람마다 극단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내 양심에 어긋나는 경우 글은 읽지만 내 것으로 삼지는 않는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러크맨 박사일 것이다. 그분의 방대하고도 탁월한 지식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극단적인 발언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나는 그분의 킹제임스 성경 영감 및 새로운 계시 등에 절대로 동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까지 나는 그것들이 틀렸다고 외쳤고 앞으로도 이것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성을 믿는 분들의 입을 통해 역사의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 보일 것이다. 이를 믿고 따르든지 반대하든지 모두 독자의 몫이요, 선택의 자유다.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다. 믿음은 절대 강제와 강요로 생겨나지 않기에 그 누구도 아무에게든지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라서 양심의 자유를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나나 킹제임스 성경이 다른 이단/사이비 단체들처럼 사생활을 간섭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강제로 재물을 축적하고 집단생활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일과 추문을 양산한 적이 있는가? 만약 킹제임스 성경의 유일성을 믿는 신자의 부도덕을 지적하는

74)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무료 PDF>,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6_02&write_id=14
아마존에서 'Crowned Glory Ancient Authorized Version'을 치면 나온다.

자가 있다면 막연한 비판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정확히 입증해야 할 것이다. 단언하건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뿌린 것은 성경에 대한 확신, 양심의 자유, 영원한 구원, 건전한 가정, 신약 교회 그리고 애국심이다.⁷⁵⁾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기도한다. 판단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그 사람의 언행을 살펴보는 것이다. 과거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 왔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행위를 살펴 보라.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을 보여 줄 것이다.

또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판명이 나면 나는 언제라도 이 일을 그만둘 각오가 되어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가말리엘의 충고를 주고 싶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고 그들을 내버려 두라.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지리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거꾸러뜨릴 수 없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매(행5:38-39)

존귀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자 성령님의 큰 평안이 임할 줄로 확신한다.

75) <목회철학> <http://cbck.org/html/chu02.html>

사랑침례교회 사이트 상단 '설교와 말씀' 녹색 메뉴 중 시리즈 말씀의 <구원>, <가정과 결혼> 항목 참조, <위대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지키기>, http://cbck.org/bbs/board.html?board_table=sermon&write_id=623

미국 내 킹제임스 유일주의 학교들과 기관들⁷⁶⁾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그룹들이 더러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가 성경을 만들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부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래로 1970년대에 NIV, NASB, NKJV 등의 현대 역본들이 쏟아져 나오기까지 360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에서는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만 쓰였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모든 교단과 교파가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하였습니다(자동으로 킹제임스 유일주의).

그러나 지난 30-40년 동안 성경 전쟁이 벌어지고 현대 역본들이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자 미국의 근본적인 교회들과 대학들 그리고 선교 단체 등은 본인들의 믿음 진술문에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쓴다는 것을 명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 예로 다음은 웨스트코스트 대학의 믿음 선언문입니다.

WEST COAST BAPTIST COLLEGE

4010 E. Lancaster Blvd.
Lancaster, CA 93535
Dr. Paul Chappell, Founder and President
Toll-free: 1-888-694-9222
Fax: 661-946-4510
Email: info@wcbc.edu
Web: wcbc.edu

Founded 1995. A ministry of [Lancaster Baptist Church](#).

One-year Bible certificate, 2-year associate (secretarial),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Online Learning](#).

"We believe the Bible to be the revealed Word of God, fully and verbally inspired of God. We believe the Scriptures to be the inerrant, infallible Word of God, as found within the 66 books from Genesis to Revelation. We believe God not only inspired every word, but has preserved them through the ages. We believe the King James Version is the preserved Word of God for the English-speaking people and is the only acceptable translation to be used in this college by faculty or students (Psalm 12:6-7; 2 Timothy 3:15-17; 1 Peter 1:23-25; 2 Peter 1:19-21)" —from Doctrinal Statement

10/2015

그 결과 현재 미국 독립침례교회들의 80%는 본인들의 신앙 진술문에 킹제임스 성경만을 쓴다고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0-40년 동안

76) <미국 내 킹제임스 유일주의 학교들과 기관들> http://www.cbck.org/bbs/board.html?board_table=qt&write_id=1025

현대 역본들의 폐해를 직접 경험하였기에 성경 무오성과 성경 보존의 교리를 확고하게 알리고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은 킹제임스 유일주의 대학 및 기관들의 명단입니다.⁷⁷⁾

이 사이트의 맨 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취하는 미국 내 침례교회 사역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This directory includes Baptist ministries in the United States that take a stand for the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Home](#) | [Biography](#) | [Children](#) | [Family](#) | [Ministries](#) | [Missions](#) | [Poetry](#) | [Quotes](#) | [Resources](#)



Wholesome Words

Ministries Directory (KJV)

Important: This directory includes Baptist ministries in the United States that take a stand for the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Each ministry's stand on the KJV is given, along with contact and other helpful information. In determining which entries to include, doctrinal statements and other information were acquired and reviewed. The listing of a ministry does not, however, indicate an endorsement of it. You are exhorted to "prove all things; hold fast that which is good." Except as indicated, the Bible institutes, colleges, and seminaries in this directory are not accredited by any accreditation agency.

Copyright ©2016 Stephen Ross. This directory, in whole or in part, is not to be posted on other Internet sites.

- **Bible Institutes, Colleges, Seminaries**
- **Mission Boards and Agencies**
- **Other Ministries**

여기에는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Pensacola Christian College) 등 미국에서 가장 큰 침례교 종합 대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만드는 베카북(A Beka Book) 같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 세계 최고의 홈스쿨링 교재도 킹제임스 성경만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와 목사님들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만 사용합니다. 이런 일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일이며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과거에 말씀을 보존한다는 한 단체가 킹제임스 유일주의의 칼날로 구원관, 교회관을 파괴하여 국내의 대형 교단들로부터 이단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혹은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과 지성 그리고 상식의 결여로 인한 패착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논하거든 그의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비판하여야 합니다.

77) <http://www.wholesomewords.org/direc.html>

다음의 글에서 보듯이 우리는 그런 학회의 무익한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배격하고 미워합니다.⁷⁸⁾

위에서 소개한 미국의 킹제임스 유일주의 학교나 단체 모두 저희가 주장하는 유일주의와 동일한 것을 믿고 가르칩니다.

또한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이 다닌 유명한 밥 존스 대학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킹제임스 유일주의가 아니지만 학교와 예배의 모든 영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쓰므로 실제적인 킹제임스 유일주의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실 이런 데도 굉장히 많지만 위의 명단에는 이런 곳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가치가 득세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성경 무오성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배타적인 구원 교리가 널리 세워지고 확산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샬롬

정동수 목사, 사랑침례교회

78) <킹제임스 온리(유일주의)의 정의>, 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6&write_id=516

영감과 보존: 원본, 사본, 역본의 관계⁷⁹⁾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성경대로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성경의 영감을 믿을 것입니다. 영감이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문자들을 써서 단어들로 기록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리스말로 영감(inspiration)은 ‘숨을 불어 내어 쉬다’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감’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내어 쉬셨음’을 뜻합니다. 영어
‘inspiration’에서 중간에 있는 ‘spir’는 영을 뜻하는 ‘spirit’에서 나왔습니다.
또 앞의 ‘in’은 들어갔다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감은 ‘하나님의 영이(숨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에 숨을(혹은 영을) 불어 넣으셨을까요? 그분은
‘모든 성경기록’에 그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완전한 성경기록의 모든 단어에
자신의 숨을 불어 내심으로써 그 단어들이 살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이것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단어)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겹보다도 예리하여
훈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별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히4:12-13).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단어]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감 과정이 과거에 몇 차례 있었느냐, 또 지금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감이 과거에 한 차례만 있었을까요? 여러 차례 있었을까요?

즉, 원본의 단어들만 단 한 차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사본의 단어들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을까요? 혹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우리말 흠정역 성경은 어떤가요? 그것들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을까
요? 이 영감 과정이 과거에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현재에도 있을까요?

79) <영감과 보존: 원본, 사본, 역본의 관계>, [http://keepbible.com/
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637](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637)

바로 이것이 여러 사람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딘후3:16에 나오는 영감이 자필 원본의 단어들을 기록할 때에 사용된 영감이라는 점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히브리말(약간의 아람어)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말로 나왔습니다. 그 단어들을 인간 기록자들이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벤험1:20-21).

분명히 처음에 원본 성경기록들이 주어질 때 영어나 우리말로 단어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다.

단 한 차례 자필 원본의 단어들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습니다(기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자신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보존하십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완벽하게 보존되면 그 성경은 사본이든 역본이든 자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하나님의 숨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읽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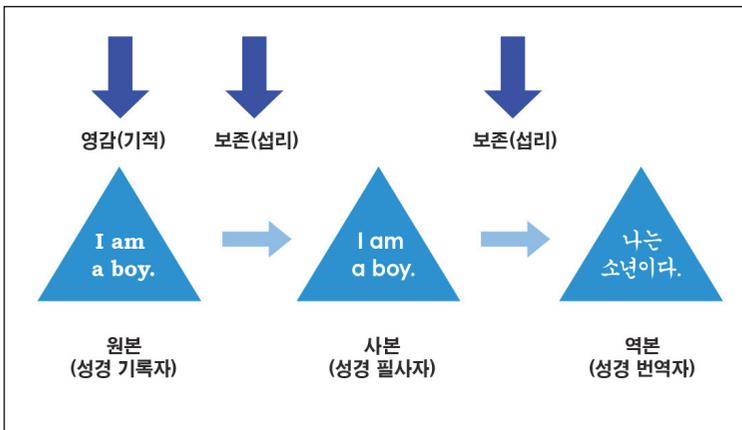
이 문제를 잘 이해하지 않거나 잘 표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영어와 한국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입에서 영어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나와서 인간 기록자가 완벽하게 기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필 원본: I am a boy.

자, 시간이 지나면서 'I am a boy.'가 담긴 자필 원본이 헤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사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정확하게 다른 사본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본: I am a boy(필사자와 필체는 다르지만 네 단어는 정확하게 같음).

자필 원본의 'I am a boy.'는 딤전3:16의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자필 원본의 모든 단어를 정확하게 그대로 옮겨 놓은 사본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보존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둘이 정확히 일치하므로 원본과 사본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하나님의 숨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피땀 흘려가며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처음의 원본과 동일하게 기록하였습니다.

1960년, 밀러(H. S. Miller)가 지은 「일반 성경 입문」(General Biblical Introduction)에는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 회당에 있던 두루마리들을 복사하면서 지킨 여덟 가지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 (1) 양피지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되 오직 유대민만이 만들 수 있으며 정결한 짐승으로부터 만든 끈으로 묶어야만 한다.
- (2) 두루마리의 각 난에는 48 줄에서 60 줄이 들어가야만 한다.
- (3)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이어야만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해야만 한다.
- (4) 어떤 단어나 글자도 머리로 외워 적어서는 안 된다.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통 복사본을 놓고 기록하기 전에 먼저 각 단어를 큰 소리로 읽고 발음해야 한다.
- (5)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아야만 하며 여호와(Jehovah)라는 이름을 적기 전에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반드시 온몸을 씻어야만 한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주(主) 즉 전체가 대문자로 된 'LORD'로 번역되었는데 이 이름을 쓰기 위해 그는 필사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이 몸을 씻어야만 했다.
- (6)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색깔 등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규례들이 있었다.
- (7) 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 그것이 완성된 뒤 30 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는 무효가 된다. 또한 한 장에 단 한 개의 실수라도 있으면 그 장은 버려야만 했고 전체 필사본에서 세 개의 실수가 발견되면 전체를 폐기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기록한 뒤 그중에 단 세 개의 실수가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창세기부터 필사해야 한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에 얼마나 신중을 기했는지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이 필사하는 말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됨을 믿었으므로 이런 철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보존해 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본문에서 빼거나 본문에다 첨가하거나 본문을 바꾸거나 하는 NIV, NASB, NKJV 등의 현대 역본 기록관들과는 매우 달랐다. 이런 치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보존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친히 읽으신 말씀이 자필 원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저 없이 성경이라고 부르셨다.

(8) 그들은 글자와 단어 수를 세었고, 만일 글자가 삭제 혹은 첨가되었거나 다른 글자와 붙어 있으면 필사한 사본 전체를 버렸다.

이 같은 규칙들을 소개한 뒤 밀리는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이런 규칙들이 좀 부조리하거나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거룩하게 여겼는지 잘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성경,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경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안에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도 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읽은 성경 말씀이 비록 자필 원본의 말씀이 아니고 필사본의 말씀이었지만 그것을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시며 기록된 필사본에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사본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필사본 두루마리가 곧 원본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every word)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

분명히 위 구절 안에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은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it is written)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세의 자필 원본이 아니고 모세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약 1500년 동안 필사되어 보존된 성경(사본)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원본만 옳았다면 ‘it was written’으로 과거 시제로 기록되었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의 현재형은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뜻하는 현재형입니다.

또한 ‘모든 말씀’(every word)이란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말씀이(단어가) 보존되지 않은 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손 안에 들어 있는 필사본 성경이 자필 원본과 똑같음을 증명해 주셨으며 그 필사본에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이외에도 다른 구절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마 5:17-18; 눅24:27; 눅24:44 등).

자, 그러면 번역본은 어떨까요? 자필 원본을 그대로 동일하게 베껴 쓴 사본의 ‘I am a boy.’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번역본: 나는 소년입니다(참고로 우리말은 존칭이 있으므로 ‘나는 소년이다’, ‘저는 소년입니다’도 다 맞는 번역임).

하나님의 입에서는 분명히 처음에 ‘I am a boy.’가 나왔고 인간 기록자는 그것을 원본에 기록하였으며 이 네 단어는 사본에 그대로 정확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이 보존된 사본에서 정확하게 ‘나는 소년입니다.’라는 역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역본도 최초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닐까요? 물론임니

다. 정확하게 번역된 역본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100% 살아서 숨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본의 단어들 역시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신약 성경이 완성된 뒤로 실제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한 것은 다 역본이었습니다. 즉 AD 100년 이후에는 원본이나 사본의 시대가 아니라 역본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역본들을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에 들린 성경(역본)에 하나님의 숨이 없다면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번역 성경의 단어들 딤후3:16의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감은 단 한 차례 자필 원본이 기록될 때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자필 원본의 단어들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이 정확하게 필사되었고 그 필사본에서 지금의 역본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지금의 역본에도 하나님의 모든 단어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원본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해 봅시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단어는 원본을 정확하게 보존한 사본의 원어들에서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 이러한 사본에는 성경기록 필사본, 성경기록을 담고 있는 성구집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사본의 모든 단어를 가능하면 1 대 1 대응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심지어 원어의 문장의 구조까지도 영어로 그대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당연히 언어의 차이로 인해 무언가를 첨가해야만 합니다. 번역을 해 본 사람이면 누구라도 이것을 잘 압니다.

예를 들어 다시 딤후3:16을 보도록 합시다.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is가 이탤릭체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자들이 번역을 위해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is가 없어도 말이 되지만, 영어에서는 is가 없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역자들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자들은 정직하게 이것을 이탤릭체로 표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것은 원래 원본에 없었으나 번역을 위해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두 개의 is를 제외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사본)을 있는 그대로 영어의 구조 안에서 가능한 한 1 대 1 대응이 되도록 정확하게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형식적 일치'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었기에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들고 "이것은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말씀'입니다."라고 외칩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경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거의 완벽한 형식적 일치를 보이는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11년 이래로 이 성경에 복을 주셔서 이 세상 모든 교회와 신학교의 교리, 신앙신조 등을 정리하며 5대양 6대주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성경을 쓰셨습니다.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수백 개 나라 성경의 번역 대본으로, 표준 잣대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너무 과장한 나머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에서 향상된 계시’ 혹은 ‘원본보다 더 좋은 계시’ 혹은 ‘영감을 받은 성경’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원본보다 더 좋은 역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향상된 계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들(단어들)을 형식적 일치를 통해 정확하게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향상된 계시’나 ‘영감을 받은’ 성경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원본이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라고 부를까요? 다음의 예를 보겠습니다.

‘향상된 계시’의 한 예로 행12:4를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사가 넷씩인 네 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더라(행12:4).

And when he had apprehended him, he put [him] in prison, and delivered [him] to four quaternions of soldiers to keep him; intending after Easter to bring him forth to the people.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은 여기서 ‘이스터’를 유월절로 번역하였습니다. 루터 성경같이 바른 본문에서 나온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전 세계 성경 중에 유일하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이것을 ‘이스터’라고 바르게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우수하므로 이 성경은 원본을 뛰어넘으며 그래서 ‘향상된 계시’라고 주장하거나 영어 성경의 단어들도 딤후3:16의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는 ‘이중 영감설’을 펴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피터 러크맨(Peter Ruckman)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향상된 계시’이거나 이중 영감을 받으려면, 원본에 없던 무엇인가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스터’라고 번역한 그리스말이 원어에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데 영어 성경이 그것을 번역해서 집어넣었다면 그것은 첨가이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터’에 해당하는 그리스말은 ‘파스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말 파스카는 명절의 경우 크게 둘을 뜻합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터’(이교도들의 부활절

축제)입니다. 파스카는 Oxford English Dictionary에도 정확하게 이 두 개의 명절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파스카는 이 둘 중 하나로 번역될 수 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행12장의 때가 이미 무교절 기간이라 유월절은 지났으므로 무교절 다음에 오는 이교도들의 부활절인 ‘이스터’로 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어 없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향상된 계시’나 딤후3:16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100% 보존된 바른 사본의 단어들을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처음에 원본이 주어졌을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서 숨 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 중 원어들을 담은 사본에서 나오지 않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향상된 계시나 이중 영감을 받은 성경이 아닙니다.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선포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흠정역: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전1:14).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것이 헛되어 영을 괴롭게 한다.”(vexation of spirit)고 전도서에서 무려 10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 NIV를 포함한 대부분의 현대 역본은 이것을 전적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영을 괴롭게 하는 것’과 ‘바람을 잡는 것’(grasping of the wind)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 혹은 ‘바람’에 해당하는 히브리말은 ‘루아흐’입니다. 이 경우 킹제임스 성경이나 개역성경의 대본이 된 원어 성경의 원어가 동일하므로 이 같은 차이가 생긴 데 대해 원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를 통해 우리는 성경 번역자가 같은 단어를 문맥에 따라 어떻게 번역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의 문맥상 어느 번역이 맞을까요? 우리는 전도서 기자가 말하려는 요점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번역한 대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어 우리의 영을 괴롭게 하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서 기자는 마무리를 하면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영의 문제지 결코 뜬구름 잡는 것같이 바람을 붙잡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번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번역이라고 믿으며 이런 의미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킹제임스 성경이 ‘향상된 계시’임을 보여 주는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했음을 보여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보다 낫다는 주장을 펴서는 안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의 모든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해서 하나님의 단어들을 이방인들의 공통 언어로 보존한 성경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향상된 계시’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반드시 다음의 글을 읽고 진술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편 진영에서 무식하다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원본이 최종 권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간에 우리가 원본의 모든 단어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들이 바르게 번역되지 않으면 최종 권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스카’, ‘루아흐’, ‘하데스’ 등의 원어들은 다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대로 번역되지 않으면 원어들만으로는 최종적인 표준짓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providence)라는 돌보심을 통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을 인도하셔서 각각의 원어 단어가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하게 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본의 모든 단어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번역되어야만 맞다고 믿습니다.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를 택하셔서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 역본들의 역자들은 원본의 원어들의 뜻을 이 세상 문학가나 철학자의 글을 통해 전달하려고 합니다. 원어 사전들의 저자들 가운데는 불신자가 많으며, 심지어 썬이어(J. H. Thayer) 같은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어는 성경의 언어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의 번역본 시대에 하나님의 원어 단어들을 100% 정확하게 옮긴 보존된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말 흠정역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1 대 1 대응이 되게 형식적 일치를 유지하면서 정직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교리와 특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말 흠정역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고 당연히 주장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딤후3:17의 진리가 흠정역 성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7).

한편 ‘I am a boy.’를 ‘나는 소년입니다.’로 하지 않고 ‘나는 아이입니다.’로 하면 반만 맞습니다. 아이에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 대 1 대응을 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나는 한 소년입니다.’로 하면 우스운 번역이 됩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도 이런 말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이들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창1:1) 라는 말씀을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번역하고는 이외의 다른 번역은 다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망용입니다.

‘In the beginning’은 관용구로서 ‘처음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 처음(시작) 안에서’로 번역하는 것은 영어와 우리말을 망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머릿속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향상된 계시’이므로 그 안에 있는 정관사, 부정관사를 번역할 때 수용 언어(한국어)의 용례를 무시하고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향상된 계시’가 아니며, 이중 영감을 받은 성경도 아닙니다. 원본의 모든 단어들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대로 형식적 일치를 취하면서 정확하게 번역하여 그대로 보존한 성경, 이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처음에 원본이 주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100% 그대로 살아 있는 성경입니다. 결코 10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원본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8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9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하느냐?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해 나를 믿으라(요14:7-11).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빌립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비록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인격체이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동,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과 100%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알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은 다 거짓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는 원본과 킹제임스 성경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원본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혹은 원본이 우월하다고 하거나 그런 주장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통해 보거나 아는 아버지만이 참 하나님이듯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보는 원어의 뜻만이

옳은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는 다른 데서 옳은 뜻을 찾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아들이 아버지보다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요10:30에서 아들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원본과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말씀들(단어들)을 온전히 전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원본의 원어들을 정확하게 번역한 ‘완전한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지난 400년간 수백 개의 성경이 번역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바른 교리를 깨달으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배도의 때에 마귀가 세상 무대에 등장해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변개된 성경의 등장이 필수 요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라 해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의 변개일 것입니다. 마귀는 과거에 이집트에서부터 이 사악한 일을 주도하였고 주후 200년을 넘기면서 그 일은 카톨릭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카톨릭 교회의 사본들만을 번역의 대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감과 보존, 원본과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바른 개념을 정립하여 다른 성도들에게 비방의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바른 성경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성경 신자들을 많이 불러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바른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많은 혼들을 수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패스터

영어로 원어를 고칠 수 있다고요?⁸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함에 대한 균형 잡힌 사고와 바른 이해가 없으면 성경 신자라는 우리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극단적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 주장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원어를 향상시키거나 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믿는 것도 개인의 자유지만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거나 정죄하는 지경에 이르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일로 성경 신자가 될 수 있는 많은 이들의 오해를 사는 요소이며, 결과적으로 킹제임스 성경 사역에 큰 방해가 되는 일입니다.

1611년에 반포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성경을 손에 들면 원어의 여러 뜻을 두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뜻이 많이 달라진 원어의 의도를 잘 알기 어려운 이 시대의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보존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음의 예를 살펴봅시다.

아모스 4장 4절에는 십일조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흠정역: 벤엘로 가서 범법하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삼 년 뒤에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고

KJB: Come to Bethel, and transgress; at Gilgal multiply transgressions; and bring your sacrifices every morning, and your tithes after three years.

개역: 너희는 벤엘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NASB: Enter Bethel and transgress; in Gilgal multiply transgression; Bring your sacrifices every morning, your tithes every three days

이 구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3년’이라고 하고 개역성경은 ‘3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대 역본 지지자들은 KJB가 히브리어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3일’을 ‘3년’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히브리 단어를 살펴보면 ‘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80) <영어로 원어를 고칠 수 있다고요?>, 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6&write_id=515

스트롱 번호가 3117이고 구약 성경에 2,300회 이상 나옵니다. 욥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거의 대부분 '날'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역본 지지자들은 암4:4에서도 욥은 '3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 킹제임스 성경 지지자들은 두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어가 원어를 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장의 지지자들은 비록 욥이 날을 가리키는 것이 맞지만 이런 경우는 신명기 등의 예를 볼 때 3일이 아니라 3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면서 영어가 원어를 향상시키거나 교정할 수 있다고 우기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독보적 우수성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3일이 아니라 3년이 맞는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영어가 원어보다 정확하거나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아무 근거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욥이라는 단어를 '년'으로 번역한 셈이 됩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면, 킹제임스 성경 반대자들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3일이 아니라 3년이 맞다고 주장할까요? 그 이유는 욥이라는 히브리 단어에 '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9절에 가보니 이 단어가 '년'으로 번역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흠정역: 어떤 사람이 성벽을 두른 도시 안에 있는 거주용 집을 팔면 그 집을 판 뒤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으므로 만 일 년 안에 그것을 무를 수 있으나

KJB: And if a man sell a dwelling house in a walled city, then he may redeem it within a whole year after it is sold; within a full year may he redeem it.

여기에도 분명히 동일한 히브리어 '욥'이 쓰였지만 그 단어를 '날'로 하면 안 되기에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그 단어의 또 다른 의미인 '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현대 역본들은 어떠할까요?

개역: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으나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NIV: If a man sells a house in a walled city, he retains the right of redemption a full year after its sale. During that time he may redeem it.

NASB: Likewise, if a man sells a dwelling house in a walled city, then his redemption right remains valid until a full year from its sale; his right of redemption lasts a full year.

모든 현대 역본들도 여기만큼은 동일한 히브리어를 '년'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여기서 자의적인 번역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히브리어 욥의 뜻 가운데 '년'이 있음을 알았기에 여기서 정확하게 '년'이라 번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⁸¹⁾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 *욘*에는 극히 드물게 사용되긴 하지만 ‘*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런 용례를 알기에 이 구절들의 *욘*을 정확하게 ‘*년*’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성경이든, 히브리 문학 작품이든 본래 *욘*에 ‘*년*’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데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욘*을 ‘*년*’으로 번역했다면 그것은 번역자들이 실수를 범하였거나 심한 경우 독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이 성경과 히브리 문학 작품 등을 통해 *욘*의 용례들을 폭넓게 연구한 뒤 대개 *날*을 의미하는 *욘*을 이런 경우에는 ‘*년*’으로 바르게 번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는 점은 영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도 적용되는 번역의 보편적 원리입니다.⁸²⁾

성경에는 용례가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음이 그런 예의 하나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전1:14).

I have seen all the works that are done under the sun; and, behold, all is vanity and vexation of spirit.

이 구절의 *vexation*은 오직 전도서에만 10차례 나옵니다(전1:14; 17; 2:11, 17, 22, 26; 4:4, 6, 16; 6:9). 성경에 이 단어의 다른 용례가 없으므로 우리는 *vexation*에 상응하는 히브리어(스트롱 번호 7469, 7475)가 어떤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개역/NIV 등의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vexation of spirit*’을 ‘바람을 잡는 것’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영어 성경 번역자들이 원어를 향상시키거나 교정해서 아무도 뜻을 알 수 없는 그 히브리어를 ‘영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번역했을까요?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열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원어뿐만 아니라 이전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수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과 그 이전 역본들의 역자들은 어떻게 이리 번역하였을까요?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그분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작품(대개는 성경 관련 작품)을 읽고 그런 단어의

81) <십일조를 3일 만에 드릴까요, 3년 만에 드릴까요?>

<http://www.keepbible.com/>

[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37](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37)

82) <번역과 반역 사이에서: 기계적 일치 번역은 안 된다>

<http://www.keepbible.com/>

[bbs/board.html?board_table=02_06&write_id=512](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6&write_id=512)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맥에 의거하여 바르게 성경에 도입하였습니다.⁸³⁾

다시 말해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누군가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 다른 데서는 한 번도 쓰이지 않은 단어의 정의를 스스로 내려 성경을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 번역된 것은 원어 자체가 그런 뜻을 품고 있고 히브리 사람들의 저작에서 그리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히브리어를 오직 ‘괴롭게 하는 것’으로 번역해야만 정확한 번역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성경들 가운데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만 그렇게 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심지어 뉴킹제임스 성경도 ‘바람을 잡는 것’으로 번역하여 불교 사상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절대로 원어를 향상시키거나 교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주장은 난센스이며 오류 없이 완전하게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위에 누군가가 이런 주장을 퍼거든 속히 그에게서 멀리 도망가야 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당시 번역 과정을 통해 성경과 히브리어/그리스어 용례를 폭넓게 살살이 살핀 뒤 모든 원어를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들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단어들)이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번역되어 보존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 위에 건전하고 바른 모든 신학이 정립되었고 이 성경으로 오대양 육대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성경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이 성경이 원어를 향상시키거나 교정할 수 있다는 극단적 주장을 펴는 것은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의 보급과 확산에 방해가 됩니다. 제아무리 동기가 좋더라도 사실을 왜곡한 비뚤어진 그릇에는 진리를 담을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을 그것이 있을 본래의 자리에 그대로 두고 정직한 마음과 맑은 정신으로 바르게 보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잘못 나가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⁸⁴⁾

지극히 바르고 당연한 것도 그것을 주장하고 알리는 사람이 바른 논리와 상식을 가지고 주장해야 상대방에게 바르게 들립니다. 단순히 영한사전에서 뽑아낸 지식으로 영어만을 가지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만약 성경 번역/해석 등이 그리 쉽게 기계적으로 다 될 것 같으면 구글 번역기로 전체 영어 성경을 하루 만에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물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행위가 과격하거나 비상식적이며

83) <해 아래서 하는 일은 바람을 잡는 일인가?>, 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qna&write_id=304

84) <영감과 보존: 원본, 사본, 역본의 관계>,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637

비논리적인 주장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도록 우리 모두 맑은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며 행해야겠습니다.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오히려 악한 일에는 너희가 아이가 되더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고전14:20).

샬롬

페스티 정동수

성경 문제의 핵심

1885년 4월 5일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 왔다. 한국의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역사상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참되신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큰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조선 왕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선포하며 선한 싸움을 싸웠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므로 1877년부터 로스 등을 필두로 하여 여러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성경 번역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11년에는 신구약 성경인 성경전서가 출간되었고 그 뒤 1938년에 성경전서의 개정판인 성경개역이 출간되었으며 1961년도에는 성경개역의 개정판인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이하 개역성경)이 출간되었다.

한국에서는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장로교회가 가장 큰 그룹을 형성하였는데 장로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면서 주일 성수나 금연/금주 같은 규칙을 강하게 주장해 왔고 특히 성경에 관한 한 아주 보수적인 믿음을 고수해 왔다. 그 결과 그들은 개역성경에 단 한 점의 실수도 없음을 성도들에게 주지시켜 왔고 따라서 어떤 이가 행8:37 같이 전체 구절이 삭제된 사례를 들며 그 이유를 묻거나 혹은 너무나 명백하게 번역이 잘못된 부분을⁸⁵⁾ 지적하면 그 일을 형제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여겨 왔다.

한 마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개역성경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제대로 입을 열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려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성경의 보존과 번역에 대한 성도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나 교단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개역성경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었으며 이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에서 나와 프로테스탄트들의 교리와 실행에 문제를 안겨 준 성경, 많은 삭제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훼손된 성경, 문법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한 성경을 최종 권위라고 주장하며 100여 년을 버텨 왔으므로 이것으로 인해 신학, 교리, 실행 등의 문제가 매우 컸음도 부인할 수 없다.

킹제임스 성경 이슈

국내에서는 1611년에 영국에서 출간되어 영어의 발흥과 함께 전 세계적인 성경이

85) 이것에 대한 예로는 창1:2의 '하나님의 신'(the God of God)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이 되어야 한다.

되고 모든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며 수많은 신학 교재 및 일반 크리스천 교양서적의 근간이 되고 3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권위를 자랑하는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Bible, KJB)이 단지 문헌을 통해 ‘제임스 왕이 제정한 성경’ 즉 ‘흠정역 성경’으로 알려져 왔다. 그것은 영미 문학에 가장 큰 공헌을 끼치고⁸⁶⁾ 문장이 수려하며 보수적인 성경 정도로만 인식되었고 그것을 소장하여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까지는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사이에 큰 차이점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바로 그때에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주로 미국에서 출간된 문헌들을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과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신미국표준역(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같은 현대 역본들 사이에 엄청난 교리적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개역성경이나 공동번역 그리고 표준새번역 등의 한글 성경들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도 다른 현대 영어 역본들과 내용 면에서 거의 동일함을 알게 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학계나 관련 출판계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다.

실제로 미국 등의 영어권 국가에서 성경 논쟁이 일어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69-78년에 NIV가 출간되기 전까지 전 세계 영어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1611년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은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거룩한 성경’(Holy Bible)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1960-70년대 이후에 NIV, NASB, NKJV, Living Bible 등의 현대 역본들이 광고의 홍수 속에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면서 한결같이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였고 이것들의 맹공에 맞서기 위해 급기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NIV 등의 현대 역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1881년 영국에서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르트(F. J. A. Hort)⁸⁷⁾가

86)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와 영미 문학에 미친 공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참고로 가장 최근에 나온 두 개의 문헌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것은 Benson Bobrick의 『Wide As the Waters : The Story of the English Bible and the Revolution It Inspired』(Simon & Schuster, April 11, 2001)이다. 이 책은 위클리프로부터 시작되는 영어 성경의 역사를 잘 보여 주며 특히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에 대해 잘 설명한다. 둘째 것은 Alister Mcgrath의 『In the Beginning : The Story of the King James Bible and How It Changed a Nation, a Language, and a Culture』(Anchor, February 19, 2002)이다. 흥미 있는 것은 이 책의 저자가 NIV의 편집자 중 하나라는 점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킹제임스 성경이 미국과 미국말과 문화에 미친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두 책 모두 세속 출판사가 출간한 것이므로 읽을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제공하므로 가치가 있다. 이 두 책은 모두 www.amazon.com에서 구할 수 있다.

87) 영국 성공회 학자들인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하는 영국개역성경(English Revised Version)을 처음으로 출간한 장본인들이다. 이들은 성경을 믿지

전통적인 프로테스탄트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TR)을 대적하며 로마 카톨릭 천주교 사본에 근거한 영국개역성경(English Revised Version, ERV 혹은 짧게 RV)을 들고 나온 이래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성경 본문 논쟁이 늘 있어 왔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성경 본문 논쟁이 확산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성경 논쟁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공격과 변호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킹제임스 성경 논쟁은 마치 진화론 논쟁과 비슷하다.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보수주의 학자들이나 성도들은 이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지냈다. 그러다가 인본주의자들에 의한 맹공으로 인해 성경의 토대인 하나님의 특별 창조가 거의 무너질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경 신자들이 창조과학회 등의 사역을 통해 진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진화론은 이미 온 세상에 마치 과학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NIV 등의 현대 역본들이 나올 때에 미국에서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 문제로 인해 교회가 갈리고 교리의 문제가 발생하자 적극적으로 이에 대항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은 미국의 웬만한 크리스천 독자라면 성경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지만 이 같은 성경 본문 문제를 접할 기회는 거의 갖지 못하였다. 그들 역시 필자와 마찬가지로 여러 역본을 대하면서 본문은 같은데 단지 번역이 다를 뿐이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다. 한국 교회의 특성상 신학을 전공하려는 유학생이라면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주로 장로교와 감리교 신학교를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지하는 대로 미국에서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가장 인본적이므로 이런 신학교에서는 이미 현대 역본만을 사용하거나 혹은 현대 역본의 기초가 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그리스어 본문을 귀중히 여기므로 이런 데서 공부하는 경우 성경 문제 자체를 살펴볼 기회를 갖기 어렵다.

한편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미국에서는 침례교회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런 교회들에서는 어김없이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해 왔다. 따라서 성경 본문 논쟁도 실제로 침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침례교회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장로교, 감리교 등은 성경 본문 문제 등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 따라서 신학을 공부하려는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이 침례교 신학교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런 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므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한국에서도 뜻있는 성도들이 개역성경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차에 미국의 자료를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리려

않는 불신자들이었으며 이들이 로마 카톨릭 소수 사본을 근거로 만든 '수정 그리스어 본문'(Revised Greek text) 혹은 '비평본문'(Critical text)은 1881년 이후로 출간된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의 본문이 되고 있다.

노력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극단주의자들이 등장하여 “개역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개역성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야말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신약 교회이다.” 등과 같은 비합리적이고도 비논리적인 발언을 하며 안하무인격의 행동을 함으로써 킹제임스 성경의 명성과 권위는 하루아침에 땅에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한편 이런 현실과 성경 문제의 핵심이 성경 본문에 있음을 인식한 성경 신자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모든 단어를 보존해 주심을 확고히 믿는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바르게 번역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과 부담을 갖고 차근차근 일을 수행하여 2000년 8월에 ‘킹제임스 흠정역’이라는 우리말 성경을 펴냈고 꾸준히 교정 작업을 수행했다. 그리고 2011년에는 킹제임스 성경 반포 400주년을 맞아 ‘400주년 기념판 성경’을 출간하여 배급하고 있다.

이들의 부단한 노력과 인격적인 소통에 힘입어 현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는 한영대역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박사 성경, 개역성경/NIV 비교 성경 등을 출간하며 생명의 말씀사의 홈페이지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분류될 정도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⁸⁸⁾

새로운 기류의 형성

지난 10여 년에 걸쳐 개역성경에는 한 글자도 오류가 없다고 믿던 성도들에게도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개역성경이 일점일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왔고, 다들 개역성경이야말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였다. 그런데 변화의 물결은 바로 개역성경을 출판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왔다.

개역성경의 판권이 2011년에 만료되므로 판권에 따른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성서공회는 개역성경을 개정한 개역개정판을 새로 출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개역개정판의 판매를 위해 부득불 개역성경에는 오류가 많이 있었다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해야만 새로 나온 개역개정판은 그런 오류들을 수정한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책을 팔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는 그 동안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개역성경의 오류들을 스스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다.

물론 문법적인 오류들이 개역개정에 와서 개선되기도 하였지만 본문 면에서는 반대로 개선이 아니라 개악을 한 부분들도 적지 않다. 사실 본문 자체로 보면 전혀 달라지지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개역개정의 발표로 인해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어쩌면 성경은 절대 진리라는 전통적인 믿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이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었다. “그래, 성경도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

88) http://www.lifebook.co.kr/final/bibles/2010bible_main.html

는 부류가 있을 수 있다. 또는 “내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성경이 오류가 있었다니 정말 완전한 성경은 이 땅에 없는 것일까?”라고 고민을 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개역성경 및 개역개정 등을 좀 더 자세히 읽고 여러 역본들을 비교하면서 올바른 성경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후자의 부류에 속한 성도들이 인터넷 자료들과 책들을 비교/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어 갔고 이제는 “킹제임스 성경은 이단이다.” 라고 주장하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반가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성도들이 바른 성경이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의 표는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개정성경이 전혀 다른 내용을 기술한 것들을 몇 가지 요약해서 보여 준다.

〈내용이 전혀 다른 성경 구절들〉

개역/개정 등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19:26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시10:4-5	[사악한 자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잠26:22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 다	전1:14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
주께서...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 므로	사9:3	주께서...기쁨을 더하시는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 나무라	호10:1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암4:4	삼 년 뒤에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고
없음	막9:44,46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골2:18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 려 함이라	벧전2:2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욥기 19장 26절은 재림의 때에 있을 욥의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개역성경/NIV는 욥이 부활해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그는 분명히 27절에서 분명히 자기 눈으로 자기의 구속자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육체를 입고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확실히 맞는다.

개역성경/NIV는 아모스 4장 4절에서 삼 일마다 십일조를 드리라고 말한다. 이런 십일조가 성경에 있던 말인가? 성경은 세 종류의 십일조에 대해 말하면서 삼 년이 끝날 때에 드리는 십일조가 있음을 보여 주지 않는가?(신14:22-29)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지옥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지옥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도 지옥에 오기를 원치 않는 그분께서는 지옥의 실상을 강조해서 보여 주기 위해 마가복음 9장에서 3회에 걸쳐 지옥의 실상을 말씀해 주셨지만 개역성경/NIV의 편집자들은 44, 46절을 삭제함으로써 이 중에서 두 번을 숨기고 있다.

개역성경/NIV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말하면서 구원이 일생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로마 카톨릭 신학을 대변한다. 이런 구원은 성경에 없지 않는가? 바른 성경은 구원은 한 순간에 일어나고 그 뒤에는 성장한다고 말한다.

다음의 표는 개역성경/NIV에서 절 번호는 그대로 두고 내용을 완전히 삭제하고 '없음'이라고 처리한 신약 성경의 13구절을 보여 준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이들은 "예수님만 믿고 교회 생활 잘하면 된다."고 변명을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요14:23-24).

성경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그분의 말들이 우리 손에 있어야 한다. 그분의 말들이 우리 손에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가? 심지어 사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는가?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모든 단어가 담긴 성경이 우리 손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가진 사람이 빠르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개역성경/NIV가 삭제한 구절들〉

1	마17: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었다.
8	눅17:36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10	행8:37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다.
13	롬1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일5:7-8의 진실

개역성경: 5:8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킹제임스 흠정역: 5: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5:8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 개역성경은 요일5:7을 완전히 삭제하고 6절을 둘로 나누어 6절 후반부를 7절로 만들어 버림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⁸⁹⁾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성경 사본학과 학식의 깊이>와 <성경 번역 기법: 형식적 일치 vs 동적 일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 안에서 여러 유명한 미국 석학들의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소개하자 어떤 분들이 혹시 국내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분은 없느냐고 묻기에 오늘은 간단히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내 신학대학교의 명망 있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바른 사본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는 호주 목회자 키이쓰 파이퍼의 책을 이항로 박사님(미국 West Coast Baptist College 교수, <http://wcbc.edu/>)이 번역하고, 이기석 전 뉴저지 새순교회 목사님과 이광복 광신대 교수이자 환돌선교센터 원장님이 감수했으며, 전 총신대 및 대신대 총장 정성구 박사님이 추천한 책입니다.⁹⁰⁾

정성구 박사님은 총신대/대신대 총장을 역임한 분으로 장로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을 운영하시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만나 본 결과 정성구 박사님은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그들이 말한 성경은 루터, 칼빈, 틴데일의 뒤를 이어 제네바 성경 및 킹제임스 성경으로 완성된 종교개혁 성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성구 박사님의 추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기석 목사님으로부터 이 책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었습니다. 벌써 20여 년 전에 저는 뉴저지 주 새순교회에 목회하시던 이기석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 두 번이나 부흥 집회를 인도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는 전수 사본(Received manuscripts) 즉 공인(共認) 사본(Textus Receptus)에서 번역된 영어 성경만이 참된 성경이라고 힘주어 말했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이 공인(共認) 사본인 Textus Receptus에서 <킹제임스 성경>, <틴데일 성경>, <루터의 독일어 신약 성경>, 칼빈이 주도한 <올리베탕 프랑스어 신약 성경>, 또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이요, 청교도들의 성경이며 미국 건국의 성경이었던 <제네바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느 사본, 어느 역본으로, 어떤 신학적 입장에서 번역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네바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KJV)은 그 당시 종교개혁의 정신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 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정신 위에 [그리스어

89)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분들은 없는가?>, 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708

90) 네이버에서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를 치면 책 정보가 나온다.

본문인 공인(共認)역(TR)을 바탕으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의 영어 번역 성경들, 특히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신국제역)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면서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 뉴에이지, 로마 카톨릭 주의의 영향으로, 자유주의적인 인본주의 사상으로 성경 번역에 심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학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같은 이들이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본문을 재구성한 것을 철저히 믿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이단이며 가장 잘못된 사본을 사용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안목으로 번역을 해버린 그들은 도리어 기독교 신앙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이 책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키이쓰 파이퍼 저, 이황로 역)은 KJV와 NIV 등을 사본과 정확히 대조하면서 참된 번역과 잘못된 번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매우 학문적이며 사본학의 근원을 파헤치는 역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책이 신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목회자와 모든 신학생들에게 두루 읽혀져서 성경 교육과 설교에 크게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라면서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진 총신대, 대신대 총장 정성구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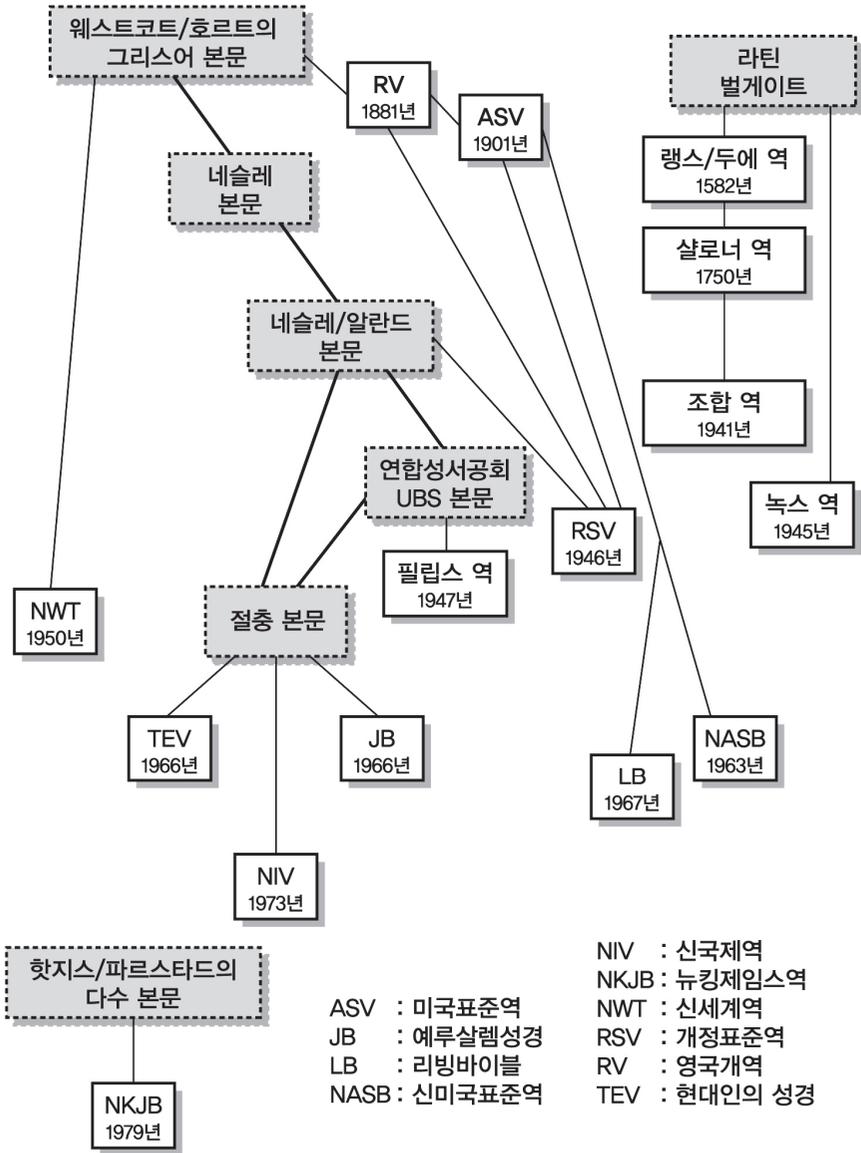
우리는 이 책을 추천하고 감수한 여러 명의 훌륭한 분들이 이단이라고 지목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수정한 본문, 그 뒤로 네슬레 알란드가 편집한 본문, 그리고 연합서성공회가 편집한 본문이 틀리고 공인 본문과 거기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만 옳다고 믿을 뿐입니다.⁹¹⁾

주님의 큰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샬롬

패스터 정동수

91)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문제점 1〉 http://keepbible.com/bbs/board_m.html?board_table=02_02&write_id=20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매직마커 1〉 http://keepbible.com/bbs/board_m.html?board_table=02_02&write_id=23
〈유명한 분들은 다 킹제임스 성경을 썼네요〉 http://www.cbck.org/bbs/board.html?board_table=spe&write_id=1270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본문과 현대 역본들〉

영어 킹제임스 성경 반포 400주년의 의미⁹²⁾

“루시퍼? 알긴 아는데 어디서 봤더라?”

전 세계로 한류 열풍이 불어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세계의 청소년들이 따라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따라합니다. 그중 ‘루시퍼’(Lucifer)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루시퍼가 사탄 마귀의 이름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우려를 합니다. 크리스천인 당신은 이것이 마귀의 이름인 것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펼쳐서 보여 주시겠다고요? 하지만 성경을 펼쳐도 마귀의 원래 이름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이름은 왜 흔히 보는 성경에 없는 것일까요? ‘루시퍼’라는 이름은 대체 어디에 기록돼 있을까요?

당신은 이 이름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들었습니다. 개역성경이나 현대 영어 성경에는 이 이름이 없습니다. 루시퍼 대신 ‘계명성’과 ‘morning star’ 등의 이름으로 대치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사14:12). 이는 루시퍼의 ‘빛을 나르는 자’라는 의미의 원 뜻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을 지칭한 ‘새벽별(morning star)’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요즘 ‘갈보리’(Calvary)라는 단어도 구경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 역시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이 역시 갈보리의 뜻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아주 애매하고 모호하며 읽기가 어렵고 주요 부분이 바뀌어 있거나 지워져 있습니다. 이단이 찾아와서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나오느냐?”고 따지면 어느 구절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 구절을 들어 조직 신학적으로 변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구절은 명확히 표현돼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킹제임스 성경으로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어딘가에서 들은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편견과 지식을 모두 접어놓고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의 출간과 성경의 역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의 시기를 나누는 중요 사건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1450년경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개발은 인류에게 보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1517년 가을의 종교개혁은 천주교와 개신교를 나누는 획기적인 혁명이 되었습니다.

92) <영어 킹제임스 성경 반포 400주년의 의미>, 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229

천주교라는 종교의 틀에 갇혀 암흑시대를 살던 중세의 민초들에게는 천 년 가까이 성경을 읽을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선조들은 일반인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사제들만 볼 수 있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자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백성들이 읽으면 성경에 역행한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틴데일(W. Tyndale)이라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화형을 당하기에 이르렀는데, 그가 화형 직전에 외친 말이 있었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왜 그랬을까요? 로마 카톨릭 교황의 하늘을 찌르는 권력 앞에 대항하여 성경을 번역할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국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번역자들의 이런 기도는 머지않아 이루어졌습니다. 제임스(James, 야고보) 1세는 40여 명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헬라이어) 능통한 학자들을 동원해 면밀하고 완벽하게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물론 틴데일 등의 성경은 이 과정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이로써 지금부터 정확히 400년 전인 1611년 5월 2일,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출간되어 영적 갈증을 호소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영어의 퍼져나감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갔으며 문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이 성경은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세상을 바꾼 책’으로 온 세상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개의 성경들이 100년도 안 되어 수십 번에 걸친 수천 곳의 개정을 실시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한 성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킹제임스 성경 반포 40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경위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전달 과정

인간의 생사화복과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분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계시(啓示)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사람에게 전달하시는 것을 뜻하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으로서 사람의 양심이나 해, 달, 별 등과 같은 자연 만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시19:1-6; 롬1:18-32). 사람이 일반 계시를 통해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 수 있지만 이런 계시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 계시에는 하나님의 말씀, 기적, 우림과 뉘뉘, 천사, 예수 그리스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객관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며 그 외의 것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의 크고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주전(主前) 1500년부터 주후(主後) 100년까지 약 1,600년의 기간에 40여 명의 거룩한 사람들을 예비하셨으며 이 과정 속에는 왕, 정치가, 제사장, 세리, 어부, 의사, 목자, 사도 등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손 밑에서 완전한 성경을 기록하였으며 우리는 이를 ‘예비’(豫備)의 단계라 부릅니다.

이처럼 기록자들을 예비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시기에 ‘영감’(靈感)이라는 단계를 통해 이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딤후3:16)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감이란 말은 ‘숨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성경은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벧후1:21)고 확실하게 정의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한 단어 한 단어에 숨을 불어넣으신 책이며 우리는 이것을 ‘총체적 축자 영감’(Verbal plenary inspiration)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자필 원본(自筆 原本)이라 불리는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보존’(保存)이라는 단계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어마다 친히 숨을 불어넣으셔서 완전하게 만드시고는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보존하지 않으신다면 영감의 단계가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따라서 ‘완전한 보존’이 없는 ‘완전한 영감’이란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의 속성 역시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감이라는 기적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자신의 섭리에 따라 보존하셨습니다.

말씀의 보존에 대하여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사40:8)고 확언하며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고 말씀하심으로 말씀의 보존을 확증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대부분의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셨으며,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신약 성경 전체를 그 당시 세계의 공통어였던 그리스어로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보존의 단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완전한 일을 행하셨고 바로 이 단계를 통해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경로에서 그다음 단계는 ‘번역’(翻譯)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후 100년 이후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고 그 결과 수많은 역본(譯本)이 출현하였습니다. 성경의 영감과 보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번역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

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 넓은 세상 곳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기록된 지필 원본 성경이 아니라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번역의 단계 역시 영감이나 보존의 단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번역을 위한 대본(臺本)입니다. 지필 원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을 필사(筆寫)한 사본(寫本)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것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사본들을 정리하여 번역을 위한 대본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렇게 정리된 대본을 우리는 본문(本文)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볼 때 성경 번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번역을 위한 본문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라는 점입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든지 그것을 찍어 내는 틀이 어떠한가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역본 역시 본문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내용이 필연적으로 달라집니다.

성경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대본

구약 성경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소명 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이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벤 카임 마소라 본문’(Ben Chayyim Masoretic Text)이라 하는 ‘전통 마소라 본문’을 보존하였기 때문에 20세기 초까지 이 본문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Version, KJV)의 구약은 바로 이 본문에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1906년에 키텔(Rudolph Kittel)은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을 사용하여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Kittel, BHK)라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편찬하면서 비평 장치라 불리는 각주들을 이용해 ‘전통 마소라 본문’을 페이지마다 15~20 군데씩 수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각주들은 신실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벤 아셰르 마소라 본문’(Ben Asher Masoretic Text)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1929년에 키텔이 죽은 뒤 칼레(Paul. E. Kahle)는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본문을 전격적으로 ‘벤 아셰르 마소라 본문’으로 바꾸고는 키텔의 이름을 붙여서 1937년에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3판을 출간하였습니다. 키텔의 작품이 아님에도 보통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HK) 3판으로 불리는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마침내 1967/1977년판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로 개정 출간되었습니다. 이 같은 본문 교체는 구약 성경에서 약 20,000 군데가 수정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NIV)과 ‘신미국표준역’(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ASB) 등 거의 모든 현대 역본들의 구약 성경 본문이 「BHS」이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 교체 영향이 그 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마소라 본문이라 해도 다 동일하지 않으므로 어느 마소라 본문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구약 성경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본문은 그리스어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인데 이 본문의 특징은 신약 교회가 거의 1,900년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며 그 내용이 전혀 변화가 없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다수 사본에 근거했기에 ‘다수 본문’이라고도 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었기에 ‘보편적 본문’이라고도 하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서방 본문’과 대비되어 ‘비잔틴 (혹은 동방) 본문’이라고 하고, 루터와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같이 이 본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개혁 본문’이라고도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들과 침례교인들이 한결같이 ‘공인 본문’만을 사용해 온 것과는 달리 로마 카톨릭 교회는 처음부터 ‘소수 본문’만을 고집해 오고 있습니다. ‘소수 본문’이라는 호칭이 의미하듯이 이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은 소수이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및 신성, 대신 속죄, 삼위일체 등에 대한 오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본들 중 가장 유명한 것들로는 로마 교황청 도서관에 보존되어 온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수도원에서 발견된 ‘시내 사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본에 근거해서 1881년에 영국의 웨스트코트(Brooke F. Westcott)와 호르트(Fenton J. Hort)는 ‘공인 본문’을 5,604 군데나 수정하여 ‘비평 본문’(Critical text)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공인 본문’에서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바꾼 단어는 9,970개이며 이것은 신약 성경 본문에 나오는 140,521개 그리스 단어의 7%에 해당합니다.

1898년에 독일의 네슬레(Eberhard Nestle)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티센도르프(Constantin von Tischendorf) 그리고 위마우스(Richard F. Weymouth)의 그리스어 본문을 조합하여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하였습니다. 그 뒤 네슬레의 본문은 27회 개정을 거쳐 현재는 「네슬레/알란드 그리스어 신약 성경」(28판, 2012년)으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의 알란드(Kurt Aland)는 1952년부터 네슬레의 본문(21판)을 수정하기 시작했고 1975년에 연합 성서 공회(United Bible Society)는 알란드가 제출한 네슬레의 본문을 「그리스어 신약 성경」(3판)으로 채택하였으며 2014년에는 5판을 출간하였습니다. 대다수 현대 역본들의 신약 성경은 예외 없이 천주교 소수 본문에서 나온 네슬레의 그리스어 본문에 근거하여 번역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 역본들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상이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새로운 역본으로 인한 새로운 기독교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수백 가지 역본이 출현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물건을 고르듯 자기 뜻에 맞는 역본을 선정하고 여러 역본을 비치한 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이 구절은 이 역본이 좋고 저 구절은 저 역본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자신의 말씀의 보존과 전파를 위해 공통 언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현시대의 특성을 들 수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과 공헌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군에 의해 무참히 패배를 당한 뒤 보잘것없던 섬나라 영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국과 미국이라는 두 국가를 통해 두 가지 일 즉 자신의 선민인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일과 자신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수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영국을 통해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합쳐진 성경전서가 출간되었고,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지배하의 암흑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빛이 나오게 되었으며, 산업 혁명 등을 통해 인류의 복지 증진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어 중심의 세계 판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어 이제는 영어가 세계 공통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공홀이 풍성하셔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난 400년간, 세계의 공통어가 된 영어를 사용하여 전 세계에 말씀을 전파해 오셨고 이를 위해 영어로 기록된 ‘킹제임스 성경’을 말씀의 표준 척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이 있었지만 보통 사람들이 읽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권위역’(Authorized Version, AV)이라는 호칭을 부여받은 킹제임스 성경만이 영미권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수많은 민족들이 사용하는 수백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18, 19세기 미국 및 영국의 부흥과 세계 복음 전파에 독점적으로 사용되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였으며 모든 책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The Holy Bible)이라 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에 대해 「톰슨대역 한영성경」 편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며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 점에 있어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톰슨대역 한영성경, 기독지혜사, 부록 1, 4쪽, 1989).

21세기의 성경 전성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으며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행위와 무관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믿을 터인데 사실 이 같은 믿음의 근거는 단 하나 즉 ‘기록된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영과 육에 속한 모든 활동의 표준 척도이며 따라서 이런 표준 척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논쟁이 크리스천들 간에 뜨겁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백 종이 넘는 책들이 ‘성경’이란 이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1993년 말에 미국성서공회는 「새 시대를 위한 좋은 소식」(Good News For A New Age)이라는 뉴에이지 성경마저 출판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특징

이처럼 상대적 윤리가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여 년 동안 단 한 번의 개정 없이 신학과 말씀 선포에서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의 표준 척도가 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에 NIV가 나오기 전까지 영미 세상에서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단 하나의 Holy Bible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원어(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그리스어 공인 본문)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현대 역본들과 달리 단 한 구절도 빠진 데가 없이 완벽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웨슬리, 스펀전, 무디, 로이드 존스 등 권능의 사역자들이 사용한, 유일한 복음 선포의 도구였습니다.
- 전 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2011년 4월경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미국에 미친 공헌’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역시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를 형성하는 데 미친 혁혁한 공로를 치하하는 연설을 하였고 영국에서는 기념우표도 발간되었습니다.

국내의 킹제임스 성경 현황

킹제임스 성경이 학자들과 성도들 모두가 공인하는 최고의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개역성경을 쓰던 그룹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킹제임스 성경은 이단 성경’이라는 소문을 교계에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런 소문을 듣고 ‘킹제임스 성경은 이단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성경의 진실을 아는 ‘양식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매료되어 돌아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여 년 전부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내리는 시도가 있었고 특히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는 약 8년의 번역을 거쳐 2000년 8월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였습니다. 그 뒤로 네 번의 교정을 거치면서 2011년 8월에는 ‘400주년 기념판’을 출간하였고 2021년에는 마제스티 에디션을 출간하였습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하여 ‘없음’으로 표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 루시퍼와 갈보리 등의 단어들에 살아 있으며 천국, 지옥, 삼위일체 등의 교리가 명확합니다.
- 우리말 어법에 충실하게 옮겨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그대로 유지되어 감동이 살아 있습니다.
- 정확한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시켰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이 반영되어 원어와 영어의 감동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 론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자신의 말씀들(단어들)을 보존해 주심을 믿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보게 해주는 살아 있는 빛입니다. 이 성경은 지난 400년 동안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손에 쥐면 여러분은 원어의 말씀들 그 자체를 순수하게 완벽하게 보존된 영어로 보게 됩니다.

올해(2011년)로 400주년을 맞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앞으로 국내에서도 잘 정착되고 학자들과 성도들 모두의 사랑을 받는 성경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세 카톨릭 암흑시대에 영적으로 고통당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영혼을 밝히 비취준 그 성경이 이제 21세기를 맞고 있는 한국 땅에서도 성령님과 양심의 부르심을 따라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개정 신화

1611년에 탄생된 흠정역 성경의 권위를 심하게 흔들려는 비평가들의 최후 배수진 가운데 하나는 소위 개정(改正)이라는 것으로 시비를 삼아 장난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대적들 곧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 역사적 사실과 사본학적 증거와 성령님께서 이루신 명백한 증거들을 들이대며 자기들의 빈약한 주장을 뒤엎어 버리자 궁극적인 패배를 맞보지 않으려고 그럴듯해 보이는 이 요새로 도피한다. 일단 이 요새 안에 들어서면 그들은 자기들의 대적들에 대해 자신만만해하고 다음과 같이 묻는다.

여러분은 어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십니까? 1611년 판입니까, 1629년 판입니까? 아니면 1769년 판입니까?

이 같은 공격에 대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 충격을 받고 잠시 어리둥절해하면 그들은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재빨리 도망쳐 버린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기들의 성안에 들어가 성문을 걸어 닫는 순간 그들은 자기들의 요새가 리건(David F. Reagan) 박사라는 사람에 의해 이미 조직적으로 파괴되어 완전히 허물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리건 박사는 미국 테네시 주 낙스빌에 있는 트리니티 침례교회의 목사이다. 그는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초기 개정 신화(The King James Version of 1611, The Myth of Early Revisions)라는 책자를 저술하여 킹제임스 성경의 초기 수정판에 얽힌 신화 즉 꾸며 낸 이야기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폭로했다. 다시 말해 리건 박사는 흠정역 성경 비평가들의 마지막 피난처를 파괴시키는 일을 훌륭히 수행해 냈던 것이다. 이에 필자는 그가 발견한 것을 보다 개선시키려 애써야 할 이유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으므로 그의 허가를 얻어 그의 소책자 전편을 여기에 소개하는 바이다.

1611년 흠정역 성경의 초기 개정 신화

마귀가 처음 이브에게 '속임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방법'(고후4:2)을 가르쳐 준 이래로 사람들은 줄곧 이 방법을 사용해 왔다. 가인으로부터 발람에 이르기까지, 여후디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이르기까지, 중세 암흑시대 신학자들로부터 오늘날의 인본주의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은 사람들의 부패한 손이 노리는 제1의 표적물이 되어 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은 대개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첨가, 삭제, 그리고 바꿔치기가 바로 그것이다. 아담 시대로부터 컴퓨터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전략은 변치 않고 동일하며 사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최근 들어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마귀의 공략 방법 중 하나는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곧 1611년 판 흠정역 성경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 그 공격의 내용은 흠정역 성경이 이미 네 차례나 개정되었으므로 다른 개정 성경들에 대한 반대론은 타당치 않으며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는 꾸며 낸 이야기 즉 신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신화는 1881년에 나온 영국개역성경 번역자들이 이미 사용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자신들의 최신 번역판 성경을 팔려는 근본주의 학자들의 불순한 동기에 의해 부활되었다. 이 소책자는 이러한 공격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다. 본 자료의 목적은 성경 보존을 부인하는 자들을 깨우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이들의 집요한 공격에 답변할 때 늘 문제점이 하나 생긴다.

과연 비평가들에게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대답해야만 하는가?

만약 영어 성경의 무오류성에 대한 천박한 질문들에 일일이 답하고자 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어느 곳에서도 공정성(公正性)이 득세하기 마련이며 항상 그렇듯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이다. 잠언 26장 4-5절은 이렇게 말한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될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분명한 것은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 그것을 무시해야 할 때가 있고 그것에 답해야 할 때가 있다는 점이다. 어떤 공격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당신을 상대방과 동일하게 미련한 존재로 만든다면 그런 질문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 최상의 답이 될 것이다. 가령,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다는 아무개가 이혼을 했으므로 성경은 무오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누가 해 온다면 이 경우에 여러분은 침묵이 최상의 답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사실 여부에 따라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문제나 질문이 제기될 경우 이것을 회피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성경 공격자는 자기의 기만 속에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우쭐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매우 좋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나는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 여부를 다루는 문제가 둘째 종류의 문제라고 믿는다. 만일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이 네 차례의 중대한 개정 작업을 거친 것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영어 본문에 기초해서 진전되고 있는 성경 개정 작업에 반대하는 것은 실로 그릇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공격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이 책을 쓴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독자께서는 본 부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흠정역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1. 1611년 당시의 인쇄술

만일 하나님께서 주후 1611년에 흠정역 성경을 통해 영어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다면(사실이 그렇다), 우리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 성경이 무오류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 근거가 번역자들의 필기 자료일까? 혹은 인쇄공들에게 보낸 교정쇄일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된다면 이러한 종이 뭉치들은 이미 소실되고 없기 때문에 우리의 권위도 근거를 잃고 만다.

어떤 분은 인쇄기에서 맨 처음 찍혀 나온 책에 권위가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책 또한 분명히 지상에서 사라지고 없다. 사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 당시의 인쇄 작업 방식에 따라 인쇄되었더라면 맨 처음에 인쇄된 책은 인쇄 상태가 좋지 못했음에 틀림이 없으므로 폐기 처분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첫 번째 인쇄할 때 만들어진 책들 중에서 남은 것들 밖에 없으며 사실 이렇게 남아 있는 책들은 다른 모든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는 표준으로서 종종 지목되곤 한다. 그런데 정말로 이 책들이 표준이 될까? 초판을 찍어 냈던 초기의 인쇄공들이 인쇄 실수를 하지 않으리란 법이 있단 말인가?

이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우리가 현재 손에 들고 있는 '보존된 영어 성경 본문'에 대한 권위는 '사람이 만든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점이다. 인쇄공들의 실수로 틀린 데나 고친 데가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본문이 망쳐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사람들은 많은 실수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늘 틀리고 실수하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엄청난 능력과 사랑으로 확실하게 자신의 성경 본문을 보존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1611년 당시 인쇄공들의 고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으로 인쇄하기 161년 전인 1450년경에 독일의 요한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기는 했지만,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인쇄할 때 인쇄공들이 사용하던 장비는 인쇄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에 비해 거의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인쇄는 여전히 느리고 어려웠다. 모든 활자를 한 번에 한 글자씩 손으로 조판하였으니 -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한 글자씩 조판했음 - 어떤 책에서도 인쇄공에 의한 실수들은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1611년에 흠정역 성경 첫 판을 인쇄했던 인쇄공들은 참조할 수 있는 이전 판조차 없었기 때문에 흠정역 성경 초판에는 여러 가지 인쇄상의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런 실수들은 결코 현대 성경 역본 편집자들이 자의적으로 행한 본문 교체와 같은 것이 아니며 단지 단순한 인쇄상의 실수들로서 심지어 현대화된 인쇄기의 이점을 모두 살려 만든 최근의 현대 성경 역본에서조차 이따금씩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쇄상의 실수였던 것이다. 비록 이런 실수들이 성경을 무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후기 판에서는 이런 것들을 마땅히 정정(訂定)해야 했다.

현존하는 두 개의 흠정역 성경 인쇄 원본은 1611년 당시에 인쇄상의 실수 없이

성경을 인쇄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음을 잘 보여 준다. 이 두 판본들은 옥스퍼드에서 인쇄되었고 둘 다 같은 해인 1611년에 인쇄되었다. 즉 같은 해에 두 번 출판되었던 것이다. 동일한 인쇄공들이 일을 했고 동일한 인쇄기로 인쇄를 했다. 그러나 이 두 판본을 엄밀히 비교해 보면 본문들 간에 대략 100여 개의 인쇄상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비평가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출판되어 온 지난 400여 년 동안 소위 네 번의 개정 작업이 있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그 결과 본문상의 변화로 간주할 수 있는 약 400여 군데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억측을 부린다. 분명히 학자들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무엇인가가 심히 부패되어 있다! 자, 이제부터 이들이 주장하는 소위 킹제임스 성경 본문상의 개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검토해 보자.

2. 1611년 판 KJV가 네 차례 개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여기서 언급하는 자료의 상당 부분은 유명한 성경학자 스크리브너(F. H. A. Scrivener)가 ‘권위역 영어 성경(1611), 그 이후의 재판(再版)과 현대판들’(The Authorized Edition of the English Bible(1611), Its Subsequent Reprints and Modern Representatives)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책은 그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매우 학자 티를 내는 책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1884년에 이 책을 출판한 스크리브너가 1881년도 영어개역성경을 만든 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그는 흠정역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의 책은 흠정역 성경을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흠정역 성경의 개정’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스크리브너 책의 첫 부분에 들어 있는 상세한 기록은 참으로 놀랄 만하다.

소위 처음에 흠정역 성경을 두 번이나 대거 개정했다는 것은 원판이 인쇄되고 난 뒤 27년 안에 일어났다. 독자께서 아셔야 할 것은 그 당시에 영어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케임브리지에서 인쇄된 1629년 판 흠정역 성경이 첫째 개정판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개정’(revision)이 아니라 단순히 초기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성껏 고친 ‘교정’(correction)이었을 뿐이다. 1629년 판은 킹제임스 성경 원판이 번역된 지 18년 후에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맡았던 워드 박사(Dr. Samuel Ward)와 보이스 박사(Dr. John Bois) 두 사람이 그 판의 인쇄에 직접 참여했다. 원래 번역을 맡았던 이 두 사람보다 더 초기의 실수들을 잘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그로부터 9년이 지난 뒤에 다시 케임브리지에서 소위 ‘둘째 개정’이라 부르는 또 다른 판이 나왔다. 그 때까지 워드와 보이스 박사 모두 살아 있었지만 이때 그들이 그 일에 참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1881년의 영어개역성경 편집에 직접 참여했던 스크리브너조차 케임브리지 인쇄공들이 한 것은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으로 인쇄되었을 때 인쇄공들의 실수로 빠진 단어나 절을 원래대로 하고 명백한 인쇄상의 실수들을 교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시인하였다는 점이다.

뒤에 자세히 기술하게 되겠지만 그 연구에 따르면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서 약 400 여 군데 교정된 것 중 72%가 원판이 인쇄된 지 27년 만인 1638년의 케임브리지 판에서 완료되었다. 그러므로 소위 ‘처음 두 차례의 개정’이라 불리는 것은 사실 초기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화하기 위한, 두 단계로 구성된 하나의 교정 공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소위 ‘마지막 두 차례의 개정’이라 불리는 것들도 철자의 표준화에 필요한 두 단계로 구성된 또 다른 하나의 교정 공정이었다. 이 두 단계 교정 공정의 판들 중 처음 것은 1762년에 시작되어 7년의 기간을 거쳐 완성이 되었고 둘째 것은 1769년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인본주의 학자들이 교정판에 번호를 매길 때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더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둘째 공정에서는 본문 교정이 거의 필요치 않았다. 소위 ‘수천 개의 변화’(changes)라 불리는 것들은 이미 확립된 정확한 본문에다 철자가 변함에 따른 형태 맞추기 작업에 불과했다. 즉 철자상의 변화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철자상의 변화는 뒤에 논의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네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는 것이 한낱 기만행위요, 머릿속에서 지어낸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도록 하자.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많은 적든 간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런 변화들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3. 소위 ‘수천 개의 변화’라는 것에 대하여

누군가가 킹제임스 성경의 최초 인쇄 원본을 보여 주기 위해 여러분을 박물관으로 데리고 갔다고 가정해 보자. 분명히 여러분은 성경이 전시되어 있는 유리 상자로 가서 유리를 통해 펼쳐져 있는 성경을 들여다볼 것이다. 비록 책장을 넘겨보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성경이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매우 많이 다르다는 것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그 안의 단어들을 거의 읽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낱말들조차도 아주 이상하게 쓰여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이전의 관람객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1611년 원판이 인쇄된 이래로 킹제임스 성경도 수많은 변화를 겪었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 여러분은 지금 단지 매우 교활한 책략에 의해 조롱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보았던 그 차이들은 실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 증거를 조사해 보도록 하자.

- 인쇄상의 변화들(Printing Changes)

엄밀한 검토를 위해 변화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인쇄상의 변화들’, ‘철자상의

변화들’, ‘본문상의 변화들’.

먼저 ‘인쇄상의 변화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611년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사용했던 활자체는 고딕 활자체였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에 나오는 영어 단어들의 활자체는 아마도 로마체나 타임즈 로마체일 것이다. 고딕체는 때때로 그것이 독일에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독일체라고도 부른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인쇄기가 발명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고딕체는 중세기에 손으로 작성한 필사본의 글씨체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으며 처음에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사용되었다. 로마체는 꽤 일찍 발명되기는 했지만 유럽 전역에 걸쳐 가장 유력한 인쇄체가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러야 했다. 고딕체는 최근까지도 독일에서 계속 사용되어 왔다. 1611년 당시 영국에서는 로마체가 이미 대중화되었고 곧 고딕체를 앞지를 전망이다. 그렇지만 원판 인쇄공들은 고딕체가 로마체보다 더 아름답고 표현 능력이 더 풍부하다고 생각했기에 고딕체를 선택했다.

〈고딕체와 로마체 비교〉

고 딕 체	로 마 체
<p>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b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p>	<p>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p>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체로 바꾸어야 했고 마침내 1612년에 로마체를 사용한 첫 킹제임스 성경이 인쇄되어 나왔다. 그로부터 몇 년 내에 인쇄된 성경들은 모두 로마체를 사용했다. 활자체의 변화는 글씨의 형태나 크기를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성경의 본문을 고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그렇지만 고딕체에 친숙하지 못한 현대 독자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형태상의 일반적인 몇몇 변화 외에도 몇 개의 특별한 글자의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딕체 s는 대문자로 사용되거나 혹은 단어의 끝에 사용될 때 마치 로마체의 s처럼 보여 문제가 별로 없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나 단어의 중간에서 소문자 s로 쓰일 때는 마치 f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also는 alfo가 되고, set는 fet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변화는 독일체 v와 u에서 발견된다. 고딕체 u가 로마체 v처럼 보이는 반면에 고딕체 v는 로마체 u처럼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w를 ‘더블비’라 하지 않고 ‘더블유’라고 부르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좀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익숙해지면 괜찮다. 따라서 1611년 판을 보면 love는 loue로, us는 vs로, 그리고 ever는 euer로 쓰여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철자상의 변화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것은 단순히 활자체의 변화일 뿐이다.

또 다른 예로, 고딕체 j는 i처럼 보인다. 그래서 Jesus(예수)는 Iefus(중간의 s가 f로 변했음에 유의하라)가 되고, joy는 ioy가 된다. 심지어 고딕체 d의 굽은 종선이 뒤에서 원으로 굴러지면 그리스어 델타(δ)와 비슷하게 된다. 이런 철자상의 변화들이 소위 킹제임스 성경이 안고 있는 ‘수천 개의 변화’라고 불리는 것들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코 본문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다. 이것들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이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어 두려고 사용하는 연막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 철자상의 변화들(Spelling Changes)

흠정역 성경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종류의 변화는 정서법(orthography) 또는 철자상의 변화이다. 대부분의 역사 학자들은 현대 영어가 150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611년경에는 현대 영어의 기본 단어들과 문법적 구조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철자는 그 당시까지도 확립되지 않았다. 사실 1600년대의 철자는 매우 변덕스러웠다. 정확한 철자 같은 것은 아직 없었고 잘 확립된 어떤 철자 규정 같은 것도 없었다. 어떤 작가들은 종종 같은 책에서, 때로는 같은 페이지에서조차도 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교육받은 사람들이었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1600년대가 철자 표기의 천국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18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단어들의 철자가 정해진 형태를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18세기 후반에 1611년 흠정역 성경의 철자도 표준화되었던 것이다.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과 1611년의 인쇄본 사이에 어떤 종류의 철자 변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철자의 차이점을 목록화할 수는 없을지라도 몇 가지 특징은 상당히 공통성을 띠고 있다. 부가적으로 들어간 e들은 종종 feare, darke 그리고 beare 같이 단어들의 끝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중 모음은 오늘날보다도 더 일반적이었다. 여러분은 me, be 그리고 moved 대신에 mee, bee 그리고 mooued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자음은 더욱 흔한 것이었다. ranne, euill 그리고 ftarres는 오늘날의 철자법에 따르면 어떤 단어가 될까?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지 시도해 보기 바란다. 그것들은 오늘날 철자법에 따르자면, ran, evil 그리고 stars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인쇄상의 그리고 철자상의 변화들이야말로 킹제임스 성경 안에 있는 소위 ‘수천 개의 변화’라고 불리는 것들의 대부분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 중 그 어느 것도 어떤 식으로도 결코 본문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솔직히 현시대에 천주교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들에서 공공연하게 만들거나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본문 변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다.

● 본문상의 변화들(Textual Changes)

킹제임스 성경도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개정의 예로 제시하는 대부분의 변화들에 대해서는 위에서 충분히 해명을 했다. 이제부터 1611년 흠정역 성경의 본문과 현재 발간되고 있는 흠정역 성경 본문 사이에 실제로 본문상의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물론 이 두 개의 본문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들은 결코 개정에 의한 변화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대개 초기의 인쇄 실수들을 정정한 것일 뿐이다. 이것이 사실임을 세 가지로 입증해 보일 수 있다: (1) 변화들의 특성, (2) 성경 전체를 통한 변화들의 빈도, (3) 이런 변화들이 생긴 때.

먼저 영어 흠정역 성경이 처음으로 인쇄되던 때부터 생겨난 변화들의 특성을 알아보고 하자. 1611년 판 본문으로부터의 변화들이라고 간주되는 것들은 이런 변화들의 특성들을 고려해 볼 때 분명히 인쇄상의 실수였다. 그것들은 절대로 성경 말씀의 해석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본문의 변화가 아니다. 처음 인쇄를 할 때 어떤 단어들은 때때로 뒤집어졌다. 때때로 복수가 단수로 쓰이기도 하고 단수가 복수로 쓰이기도 했다. 때로는 어떤 단어 대신에 그와 비슷한 다른 단어가 대신 들어가 잘못 쓰이기도 했다. 드물게는 한 단어 혹은 심지어 한 절이 삭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생략된 것들은 너무나 명백했으며 현대 번역판 성경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리적 차이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진실로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서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정한 것과 오늘날의 많은 인본주의 학자들이 정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스크리브너는 자신의 책의 부록에서 '1611년 KJV 판'과 '후기 인쇄본들' 간의 변형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나는 다음의 표에 이렇게 정정된 것들의 예를 실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예들은 스크리브너의 저서의 왼쪽 페이지에 나오는 첫째 정정 사항을 연속적으로 취한 것이다. 먼저 '1611년 원본'의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의 본문'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처음 정정된 연도가 기록되어 있다. 지금 여러분은 지난 375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생긴 변화들 중 5%를 보았다. 보아서 금방 판단하겠지만 이것들은 현대 역본들의 본문 변경(alterations)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사실상 인쇄상 실수들을 정정한 것이었고, 그래서 현대판 성경들의 본문 변경과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다음 표의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 그러면 심각한 교리적 차이를 지닌 것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실 스크리브너의 부록 전체를 살펴볼 때 그것이야말로 그가 교리의 변경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변경 사항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는'(Seek God)이라고 해야 할 곳에서 '선(善)을 찾는'(Seek good)이라고 한 1611년 판 흠정역 성경의 시편 69편 32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표의 10번). 그러나 이것조차도 정말로 인쇄상의 실수였음을 두 가지로 증명할 수 있다. 첫째로, good과 God의 철자가 유사하다는 점은 피곤한 식자공이 교정쇄를 잘못 읽어 본문에 틀린 단어를 찍을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둘째로 이 실수는 너무도 명백해서 원판이 인쇄된 지 6년 후인 그리고 소위 ‘첫째 개정’이라 불리는 것이 나오기도 전인 1617년에 이미 제대로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1611년 흠정역 성경 본문에 여러 차례의 주요한 개정 작업이 있었다는 신화가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으나, 아직도 조금 더 설명할 것이 남아 있다. 변화들의 특성은 이런 것들이 인쇄상의 실수들이었음을 보여 주며 또한 변화의 빈도 역시 이 사실을 입증한다. 인본주의 학자들은 1611년 판에 만들어진 수천 개의 개정 사항이 마치 최근의 현대 성경 역본들에서 발견되는 수천 개의 개정 사항과 동등한 것인 양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소위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수천 개의 개정’이라 불리는 것들의 대부분은 활자체 또는 철자상의 변화였다. 그 밖의 것들은 분명히 지루했던 초기의 인쇄 공정에 따라 생긴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정한 것이었다.

〈1611년 판과 현재 출간되는 KJV 비교〉

번호	1611년 원본 본문	현재 본문	년도
1	this thing	this thing also	1638
2	shalt have remained	ye shall have remained	1762
3	Achzib, nor Helbath, nor Aphik	of Achzib, nor of Helbath, nor of Aphik	1762
4	requite good	requite me good	1629
5	this book of the Covenant	the book of this covenant	1629
6	chief rulers	chief ruler	1629
7	And Parbar	At Parbar	1638
8	For this cause	And for this cause	1638
9	For the King had appointed	for so the king had appointed	1629
10	Seek good	seek God	1617
11	The cormorant	But the cormorant	1629
12	returned	turned	1769
13	a fiery furnace	a burning fiery furnace	1638
14	The crowned	Thy crowned	1629
15	thy right doeth	thy right hand doeth	1613
16	the wayes side	the way side	1743
17	which was a Jew	which was a Jewess	1629
18	the city	the city of the Damascenes	1629
19	now and ever	both now and ever	1638
20	which was of our father's	which was our fathers	1616

위에 제시한 목록의 표본은 스크리브너가 얼마나 꼼꼼하게 모든 변형들을 목록으로 만들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그러나 이렇게 꼼꼼한 학자가 대단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1611년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 킹제임스 성경 간에는 단지 400여 개의 차이밖에 없음을 기억하기 바라며 또한 이런 차이점마저도 인쇄상의 실수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1611년에 인쇄된 두 개의 옥스퍼드 판 사이에도 인쇄상의 실수로 서로 100여 개의 차이가 있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성경이 대략 1,200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1611년 판과 현재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판과 비교하면 1장당 평균 변형은 0.33개로서 이는 3장당 1개꼴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것들은 ‘chief rulers’를 ‘chief ruler’로 ‘And Parbar’를 ‘At Parbar’로 고치는 것과 같은 변화들이었다.

이러한 변형들이 단순히 인쇄상의 실수들을 고친 것이라는 증거가 하나 더 남아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것들을 인쇄한 후 매우 빠른 시기에 모두 정정했다는 점이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 변화상의 특성과 빈도는 현대 역본들의 본문 변경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 시기 자체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다. 400여 개의 정정 사항 중 대다수는 원판이 인쇄되고 난 후 몇 년 내에 이루어졌다. 그 예로 위의 수정 사항 목록을 다시 한 번 보기 바란다. 20개의 정정 사항 중 1개는 1613년에, 또 1개는 1616년에, 또 1617년에, 8개는 1629년에, 5개는 1638년에, 1개는 1743년에, 2개는 1762년에, 1개는 1769년에 정정되었다. 따라서 20개의 정정 사항 중 16개 즉 80%가 1611년의 초판 인쇄 후 27년 내에 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이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위 ‘킹제임스 성경 개정 작업’이란 것은 결코 오랫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스크리브너 책의 부록의 다른 페이지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킹제임스 성경 본문 정정 사항의 72%가 1638년경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킹제임스 성경 개정에 대한 시비는 있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하지만 킹제임스 성경 본문 변화는 명백히 인쇄상의 실수에 대한 것뿐이다. 본문 변화의 빈도는 세 페이지당 한 번꼴로 드문드문 일어났으며 본문의 인쇄상 실수들의 75%가 처음 인쇄된 지 27년 내에 정정되었다. 이런 모든 세부 사항은 지난 400년간 킹제임스 성경에는 번역상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언어를 현대화시킨다는 의미의 진정한 개정 작업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 개정판이 있었다면, 초기 식자 공정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준 판본이 있을 뿐이다.

1611년 흠정역 성경의 정확한 본문 - 단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 에 대한 권위는 결코 현존하는 초판 원본에 있지 않다. 우리가 현재 손에 들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한 본문에 대한 권위는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에 있다. 우리가 자필 원본이라는 것에 대해 입씨름하며 서로 다투게 될까 봐 자필 원본을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역본 성경의 교정쇄 원본을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셨다. 우리의 권위는, 항상 그러하였듯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의 목적은 결코 현대 역본 성경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진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의 목적은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하여 근본주의 집단 내에 맴돌고 있는 그릇된 주장 즉 학자들이 부풀려 놓은 거짓 신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 주려는 것이다. 그 신화는 다름이 아니라 뉴킹제임스 역본 및 기타 그와 유사한 역본들이 1611년 이래로 꾸준히 이루어진 킹제임스 성경 개정판의 연장선상에 있는 또 다른 개정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론은 곧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본문상의 개정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하지만,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네 차례의 주요 개정 작업을 거쳐 본문을 바꾼 적이 없다.

여러분은 이제 확신을 가져도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 있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결코 ‘개정된 것’이 아니라 ‘정화된 것’이다.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 성경이 우리를 위해 ‘영어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정확성에 대한 권위는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의 초판 인쇄본에 있지도 않고 제임스 1세의 인품에 놓여 있지도 않으며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 문학의 뛰어난 업적에 있지도 않고 심지어 그리스어 공인 본문에 있지도 않다. 영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KJV)이라는 절대 무오한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의 말씀이 있다.

크리스천 투데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기사⁹³⁾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의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발간 16년째를 맞았다.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16년 동안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해 왔으며, 영어 킹제임스 성경 반포 400주년인 2011년에 ‘400주년 기념판’을 출간하기도 했다. 총판은 생명의 말씀사이며, ‘그리스도 예수안에’는 생명의 말씀사 온라인서점 내 ‘8대 성경 출판사’이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인터넷 집계상 매달 베스트성경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출판사 측은 “성경 번역을 위한 본문에는 다수 본문과 소수 본문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다수 본문인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TR)에서 번역된 성경”이라며 “반면 지난 100년 이상 국내에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복음과 구원의 말씀을 전달해 복음 전파에 놀라운 성과를 거둔 개역성경은 소수 본문인 비평 본문(Critical text, CT)에서 번역된 성경”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타 공인 한국의 대표 성경인 개역/개정 성경과 함께 흠정역 성경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특징을 소개했다.

- △ 원어(히브리어/그리스어) 단어들을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
-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보존된 성경
- △ 단 한 구절도 빠진 데 없이 모든 구절이 들어있는 성경
-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
- △ 매튜 헨리, 스펀전, D. L. 무디, 캠벨 모르건, 마틴 로이드 존스 등 권능의 사역자들이 사용한 복음 선포의 도구

△ 전 세계 모든 성경들 중 독보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

출판사 측이 밝힌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하여 빠진 데가 없다
- △ 천국, 지옥, 삼위일체 등의 기독교 핵심 교리가 명확하다
- △ 우리말 어법에 맞게 충실하게 옮겨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그대로 유지돼 감동이 살아 있다
- △ 모든 중요 단어가 통일성 있게 번역돼 성경 자체만으로 정확한 용어 색인이

93) 크리스천 투데이 2016년 12월 29일자 인터넷판, <성경 통독과 연구에 유익한 성경을 아십니까?>

가능하다

△ 역사성과 현실성이 반영돼 원어와 영어의 감동을 전해준다

△ 필요에 따라 한영대역, 스티디바이블, 큰글자성경, 작은성경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흡정역 성경 주변역자 정동수 목사는 美 펜사콜라크리스천칼리지 신학대학원 석사 과정과 메릴랜드주립대학 공학박사를 이수했으며 현재 인하대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킹제임스 흡정역 성경에 대해 차한 박사(가천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종교개혁 본문에서 번역된 성경으로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라고, 김재근 목사(전주 소망침례교회)는 “우리말 맞춤법에 맞게 단어들의 일관성을 유지해 성경 연구시 참고 자료로 매우 유용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도 흡정역 성경을 만날 수 있다. 구글 플레이에서 ‘LIFOVE’나 ‘KeepBible’을 검색하면 흡정역은 물론 개역, 바른 성경 등이 함께 담긴 최고 성능의 앱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애플 앱스토어에는 ‘킹제임스 흡정역 성경(다중역본)’ 무료 앱이 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단어]으로 살 것이라”(신8:3; 마4:4; 눅4:4)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육적 양식과 영적 양식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적 양식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단언하십니다. 한두 단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내신 모든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19세기 말 복음이 처음 전달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담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개역성경, 개역개정판,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할 것 없이 대한성서공회가 출간해 온 성경들은 한결같이 신약 성경에 최소한 13구절을 ‘없음’으로 표기하고 통째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많은 구절과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많은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 번역의 대본이 되는 본문이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사본학을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라도 로마 카톨릭 소수 본문과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다수 본문이 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개역성경, NIV, NASB, RSV를 비롯해서 현재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 모두 카톨릭 소수 본문에서 번역되었고 독일어 루터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 프랑스어 올리베탕 성경, 스페인어 레이나 발레라 성경 등과 같이 1세기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사용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신앙의 부흥을 일으킨 성경들은 모두 프로테스탄트 본문에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전파될 때에 어찌된 일인지 카톨릭 소수 본문에 근거를 둔 성경이 도입되어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개역성경에 한 점의 오류도 없다고 믿는 성도들이 많았고 따라서 지난 100년 동안 대부분의 성도들이 개역성경에 오류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본격적인 연구를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과연 어떤 성도가 두 종류의 성경 본문이 있고 이로 인해 두 종류의 성경 즉 정상적인 성경과 부패된 부분을 담고 있는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에서는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영어 성경이 여럿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읽혀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성경’이라는 호칭(*Authorized Version*)을 부여받은 킹제임스 성경만이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이 사용하는 수백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18, 19세기 미국 및 영국의 부흥과 전 세계 복음 전파에 독점적으로 사용되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켰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The Holy Bible)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NIV, NASB 등이 나오기 전까지 약 36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은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의 교리와 신학과 실행의 표준을 정해 준 성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NIV 등의 현대 역본들을 출간한 세속 출판사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킹제임스 성경을 집요하게 공략하였고 그 결과 미국에서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성경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서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도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성경 문제에 눈을 뜬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성경 문제에 대한 자료들이 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경의 진실을 안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공인 본문에서 번역되어 지난 400년간 단 한 번의 개정 없이 인류의 역사를 이끈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번역 일을 성서공회 같은 공적인 단체에서 하면 좋겠지만 이미 전 세계의 대부분 성서공회는 카톨릭 교회의 강력한 개입으로 인해 카톨릭 소수 본문만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세를 맞아 카톨릭 교회의 위상이 온 세상에서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신학교들도 카톨릭 본문을 선호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 준 종교개혁 본문을 버리고 있습니다. 즉 동료들의 압력과 연구의 부실로 인해 신학교 교수들도 이제 학자 노릇을 하려면 카톨릭 소수 본문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행위와 무관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믿음의 근거는 단 하나 즉 ‘기록된 성경 말씀’뿐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육적, 영적 모든 활동의 표준이 되는 척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표준 척도는 시대에 따라, 사람의 눈이 밝아짐에 따라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성경의 모든 단어를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말씀들[단어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단어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그런데도 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논쟁이 크리스천들 간에 뜨겁게 진행되고 있으며 100종이 넘는 책들이 소위 ‘성경’이란 이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또한 1993년 말에 미국성서공회는 「새 시대를 위한 좋은 소식」(Good News For A New Age)이라는 뉴에이지 성경도 버젓이 출판했습니다. 이처럼 상대적 윤리가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지난 400여 년 동안 단 한 번의 개정 없이 성도들의 표준 척도가 되어 온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흠정'이라는 말은 왕이 제정했다는 뜻임 - 처음으로 2000년 9월에 한글판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본 성경의 초판 번역에는 총 8년이 소요되었으며 목사,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과학자, 신학자, 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번역과 교정 작업에 참여하고 아낌없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조언을 주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노고가 없었으면 본 성경의 출간이 불가능했을 것이며 이에 대해 영광의 주님께서 하늘의 보상으로 충만히 갚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뒤 한글과 영어 본문을 담은 한영대역성경이 출간되었고 또 20,000여 개의 관주와 성경 사진, 컬러 지도와 선도를 담은 스테디바이블, 포켓용 신약 성경, 예배용 하드커버 성경, 큰 글자 성경, 개역성경의 오류를 표기한 박사 성경, 4개의 성경을 비교한 비교 성경 등이 출간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도의 초판 발행 이후 8년에 걸쳐 성경의 모든 단어를 가능한 한 다 넣는 작업과 우리말 문법에 맞게 모든 구절을 교정하는 작업이 수행되어 현재는 2008년 9월에 가장 최신판이 출간되었습니다.⁹⁴⁾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까지 순수하게 보존된 본문에서 번역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또한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우리말의 특성을 고려하고 사머니즘이나 이단 사상을 철저히 배제한 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다수 본문의 말씀들을 유대교/기독교 믿음과 교리의 테두리 안에서 신구약 모두 우리말로 최대한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행20:27)을 정확히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교회를 세우며 개개인의 영적 생활을 고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부디 이 성경을 통해 우리 민족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특히 반세기 이상 복음이 가려진 북녘 땅에도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울러 이미 믿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더욱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죽어가는 자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긴 작업 과정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허락하신 모든 공훈의 아버지와 친히 십자가의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피를 흘려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영원히 신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지혜와 판단으로 모든 일을 행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94) 영어 킹제임스 성경 출간 400주년인 2011년에 400주년 기념판(5판)이 출간되었고 그 뒤 10년의 교정 작업을 거쳐 2021년 7월에는 마제스티 에디션(6판)이 출간되었음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⁹⁵⁾

요즘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400주년 기념판 성경이 1611년 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1611년 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그렇다’와 ‘아니다’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잘 읽으시면 왜 답이 둘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인쇄공의 조판 실수로 인해 여러 가지 철자상의 실수들이 들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조금이라도 연구한 사람들 중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리건 박사의 유명한 글 ‘흠정역 성경 개정 신화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세히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 킹제임스 성경 발간 400주년을 기념하며 옥스퍼드 대학에서 출간한 1611년 판 영어 성경의 맨 뒤에는 1611년 원판에 있는 철자상의 오류들을 보여 줍니다(파일 참조하기 바람). 이 명단은 ‘and’를 ‘aud’로 인쇄한 것 같은 소소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명단에만도 150여 개의 조판 실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조판 실수들은 첫 판이 인쇄된 이후에 대부분 곧바로 교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건 박사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한영대역 성경 부록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약 150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현대 스타일의 영어 성경으로 안착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거치면서 1611년에 잘못 조판된 부분이 다 교정되었습니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는 이러한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예를 통해 잘 보여 줍니다.⁹⁶⁾

---1611년 판

1. Though I speake with the tongues of men & of Angels, and have not charity, I am become as sounding brasse or a tinkling cymbal. 2 And though I have the gift of prophesie, and understand all mysteries and all knowledge: and though I have all faith, so that I could remooove mountaines, and have no charitie, I am nothing. 3 And though I bestowe

95)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 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6&write_id=464

96) http://en.wikipedia.org/wiki/Authorized_King_James_Version

all my goods to feede the poore, and though I give my body to bee burned, and have not charitie, it profiteth me nothing.

---1769년 판(현대 판)

1. Though I speak with the tongues of men and of angels, and have not charity, I am become as sounding brass, or a tinkling cymbal. 2 And though I have the gift of prophecy, and understand all mysteries, and all knowledge; and though I have all faith, so that I could remove mountains, and have not charity, I am nothing. 3 And though I bestow all my goods to feed the poor, and though I give my body to be burned, and have not charity, it profiteth me nothing.

이 세 구절 안에는 철자 변화가 11개, 타이프 세팅 변화(고딕체에서 로마체로,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리건 박사의 글을 참조하기 바람)로 인한 변화가 9개, 구두점의 변화가 3개, 2절에서 본문 자체의 변화가 1개(no charity 대신 not charity)가 들어 있습니다.

자, 정직하게 이 두 판을 비교해 봅시다.

이 두 판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not’과 ‘no’를 가지고 ‘틀리다’ 혹은 ‘맞다’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이것은 문법상 ‘not’이 맞는데 조판공이 ‘no’로 잘못 조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2절과 다니엘서 11장 38절에는 1611년 판과 지금 인쇄되는 판에서 God와 god이 바뀌어 있습니다. 사43:12의 경우 원어 성경에는 god에 해당하는 단어가 원래 없으므로 지금 나오는 성경은 god을 이탤릭체로 바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판공의 실수로 1611년 판에는 이것이 God으로 정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판공이 실수한 대로 God을 따르지 않고 god을 따라 번역하였습니다.

절대적 의미에서 우리는 1611년 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611년 판을 따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판 실수요, 원본을 보면 누구라도 금방 알 수 있는 명백한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god을 따라 번역한 것이 실제로 1611년 판을 번역한 것입니다.⁹⁷⁾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런 실수들을 보여 주면서 “봐라. 1611년 판과 지금 우리가 보는 판은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말 흠정역 성경은 1611년 판을 번역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의기양양해 하는 이들을 보면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이런 주장이 성경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주장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반대를 위한 흠집 내기일까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흠정역이 아닌 어떤 성경이 더 낫다는 말씀인가요?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 줘도 모자랄 판에

97) <God과 good 사례도 보기 바람>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319

성경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면서 통과해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성경을 믿는 사람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절대적 의미에서 우리는 1611년 판을 본문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760-1769년에 현대 영어로 확정된 영어 성경을 1611년 판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611년 판에는 사람의 명백한 실수들이 있었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속 사람들도 - 미국의 의회도 - 2011년을 맞아 킹제임스 성경 반포 400주년을 기념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1760-1769년이 아니라 1611년입니다.⁹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교정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교정된 성경을 가지고 실제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시기 이후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150년의 기간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행하신 교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소문자 'g'냐, 대문자 'G'냐는 하나님의 교정에 의해 이미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 손에 확실하게 들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 1611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성경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한 확신을 깨뜨리는 이들이 늘 인용하는 분이 웨이트 박사님입니다. 이들에 의해 올해 연세가 85세이신 웨이트 박사님은 늘 우롱당하고 있습니다. 웨이트 박사님이 실제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무어라고 말씀하셨는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웨이트 목사님 교회에서 그분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분의 교회가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매해 미국을 방문하면 그분의 집과 교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성경 보존에 관한 그분의 입장이 무엇인지 저는 확실히 압니다.⁹⁹⁾

----- 인용 시작

D. 1611판 킹제임스 성경과 현재 킹제임스 성경 사이엔 겨우 421개의 단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종종 현재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의 킹제임스 성경과 많이 다르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사실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토마스 넬슨(Thomas Nelson) 출판사는 1611년도에 인쇄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일반 로마체로 서체만 바꾸어 내놓았다. 이 책은 한때 절판되었지만 다시 출간되었다. 본래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은 독일어체로 인쇄되었다. 나에게는 독일어체로

98) <킹제임스 성경 400주년 관련 미국 의회 결의안>,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554

99)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3-4쪽,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간.

되어 있는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의 사진 복사본이 있다. 읽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s’가 다르다. 하지만 넬슨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기 쉬운 서체로 바꾸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런 작업을 한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다(아마 독자들도 그랬을 것이다). 뉴킹제임스 역본(NKJV)은 그저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을 기초로 한 또 하나의 ‘판’(edition)으로서 현대인에 맞게 개정되어 나왔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초판 때인 1611년부터 NKJV가 나온 1979년까지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 번의 굵직한 변화들을 겪어 왔다는 말도 있다.

나는 이 사실을 직접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1917년에 나온 「구(舊) 스코필드 주석 성경」 - 킹제임스 성경 본문 사용 - 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다. 나는 「구(舊) 스코필드 주석 성경」은 녹음테이프를 듣고 넬슨 출판사에서 나온 1611년 판 흠정역 성경은 눈으로 읽으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어 하나하나를 비교해보았다. 나의 귀로 듣고 감지할 수 있는 변화는 극히 일부분이었다. 물론 철자법은 꽤 다르다.

원판 킹제임스 성경과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 사이에는 철자법에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상당히 크다. 예를 들면 신명기 31장 1절에 “Moses went and spake these words to all Israel.”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에는 ‘words’라는 단어가 ‘wordes’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비교를 하면서 다르다고 느낀 부분은 발음뿐이었다. 즉, 나는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과 오늘날의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면서 소리에 있어 몇 가지 변화를 발견했다. 그러나 모두 출력해서 확인해 본 결과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었다.

결국 차이점이라는 것은 신구약 전체에 걸쳐 발음이 다르게 나는 421개의 단어였다. 킹제임스 성경이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는지 아는가? 무려 791,328개의 단어이다. 1611판 킹제임스 성경과 오늘날의 킹제임스 성경의 차이는 전체 단어들 중에 고작 발음이 다른 421개의 단어들뿐인 것이다.

이 421개의 변화들 중에서도 285개는 ‘형태’만 바뀐 사소한 변화들이다. 나머지 136개만 ‘내용’의 변화 즉 ‘of’나 ‘and’의 첨가와 같은 변화들이다. 소위 사소한 변화들의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towards’와 ‘toward’가 다르게 들렸다. 이렇게 달리 들린 단어들을 기록했다. 모두 세어 보니 14번이었다. 또 나는 ‘burn’와 ‘burned’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는 총 31번으로 아주 적었다.

같은 내용이라도 나는 그것을 모두 따로 계산했다. 가령 ‘amongst’와 ‘among’의 경우 36번 있었고 ‘lift up’과 ‘lifted up’은 51번 있었다. ‘You’는 82번 ‘ye’로 바뀌었다. 보시다시피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다. 이러한 종류의 사소한 변화가 214군데 있고 여기에 기타 71군데의 다른 사소한 변화들을 합쳐서 총 285개의 형태 변화가 있다. 요약하자면, 귀로 구별할 수 있는 변화가 총 421개인데 여기서 ‘모양’만 다른 곳이 285군데, ‘내용’이 다른 곳이 136군데이다. 이 조사 자료는 모두 책자로 정리되어 구할 수 있다[B.F.T. #1294].

E. 오늘날의 킹제임스 성경은 사실상 1611판 킹제임스 성경과 같다

오늘날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 진짜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고 해서 안 된다. 이것은 틀림없는 킹제임스 성경이다. 따라서 여기에 초판과 비교해 3만, 4만, 5만개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철자법의 차이를 말하는 거라면 맞다. 하지만 철자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에 관한 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 출간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안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 인용 끝

자신이 마치 숨겨진 진실을 알려주는 전도사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 보존에 대해 성도들이 믿고 있는 바를 어떻게든 깨뜨리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기쁨을 가져다줍니까? 이들의 사술(詐術 혹은 邪術)에 말려드는 양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손에 들린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합시다.

원어의 보존을 믿는 사람이라면 웨이트 박사님처럼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전히 보존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을 세워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경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철자의 변화, 대소문자 변화, 고딕체에서 로마체로 타이프 세팅이 변한 것을 보여 주면서 1611년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려는 이들에게 잠시도 틈을 주지 말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들(단어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단어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이와 같은 약속에 따라 지금 우리 손에는 완전히 보존되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단어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저희가 출간하는 킹제임스 홈페이지 성경은 '1611년 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샬롬

모든 책과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¹⁰⁰⁾

안녕하세요?

요즘 어떤 분들이 제가 떼돈을 벌려고 성경 사업을 한다고 말하나 봅니다. 이미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고도 합니다. 사실 그런 말이 알려지면서도 퍼뜨리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만한 분은 다 압니다. 그래도 오늘은 양심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제가 일확천금의 떼돈을 벌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적습니다.

1.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의 모든 책은 무료로 제공한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저희가 출간하는 모든 책은 가장 최근에 나온 400주년 기념판 성경 포함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판권을 소유하는 이유는 물론 이상한 사람들이 가져다가 멋대로 변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뿐입니다(밑의 링크 참조).

1. 400주년 기념판 무료 PDF 파일(큰글자 성경)

심지어 공들여 만든 전자책들도 모두 무료입니다.

2. 무료 PDF e-book (전자책) 배부 01

저희 사이트 우측 상단의 구글 검색에서 '무료 전자책 PDF'라고 치면 모든 무료 책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나 갤럭시탭 혹은 스마트폰에 저장하신 뒤 마음대로 보시고 나누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사이트 우측 상단의 웹하드 용량을 대폭 늘려 한 번에 모든 책을 다운받고 CD 등의 자료를 다운받게 할 것입니다.

2. 무료 성경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앱

저희 성경은 또한 무료로 소프트웨어 및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됩니다.

1. 베들레헴성경 소프트웨어

2.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구글플레이에서 '킵바이블' 혹은 'LIFOVE'를 치시면 무료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이폰 용은 앱스토어에서 '킹제임스'를 치면 나옵니다(킹제임스 흠정역 성경_다중역본 무료 앱).

이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유료, 무료)는 저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100) 이것은 2016년 4월 27일에 올린 기사로 킵바이블 사이트에서 <모든 책과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로 검색하면 나온다.

아이폰의 유료 앱의 경우 저희 것을 도용한 것입니다. 저희가 시정을 요구해도 듣지 않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3. 정동수 목사 강해/설교 등 CD, 전도지, 소책자 무료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모든 강해/설교, 전도지, 소책자 역시 무료로 제공됩니다. 사랑침례교회 사이트에서 역시 우측 상단의 구글 검색에서 '무료 자료'라고 치면 모든 무료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 무료로 보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폐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저희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꼭 종이 책이 필요한 분만 구매한다. 끝.”

물론 종이 책도 무료 배포하는 것이 있지만 무료 배포 분량이 소진되면 구입을 해야 한다는 뜻이고, 전자책으로 무료로 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책에 들이는 비용을 낮춰 화려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경북에서 목사님 세 분이 세미나 차 서울에 오셨다가 밤늦게 교회로 찾아오셔서 잠시 만났습니다. 저희 책의 정가를 보시더니 보통 시중에서 20,000-25,000원 분량의 책을 13,000원에 어떻게 파느냐고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요?

“그냥 거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런 자료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다면, 여러 날 뒤 천국에서 그것이 저와 또 무료 책들과 자료들의 저자들 그리고 역자들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네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네가 그것을 찾으리라(전11:1).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후1:14).

성경 포함 이 모든 자료에는 제 인생의 황금기에 흘린 땀과 눈물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저와 가족과 동역자들의 혼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두 무료로 나눠 주고 갈 것입니다.

“장삿속으로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일확천금을 벌고 있다”는 주장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 사람들이 늘 제기하던 것이라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저희 성경이나 사역을 반대하는 분들이 매번 들고 나오는 이슈니까요. 저희 성경을 쓰면서도 저희를 대적하며 대체 성경을 만들겠다고 하던 분들을 향해 5년 전에 쓴 글을 보기 바랍니다.¹⁰¹⁾

101) 킵바이블 사이트 상서 검색에서 <홈정역 성경 관련 이슈들>을 치면 판권, 번역자, 판매, 교정, 원어, 말씀보존학회, 안티오크 등에 대한 답변의 글이 나온다.

이제 또 이런 글을 공지사항 맨 위로 올려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처음에 빛을 지고 시작한 출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이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직원은 한 명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지 않습니다.

자, 아무도 하지 않기에 저를 누르는 부담 때문에 시작한 번역/출판 일이 잘 되어 혹시 괄목할 만한 재정적 이득이 난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 한들 누가 이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고전 9:14).

그러므로 이런 비난은 명백한 간섭이자 월권행위이며, 이 모든 일에 협력하는 형제자매님들과 십시일반으로 미디어 헌금을 보내어 조금이라도 진리를 알리고자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저에게 어떤 금전적 비리 사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이런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증거가 있으면 대보든지, 그런 증거 자료가 없다면 부디 이제는 남의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말고 본인의 일이나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만일 제가 목사(성도)로서 정당하지 못한 이득을 탐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받을 것이고, 세상의 법을 어겼다면 법의 이름으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미디어 사역과 성경 번역 등으로 무척 분주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헛된 공방으로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부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상식을 기대합니다.

샬롬

페스터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 책들¹⁰²⁾

종 류	책
성경(7종)	한영대역, 스테디, 큰글자, 작은, 하드커버, 박사, 비교 성경
사전/지도	에스라 성경 사전, 에스라 지도 선도
킹제임스성경(8종)	킹제임스성경 번호, 킹제임스성경의 4종 우수성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킹제임스성경 답변서, 킹제임스성경 입문서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세상을 바꾼 책-킹제임스 성경
천주교/이슬람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 사상평가
	이슬람교 바로 알기
구원	구원 바로 알기
	구원열차 구원방주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행위 종교 은혜 복음
교리/경건	성경 바로 보기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오순절은사운동 바로 알기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왜 안하는가?
재림	재림과 휴거 바로 알기
	재림과 휴거 -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102) 모든 책은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 사이트에서 무료 PDF나 전자책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함

원래의 기록
(자필원본)

히브리어/그리스어 전통본문
모든 사본 중 가장 신실한 것들

번역본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선구자들

1611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היתה תהו ובהו וחשך על
ההוים ורוח אלהים כרחפת

히브리어 구약성경

BIBLOS γενέσεως
'Ιησου χριστου, υιου
Δαβιδ, υιου 'Αβραάμ.
'Αβραάμ ἐγέννησεν

그리스어 신약성경



번역자들
오직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

번역기술
단어 대 단어의
'축자 번역'
'동적 일치 배제'

종교개혁의 정신과
함께 중요 교리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
위가 완전히 보존됨

위클리프 성경	1382
틴데일 성경	1525
커버데일 성경	1535
매튜 성경	1537
그레이트 성경	1539
제네바 성경	1560

사람의 문제



사람

죄의
구렁텅이

하나님

하나님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사람

죄의
구렁텅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를 여신 이후에 인류 역사를 가장 크게 바꾼 사건은 주후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이다. 1000년 동안의 중세 암흑시대에 온 유럽을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하던 교황청의 절대적 권위가 무너졌다. 교황청의 권위에 도전한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개인의 영혼의 자유, 인권, 자본주의의 윤리를 확산시키면서 산업 혁명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치관으로 뿌리내렸다.

마르틴 루터(주후 1483-1546)

주후 1521년, 독일 황제의 소환을 받고 보름스 제국 회의에 가는 것을 막으려는 친구들에게 루터가 한 말과 거기서 유래된 찬송가

비록 저들이(교황권 세력) 체코의안 후스는 불태웠을지 몰라도 진리는 불태우지 못했소. 보름스에 저 지붕 위의 기와만큼이나 마귀가 많다 해도 나는 가졌소.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드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왕국 영원하리라(찬송가 384장 3절)

보름스 제국 회의에 참석한 황제와 제후들은 그에게 간단한 대답 하나만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그의 개혁 사상을 철회하고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루터는 그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다.

종교개혁은 내가 고안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사주를 받아 일으킨 것도 아니며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교황이나 공회들도 반복적으로 실수를 범하며 자기당착에 빠진 것을 나 자신이 목도 하였으므로 나는 교황이나 공회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경 기록에 의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경 기록의 증언이나 명백한 이유에 의해 나 자신이 확신을 갖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는 안전하지도, 합당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나이다.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나이다.
오 하나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God help me, Amen.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상태와 구원의 방법과 죄인의 운명과 신자의 행복을 담고 있다. 성경의 교리들은 거룩하고 그 훈계들은 구속력이 있으며 그 역사들은 진실하고 그 결정 사항들은 바꿀 수 없다. 성경을 읽어 지혜롭게 되고 성경을 믿어 안전을 얻으며 성경의 내용을 실천하여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은 너를 인도할 빛과 너를 지탱할 음식과 너를 기쁘게 할 위로를 포함하고 있다.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요, 순례자의 지팡이요, 항해사의 나침반이요, 군사의 칼이요, 그리스도인의 현장이다.

성경 안에서 낙원이 회복되고 하늘이 열리며 지옥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요, 우리의 행복이 성경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이다. 자주 그리고 천천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라. 성경이 네 기억 속에 박히게 하고 마음을 지배하게 하며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라. 성경은 부의 보고요, 영광의 낙원이요, 기쁨의 강이다. 네가 살아 있을 때에 주께서 이 성경을 주셨으니 또한 심판 때에 이것을 펴시고 영원토록 너를 기억하실 것이다.

성경은 최고의 책임을 요구하여 수고에 대해서는 최고의 보상을 주되 그 안의 거룩한 내용들을 무시하는 자는 다 지옥 불로 정죄할 것이다. - 작자 미상

성경 해석의 황금률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 - 작자 미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Testament,

예배 때 설교에서 설교자와 회중이 성령님에 의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설교자에게 있어야 한다.

1. 로고스(Logos)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우리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회중 앞에 섰을 때 설교자들은 일단 우리의 숙제를 한 것이다. 우리는 본문 구절들을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보며 문맥 안에서 그 안의 단어들의 뜻을 찾아내고 그 단어들이 회중에게 바르게 전달되도록 올바른 해석 방법에 의해 본문을 해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설교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 로고스 그 자체를 선포한다.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의 핵심이다.

2. 에토스(Ethos) 이것은 곧 설교자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설교를 할 때 아주 치명적인 병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것들을 다룬다는 생각으로 당신의 손과 마음을 마비시켜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브룩스(Phillips Brooks)는 이것을 열차 안내원 비유를 통해 잘 보여 준다. 안내원은 다음 역에 도착하기 전에 큰 소리로 몇 차례 그 역의 이름을 알려준다. 그리고는 자기가 큰 소리로 몇 차례 그 역을 알려 주었기에 지금 자기와 승객들이 그 역에 도착했다고 믿는다. 그래서 브룩스는 설교는 반드시 인격체를 통해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우리가 다 구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그것에 복종하려 하고 그것을 갈구하며 그것이 우리의 에토스(정신세계)의 일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청교도인 에임스(William Ames)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설교가 효력을 발휘하려 할 때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꾸밈없이 설교자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에토스이다.” 설교자의 에토스가 그가 전하는 로고스를 뒷받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이룰 수 있다.

3. 파토스(Pathos) 마지막으로 개인의 열정과 확신이다. 한번은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이자 불신자인 흄(David Hume)이 윌필드(George Whitefield)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저는 선생님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자 흄이 대답하였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설교자가 자기가 설교하는 것을 믿을 때에는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다. 확고한 믿음과 더불어 필수적인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설교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기쁨은 로고스(말씀)와 에토스(설교자)와 파토스(설교자의 열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당신도 이 셋을 갖추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때에 회중 가운데 임하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 휴즈(R. Kent Hughes), <Preaching the Word Commentary> 편집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자

주님,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님, 기쁠 때나 자유로울 때나
모든 것이 평안할 때나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 때에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님, 이런 복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며
주 예수님,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님, 쓰라린 절망 가운데서나
두통이나 상실감 혹은 실패가 내게 넘칠 때라도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님의 가슴에 더욱 기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랑의 주님, 내가 진실하기 위해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아픔이 찾아올 때나
죽음이 찾아와 사랑하던 자들을 데려갈 때에도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그때에, 주님, 아 그때에 내가 주님의 힘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리이다.
사랑의 구원자시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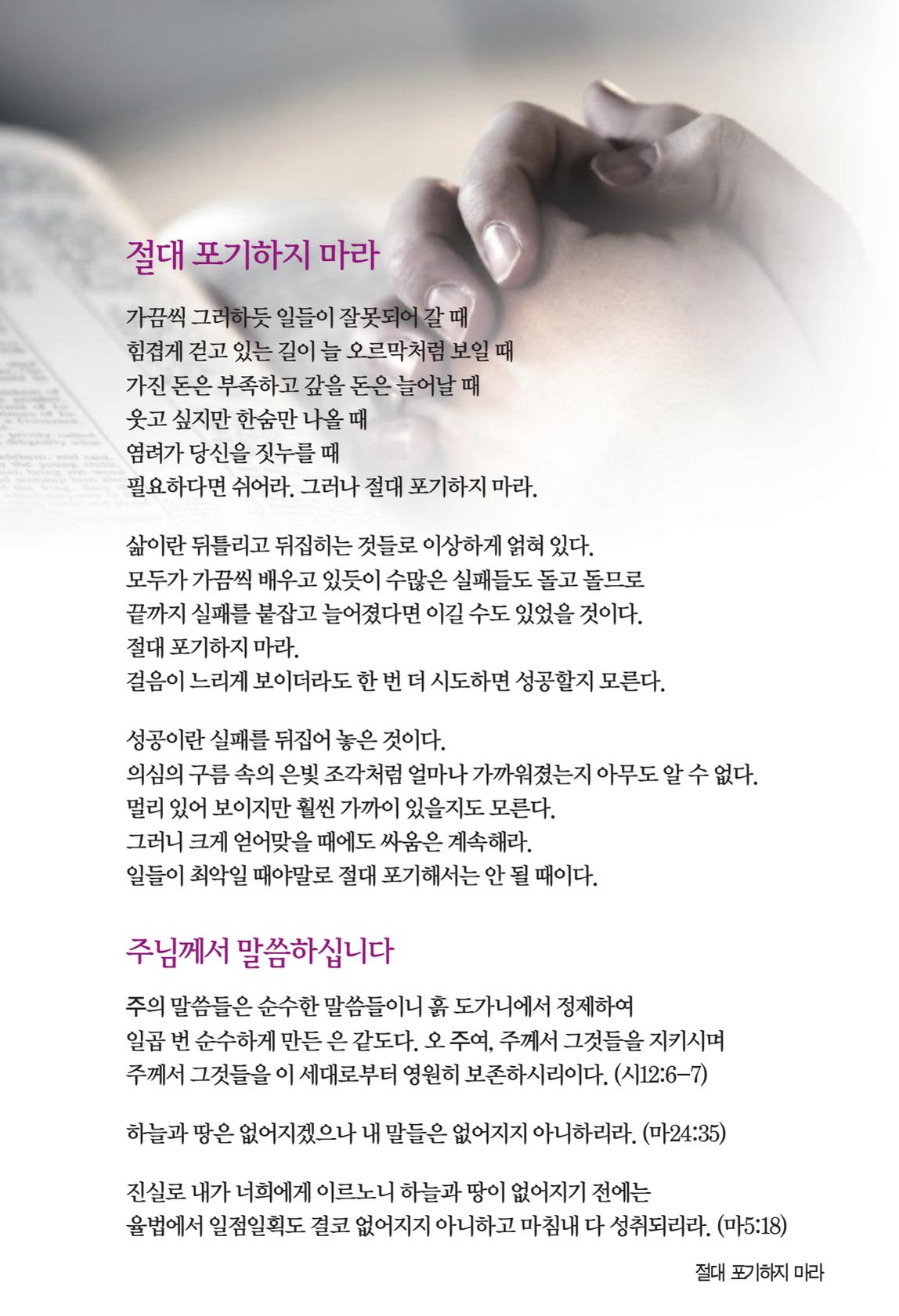
주님, 다른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아도 나는 진실하게 하시고
내가 몇 안 되지만 진실한 자들 안에 서게 도우소서.
비록 조롱 받고 간히고 죽음이 나를 엄습해도
주 예수님,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기도하오니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매일 어떤 운명에 처할지 몰라도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나의 힘은 약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견고한 버팀목이 되소서.
내가 진실하기 위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 -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 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33)

주님,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가끔씩 그러하듯 일들이 잘못되어 갈 때
힘겹게 걷고 있는 길이 늘 오르막처럼 보일 때
가진 돈은 부족하고 값을 돈은 늘어날 때
웃고 싶지만 한숨만 나올 때
연려가 당신을 짓누를 때
필요하다면 쉬어라.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라.

삶이란 뒤틀리고 뒤집히는 것들로 이상하게 얽혀 있다.
모두가 가끔씩 배우고 있듯이 수많은 실패들도 돌고 돌므로
끝까지 실패를 붙잡고 늘어졌다면 이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걸음이 느리게 보이더라도 한 번 더 시도하면 성공할지 모른다.

성공이란 실패를 뒤집어 놓은 것이다.
의심의 구름 속의 은빛 조각처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멀리 있어 보이지만 훨씬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크게 얻어맞을 때에도 싸움은 계속해라.
일들이 최악일 때야말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시12:6-7)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마5:18)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티디, 큰글자, 박사, 신약 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종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9.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1.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희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켈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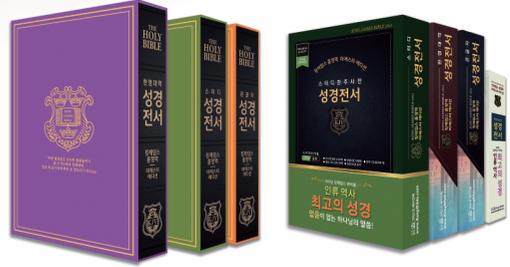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킹제임스 흠정역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마제스티에디션
한영대역 큰글자성경
스터디바이블 작은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간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10년 전 처음 출간된 흠정역 성경은 이미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슨 외/ 고정민 역

모든 것을 끝내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환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려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배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빠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흥정역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